

수진동 상준씨 이야기 양벌리 부잣집 딸  
순금씨 이야기

스물여덟 살이 되던 해,  
회사 사장님의 소개로 결혼을 했고,

수진동 진희씨 이야기

누씨 좋은 집 장수  
수진동 보화씨 이야기

동네 입구에 있던 센추리목욕탕은 수진동의 랜드마크였다

장 노 현 지음

산을 넘어 학교로 가는 길이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다

그는 요즘 들어  
폐유처리 일이 몸에 부치고 땀도 많이 흘렸다.

나는 시골 촌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나는 둘째, 큰딸이었다. 아래로 동생들이 여럿이었는데 어려서 하나는 죽었다.  
!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는 나를 서울로 보냈다.

가마 그때쯤 방위병 입대 통지서가

성남에서 살아온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서울 사람이라고 한 적이 몇 번 권하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온 게 성남이 훨씬 많은데 나 이제 성남 사람

수진동 충남상회 라연씨 이야기

돌고 도는 인생사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수진동 이야기북 4

## 2010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

발행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하동근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김지훈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a href="http://www.sncf.or.kr">www.sncf.or.kr</a> / <a href="http://www.snart.or.kr">www.snart.or.kr</a>
발행일	2011. 2
지은이	장노현
디자인 · 인쇄	맥스커뮤니케이션

©성남문화재단  
ISBN 978-89-94964-00-3

수진  
도  
인  
사  
람  
들  
이  
야  
기

The title is arranged vertically. The characters are in a mix of bold, blocky, and handwritten styles. Several icon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a person silhouette above '수', a paperclip above '진', a hand pointing to '도', a house above '인', a house above '사', a house above '람', a house above '이', and a syringe below '기'.



#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

장노현 지음



# 하늘텃밭이 열리는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 속으로

수진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세종대왕의 아들인 평원대군이 18살이라는 나이로 요절하자, 영장산 남쪽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묘를 돌보게 하기 위해 수진궁을 지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난히 언덕과 골목이 많은 수진동에서는 오래된 가게, 문닫은 가게, 새로 생긴 가게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 사이 1층에 상점이 자리잡은 건물들이 있으며 수진역 4거리에서 구 시청사 방향으로 가는 길에 성남시 수정구의 명소인 수진동 성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본 도심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살려내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방문화클럽은 동네의 클럽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주민문화의 가능성을 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네활동에 문화통화도 한 몫을 하였는데요, 수진동 성당은 제7호 지역사랑방으로 지정되어 문화배움터 장소를 흔쾌히 동네에 내어주셨습니다.

2009년도 수진동에서 시작한 문화배움터에서는 한지공예, 신문지공예, 색소폰, 드럼반, 영상등 다양한 문화클럽의 강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펼쳐보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수진동의 비탈진 골목에 서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 여러 집 옥상에서 자라고 있는 갖가지 꽃과 채소등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배움터 영상반 주민이 찍은 영상에서 착안한 하늘텃밭은 수진동의 옥상들로 펼쳐진 풍경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심 속의 파릇파릇한 씨앗들을 멋지게 펼쳐놓았습니다.

지대가 높고 골목길이 많은 수진동에서 하나의 번지 또는 골목의 맞은 편끼리 나란히 펼쳐진 텃밭은 아주 특이한 수진동 만의 골목길을 탄생시켰으며, 텃밭을 매개체로 하여 원예정보를 공유하고 모종을 나누며 문화공동체가 싹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수진동의 경우 시청사의 신 시가지 이전으로 인해 주변상권의 약화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새로운 수진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동네의 특성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천 가능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로써 동네만들기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기초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북은 시리즈물 다섯번째 결과물입니다.

2009년도 상대원 사람들이야기를 시작으로 진솔한 동네별 사람들의 개별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서사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이 속해있는 지역과 지역민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책의 궁극적 목표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네만들기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실천가능한 여건으로 만드는데 이 이야기북은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진동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생활문화와 삶을 방식을 집필하느라 고생하신 장노현 교수님과 구술자 섭외 등 동네만들기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 늘봄의 이상훈 팀장님과 이초영 작가님, 이 책에 구술자로서 참여하신 한분 한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진동 사람들이야기는 수정구의 또 다른 동네이야기로서 충분한 지역적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스토리텔링 즉 서사예술이 다른 분야의 예술과 달리  
문화공동체만들기 같은 공공적 프로젝트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야기 형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스토리텔링과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은 성남시 수진동 사람들의 구술 생애 자료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이것은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북 시리즈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이야기북 시리즈는 2009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으로,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가 이미 간행되었고, 이번에 다시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와 『섬말 사람들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파편들로 이루어진다. 삶의 파편들은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을 통해 하나의 긴밀한 이야기(서사)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는 삶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로 재구성된 기억들은 다시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 삶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기억이 되고, 기억이 다시 삶이 되는 전화의 과정은 고리처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삶은 이야기이며 또한 기억이 되는 셈이다. 삶이 곧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고 싶거나 말해야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 몇 개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Everyone has some stories to tell)

삶에 관한 이야기에는 객관적인 역사가 담아내지 못하는 삶의 내밀한 작동원리가 담겨 있다. 이야기북 시리즈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야기북의 일차적인 목표는, 개인적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과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삶에 공감함으로써 생활문화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지역 내의 생활문화와 삶의 방식들에 대한 개인적·은미시적 기록을 통해 공식적인 역사를 보완하는 기억저장고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이차적인 목표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서사적 요소의 분절과 결합, 삽입 등의 다양한 하이퍼텍스트적 서사기법을 실험하고자 하는 부차적인 목표도 함께 한다.

그동안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였다. 다른 무엇을 위해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가 중요해지면서 이야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또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활용하는 데 너무 몰두하고 있는 폐단도 엿보인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와 같은 공공적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를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미술이나 음악 분야의 예술 작업은 이미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공공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 즉 서사예술이 다른 분야의 예술과 달리 문화공동체만들기 같은 공공적 프로젝트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야기 형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함께 등장했던 근대소설-영미권에서는 그것을 노벨(novel)이라고 했다-은 그동안 가장 완벽하고 선진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인과성과 필진성을 바탕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춘 근대소설을 이야기의 완성태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소설은 지고지순한 예술품이 되었고, 더불어 소설가들은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게 되었다.

이야기를 문화공동체만들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예술적 완결성을 추구

했던 근대소설의 형식을 벗어나고, 더 나아가 소설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형식이 가능하고도 적합한 대안이 될까? 또한 이야기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기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여기서 소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읽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존의 이야기를 변형하거나 활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인과성과 픽진성을 중요시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구조적 덩어리로 인식되는 소설의 형식은 그러한 변형과 활용을 통한 이야기의 소비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와 반대되는 형식, 즉 전체가 부분들로 파편화되는 형식에 주목했다. 파편들은 부분적 독자성을 지닌 짧은 길이의 텍스트들이다. 120여 자를 넘지 않는 트위터의 짧은 글처럼, 각 파편들은 전체 이야기에서 분리되어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와도 쉽게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디지털서사의 한 형식인 하이퍼텍스트서사의 단위텍스트와 같은 자질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의 가치와 기능도 근대적 가치와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시부족사회에서 구술 이야기는 공동체의 가치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부족의 연장자들이 모닥불 가에서 들려주었을 자신들의 신과 조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부족의 특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던 근대소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이야기북은 서사 형식 면에서는 디지털서사의 파편화를 지향하면서, 구술 이야기처럼 공동체의 형성과 강화라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개인생애 자료를 구술서사 형식으로 채록하고, 다시 그것을 파편화된 작은 이야기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구술이야기는, 인쇄서사와는 달라서, 이야기 구성 요소 간의 삽입, 중복, 순서의 뒤섞임 등이 심하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구술 이야기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파편화된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북의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이야기북 작업은 구술자 선정에서 시작된다. 구술자는 대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구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부수적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관심사항 등도 가능한 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도록 고려했었다.

실제로 이 책에 수록된 구술자들은 수진동 거주 기간이 23년부터 길게는 40년을 넘는 사람들이다. 연령 분포도 4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업적 관심사도 구술자마다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구술자(가명)	출생연도	성별	수진동거주기간	하는(했던) 일
이상준	1962	남	26년	청소년수련관 원장
황순금	1934	여	38년	장사, 노인회장
주라연	1929	여	44년	골목가게
박진희	1958	여	23년	신협수금원, 간호조무사
최보화	1950	여	32년	주부, 부업
이영권	1950	남	36년	폐유처리업

구술자 선정이 끝나면, 구술 채록과 전사 과정이 뒤따른다. 이 과정은 구술 서사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텍스트 자료로 옮겨내는 것이다. 구술 서사인터뷰는 조사자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구술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술자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애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디지털 녹음을 통해 녹음되었다. 녹음된 구술 자료는 다시 텍스트 자료로 전사되었다. 전사 과정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복 어구 등을 삭제하지 않았고, 구술 자료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살렸다.

다음은, 서사의 재구성 과정으로, 구술 자료를 재구성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재구성 작업은 각 개인들의 파편화된 삶의 경험 영역들을 분절하고 결합하는 흥미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작업이었다. 그 경험들은 우선은 해체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결합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북 프로젝트의 목적인 생활문화공동체의 형성과 강화에 직접 활용 가능한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생애 서사의 재구성은 우선 삶의 경험들을 해체하고 분절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 전사된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텍스트 속에 숨어져 있는 다양한 분절 표지들을 찾아냄으로써, 서사적 혹은 통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 단위를 분리해 낸다. 그런 연후에 분절된 이야기 단위들을 결합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읽기 편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생애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생애사 이야기는 모두 20개 이내의 상위체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상위체험 요소들은 다시 몇 개의 더 작은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요소들은 필자가 다시 서술한 원고 부분과 구술자의 목소리를 직접 노출한 부분으로 나뉘며, 그것의 분량은 대개 3: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필자가 다시 서술한 원고는 허구적 내용을 배제하고 구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

으며, 주로 단문을 사용하려 했다. 구술자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 인용 부분은 신중한 선택 과정을 거쳐서 삽입되었다. 주로 구술자가 객관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수진동에 대한 구술자의 종합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포함된 부분을 위주로 직접 인용 부분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부분은 최대한 구술 그대로를 살려 신뢰, 가독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중복어구나 단순 감탄어구의 제거, 문장부호의 삽입 등 최소한의 정리를 거쳤다.

한편, 서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간혹 서술자가 아닌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노출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 또한, 완벽하게 통제되는 단일한 서술자의 목소리로만 이야기하는 근대소설의 형식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의 새로운 서사 형식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이렇게 노출되는 저자의 목소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서사적 상황과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거나,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삽입하거나, 여담을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관련되는 다른 부분으로 하이퍼링크의 연결을 지시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필자는 이런 작업을 위해 로렌스 스톤이 쓴 『트리스트럼 샌디』의 이야기 형식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는 구술자들의 삶을 미화하여 아름답게 보여주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수진동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내의 생활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기록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책은 수진동 사람들의 기억을 보관하는 기억상자이며 기억박물관이다. 이 기억들은 수진동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이야기되면서 생활문화공동체를 강화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수진동의 기억박물관은 향후 수진동의 스토리텔링 클럽이나 집필 커뮤니티(writing communities)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만든 이야기북이다. 먼저 여러 구술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구술에 참여했지만

몇 가지 사정으로 이야기가 책에 수록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구술자 섭외를 도와준 미디어공동체 늘봄의 이상훈 대표와 이초영 선생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음성 자료의 텍스트 전사와 교정을 전적으로 맡아 준 정혜영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님에게는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2010년 12월 10일

청계관에서

장 노 현 씀

## | 목 차 |

### 이야기북을 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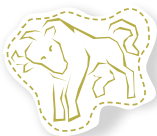
하늘텃밭이 열리는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 속으로 5

서문/ 스토리텔링과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9

성남 사람 만들기 · 수진동 상준씨 이야기 21



양벌리 부잣집 딸 · 수진동 순금씨 이야기 41



수진동 충남상회 · 라연씨 이야기 63



돌고 도는 인생사 · 수진동 진희씨 이야기 81



숨씨 좋은 집 장수 · 수진동 보화씨 이야기 103



수진동 골목의 나전칠기 · 영권씨 이야기 127

구술자료/ 수진동 황순금 녹취록 147

구술자료/ 수진동 이영권 녹취록 171

수진동 구술대상자 조사카드 양식 196

구술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 197

"대부분 이 당시 제 나이 또래인 사람들이 성남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보다 조금 먼저 들어오신 분은 주로 철거대상자가 되서 들어왔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홀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서울에서 밀려..."



# 성남 사람 만들기







## 성남 사람 만들기

●●● 수진동 상준씨 이야기

### 1.

강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울에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강남에 산다고 한다. 수지 사람들은 용인에 산다고 하지 않고 수지에 산다고 한다. 압구정 사람들은 강남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성북동 사람들은 강북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목동 사람들은 양천구 산다는 말을 싫어한다.

분당 사람들도 스스로를 성남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천당 아래 분당에 산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성남 구도심에 사는, 태평동, 수진동, 신흥동 주민들조차 스스로를 성남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이제 올해 나이 마흔아홉이 된 나는 서울 장충동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중학교 때 성남으로 이사하여, 인생의 태반을 성남 수진동에서 살아왔다. 그런데도 나는 얼마 전까지 스스로를 서울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성남을 싫어하거나 꺼렸던 적은 없었다.

“성남은 너무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떨어져요. 자긍심이나 우리 동네에 대한. 대부분 여기 들어오면 저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지만 저도 서울에서 낳는

데요.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올해 마흔아홉인데 살아온 걸 다 보면 성남에서 살아온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서울 사람이라고 한 적이 몇 년 전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온 게 성남이 훨씬 많은데 나 이제 성남 사람이라고 그야 되는데. 왜 내가 성남 사람인 거를 잊어먹고 살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뜻을 세우고 고향을 떠날 때면,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들에게 고향은 든든한 마음의 양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인들의 고향 의식은 많이 희박해졌다. 더군다나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성남은 이제 겨우 4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였다. 이 신생 도시의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성남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성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까? 나는 이것이 성남이라는 신생 도시의 태생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 2.

서울에 아직 화신백화점이 있었을 때, 내 어머니는 그곳 아케이드 점포를 몇 개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일은 허무하게 기울었다. 어쩌면 사기를 당해서 망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은 서울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성남으로 들어왔다. 성남 개발이 한창 시작되었을 때였다.

“대부분 이 당시 제 나이 또래인 사람들이 성남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보다 조금 먼저 들어오신 분은 주로 철거대상자가 되어서 들어왔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흠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서울에서 밀려서 들어온 케이스가 돼서, 서울 그러니까 제가 중구 장충동에 태어나서 서울시 퇴계로 한가운데 있는 일신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길동으로 이사를 가서 신길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성남에 들어오게 됐는데.”

1975년 무렵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철거대상자 신세가 되어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와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남 개발을 틈타 한몫 잡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주해 오던 때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꼬깃꼬깃 가슴에 끌어안고 성남으로 물러들고 있었다. 우리 식구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철거민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서울에서 밀려나 성남으로 옮겨오게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때 형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상태였다. 아직 초등학교 졸업 전후였던 나는, 형과는 11살 터울이었다. 가운데 있던 누나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식구라고는 나와 어머니 뿐이었고, 그래서 나는 외아들같이 컸다. 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혼자였고,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외톨이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 3.

처음에, 어머니는 상대원에 집을 마련했다. 상대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신흥동 어디쯤이었던 같기도 하다.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건물에 이상한 모양으로 팔려 있는 허름한 집이었다. 아니 방이었다. 방안으로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어두운 방안은 낮에도 전깃불을 켜야 할 정도였다.

집 밖으로 나서면, 동네는 언제나 시궁창 냄새에 잠겨 있었다. 조금씩 무더지기는 했지만, 그 냄새는 문득 문득 내 코를 자극했다. 그럴 때면 나는 코를 찡그리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했다. 골목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앉은 집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수도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대신, 마을에는 공동수도집이라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은 50원씩을 내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한 풍경이었다.

“신흥동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제가 살았을 때 뭐냐면, 난 성남에 처음 와서 본 게 뭐냐면 물을 길어 먹는 거. 공동수도에서 50원 내고 물 길어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건물에 수도꼭지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수도를 안 냈대. 저기서 길어다 먹으래

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독자 여러분 중에는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공동수도집의 여정 씨 이야기를 기억해 낸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여정 씨 이야기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수도꼭지에 물이 올랐다. 12시가 가까워지면 대문 밖 담장을 따라 양동인들이 줄을 섰다. 양동이는 골목을 돌고 돌아 150미터가 넘도록 이어질 때도 있었다. 공동수도집의 그런 풍경은 1975년을 전후해서 집집이 개별수도가 설치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 4.

성남 이사 후에도,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울로 학교를 다녔다. 영등포 방면을 오가는 36번 버스를 타고 족히 두 시간을 가야 내가 다니던 신림중학교와 관악고등학교가 있었다. 왜 집 가까운 곳으로 전학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나는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나는 동네 친구가 없어서 방과 후면 늘 혼자였고, 심심했다.

나는 성남이 심심했지만, 어머니에게 성남살이는 힘겨웠다. 그때까지도 나는 어려운 집안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며칠에 한 번씩 봉지쌀을 사들고 왔을 때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매번 공동수도집에서 물을 받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쌀독이 언제나 가득했고, 물은 수도꼭지에서 팔팔 쏟아졌는데, 왜 그렇게 바퀴였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흰밥이 갈색으로 변했을 때도, 그것이 값싼 정부미 혼합곡으로 지은 밥이라는 사실을 더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

“옛날에는 어느 집이나 이렇게 쌀들 사다놓으면 가마니로 갖다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주 같은데 놓기도 하고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먹는데. 성남에 들어오더니 봉지예다 쌀을 사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왜 이렇게 하지? 당시 중학교 1학년 그 땐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구 밥 색깔이 하얀색에서 갈색으로 바뀌더라구요. 밀 정부미

혼합곡으로. 이게 더 좋은 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요즘 아이들 같으면 금방 알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거를 자식들한테 보여주질 않았어요.”

나는 집안이 왜 어려워졌는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잘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어려워진 집안 사정을 내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 물정에 많이 어두웠고, 집안일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다. 어려움 없이 혼자 자란 아이들의 좋지 않은 표본이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했고, 그래서 심심할 때가 많았고, 또 가끔은 우울했다. 그 후로 나는 그런 성격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 5.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첫 모습은 취학 전 기억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내가 서너 살이던 무렵에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나에게 그 일은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 다. 충격으로 인한 각인 효과가 아니면 그렇게 선명할 수 없었다.

시간이 웬만큼 흘렀다. 그때 어머니는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나이가 들어 나는 몇 번인가 그때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흘려들었고, 자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활기차고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조차도 잘못되거나 조작된 기억일 수도 있었다.

성남 와서 얼마 후, 어머니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신흥동에 레스토랑을 하나 열게 되었다. 경양식집이었는데, 당시 성남에서는 그것이 두 번째로 문을 연 레스토랑이었다고 했다. 어머니의 레스토랑은 장사가 잘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는 혼자서 또 얼마나 고군분투했을 것인가? 여든을 바라보는 백발의, 할머니 같은 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어머니의 그 때 고생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님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어머니 그러면 다 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고 우는 놈은 없어요. 그런 거 같은데. 누구나 똑같은 거 같은데요.”

## 6.

1984년 무렵, 어머니는 신흥동을 떠나 수진동으로 집을 옮겼다. 수진동 제일 높은 곳,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수진동 집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낮에는 집집마다 옥상에 노란 물탱크들이 보였다. 물탱크는 언덕져서 지대가 높고 수압이 낮은 수진동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마를 맞대고 늘어선 옥상들은 무질서한 작은 공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 아래서 웅크리고 살았다.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빈 방은 금새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옥상으로 올라와 수진동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밤마다 담배 한 개비씩 물고 수진동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끔씩은 노란 물탱크들이 검푸른 밤하늘로 둥둥 떠올라 온 동네가 꿈속처럼 보이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꿈이 꺼지듯, 노란 물탱크들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옥탑방들이 들어섰다. 성남시에서 옥탑방 양성화 법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정도로, 옥탑방은 급속하게 늘어났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옥탑방 창문에 기대어 수진동을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여름엔 찜고 겨울엔 어는 옥탑방에서 사람들은 낮은 곳을 꿈꾸며 살았다.

## 7.

동네 입구에 있던 센추리목욕탕은 수진동의 랜드마크였다. 그것은 수진동 입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당겼다. 소설가 이상이 1930년대의 명동거리에 있

던 미끄끄시 백화점을 올라다보면서 느꼈던 아찔한 현기증까지는 아니라도, 나는 그곳에서 버스를 내릴 때마다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센추리목욕탕의 높은 간판을 한 번씩 올라다보았다.

“수진동 랜드마크 정도죠. 국제시장 앞 나오세요. 아니면 센추리목욕탕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랜드마크죠. 서울에서 이렇게 저기 태평로 앞에 내려오잖아요. 좌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꺾으면 제일 높은 빌딩이 2층 짜리 센추리목욕탕 하나예요.”

센추리목욕탕을 지나면, 곧바로 골목으로 들어섰다. 수진동 골목 안의 풍경은 다양했다. 이상한 찻집이 많았던 골목도 있었고, 점집 골목도 있었다. 점집 골목으로 들어서면 깃발들이 높다랗게 걸려 있었다. 수진동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업이라는 것이 변변하게 있을 리 만무했고, 그들은 대부분 막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했다. 그런 사람들은 골목을 오가다 점집에 들러 자신들의 고단한 삶과 자식들의 앞날을 점쳤다.

조금 더 내려간 곳에 제일시장이 있었고, 그곳 2층으로 올라가면 핀토스 롤라장이 있었다. 부모들이 하루 벌이를 나가고 나면, 침 좀 뺄고 껌 좀 씹는 친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그곳으로 모여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맞춰 롤라장을 질주해 갔다.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하는 열세 명의 오감도 아이들처럼.

## 8.

그 무렵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위태로운 롤라장의 아이들처럼, 1980년대는 위태롭고 어수선한 시대였다. 민주화운동으로 대학가가 몸살을 앓던 때였다.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가는 대신, 광장에 모여서 토론과 데모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학교 근처 막걸리집으로 모여들었다. 어떤 날은 광화문에 놀러 나갔다가 아무 것도 모르고 데모대에 휩쓸려서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다. 그런 때는 몇 시간씩 무

를 꿔고 앉았다가 풀려 나왔다.

“10시 11시에 모이잖아요. 광장에 모여서 막 토론하다가 막 스크럼 짜서 나가고, 그 당시 학생이었으면 데모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했어요 다. 그리고 또 자기가 더 유난히 많이 했다.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 당시는 직장인도 했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이 다 했다고 봐야 되요. 누구만 특출나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만나서 막걸리집에 앉아서 우리나라의 시국이 어떻고 토론도 하고.”

그래도 축제 때가 되면 대학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졌다. 나는 그런 행사에서 메인 MC가 등장하기 전, 바람잡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었다. 군대 가기 직전에는, 음악다방 DJ를 좀 하기도 했다. 그 때 상대원에 가면 원다방이라는 음악다방이 있었고, 시청 쪽에 가면 뿌리다방이 있었는데, 나는 뿌리다방에서 팀의 일원으로 보조 DJ를 했다.

“옛날 성남에 83년도 고 당시에 많은 음악다방이 있었어요. 상대원에 가면 원다방. 이쪽에 가면 거상다방. 저쪽에 가면 뿌리다방 광장다방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시청 앞 쪽에 뿌리다방이라고 있었어요.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메인 DJ가 있고 씨브 DJ들이 있어요. 팀으로 다니거든요. 저는 그 때 휴학계 내고 있을 때니까 팀의 일원으로 있었는데, 그 때 메인 DJ했던 사람이 지금중씨라는 분이예요.”

## 9.

어수선한 대학생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캠퍼스가 아닌 교회에서 삶의 다른 경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대학 입학 후, 내가 다니기 시작한 성도중앙교회는, 청소년 교회를 표방한, 교인의 대부분이 청소년들로 어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조직되었다.

나는 청년회원 몇 사람과 함께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의 활동을 이끌었다. 아이들에

게 악기를 가르치고,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몇몇 아이들을 따로 모아 보컬사운드를 조직해서 학교 축제 때 공연에 나서기도 했다. 나는 그때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의,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아니었다. 어떤 스폰서도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단은 한창 때 단원이 15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었다.

“일부는 자기가 돈으로 사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쪽 교회 쪽에서 준비해서 사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앰프나 이런 부분은 교회 쪽에서 다 준비해서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랑 같이 어떤 모금의 밤 같은 것도 하고, 그 돈은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단지 아이들이 같이 했다는 의미지. 그래 갓구 청년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들과 교인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은 성남시는 물론이고 전국을 돌면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처음에는 공연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나는 돌파구로 길거리 공연을 기획했다. 인도와 건물 사이에 공간이 좀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거리를 택했다. 그곳이라면 작은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두 가지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하나는 길거리 관람객들이 차도까지 막아설 정도로 모여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길거리 공연이 집시법 위반에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했다.

## 10.

집시법 위반 길거리 공연 이후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은 차츰 연주 활동을 넓혀갔다. 길거리 공연이 필요하면 집회 신고를 하는 요령도 생겼다. 한번은 수정구청 주차장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생겼다. 관에서 음악회가 열린다는 자체가 파격이던 때였다. 주차장 공연은 그야말로 열린음악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신선한 느낌으로 음악회를 준비했다.

공연 전날, 리허설을 해야 하는데 조명시설이 없었다. 조명은 공연 당일에만 예약

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방법을 찾아 보았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었다. 나는 리허설을 약식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때 조명이 켜졌다. 그 쪽을 돌아 보니, 그곳에는 경찰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었다. 리허설을 마무리하고 나는 경찰차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2년 전 길거리 공연을 단속했던 경찰관이 웃고 있었다.

“보통 다음날 하면, 밤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조명이나 이런 게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날 리허설을 하고 다음날 아침 조명 셋팅하고 그날 공연하기로 했으니까. 조명장비가 없잖아요 리허설 하는데. 그런데 한참 있는데 누가 불을 켜줘요. 보니까 그 수정구청 옆에 보면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서 경찰들이 헤드라이트 있죠 차.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 2년 전에 집시법으로 잡아갔던 그 경찰관들이예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은 종교집회에서는 가스펠송이나 찬송가 같은 선교음악을 연주했지만, 학교 축제에 가서는 일반음악도 연주했다. 종교집회는 설교나 기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으로 연결해 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성남시민회관 1400석 자리가 다 찰 때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종교집회를 열게 되었다. 그때 단원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위태로운 도시의 아이들은 그렇게 음악활동을 통해서 순해지고 맑아졌다.

## 11.

파지고 보면 일종의 대안학교 같은 곳이었다. 종합시장이나 동네 후미진 곳에서 밤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싸움질 하던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조직했을 때, 어느 누구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만큼 잘해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활동도 함께 전개했

다. 우리들은 생활환경이 열악했던 지역 내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교회에는 OMRI 협회를 만들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몇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 때 처음으로 지역축제 같은 게 생기는데. 제가 한 게 영월에 가면 단종제라고 있거든요. 그 행사 일주일 정도 중에서 4일을 저희가 했던 같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것도 있었고. 90년 중반에는 대관령 옛길 탐험하는 아이들 150명을 성남에서 모집해서, 산에서 텐트를 치고 하면서 그런 활동도 하고, 그 옛날 그 심사임당이 넘어갔던 대관령 옛길. 그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고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답습을 해서 한 번 가본 적도 있구요.”

교회 청소년들과 대관령 옛길을 답사하면서, 나는 내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참 신기한 일이었다. 그때는 혼자서만 지내던 내가 어떻게 그토록 활발하게 청소년 활동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중국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이 되고, 관장이 되게 되는 것인지, 삶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고 성인은 고작 20명 정도였던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갔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오케스트라단도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청년 몇 명이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만약 그때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진흥법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뭔가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 12.

1997년에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나는 청소년 수련관에 입사했다. 수련관은 후에 재단으로 다시 출발하지만, 그때는 정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다. 입사 후 곧

바로, 나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좋은 일 한답시고 어머니를 그동안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는 반성도 들었다. 그때 나는, 나이가 이미 삼십대 중반을 넘어서는 지점에 있었다.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무척 좋아했다. 사실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상이었다. 한 번도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던 어머니였는데, 내심 얼마나 기다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곧바로 이모와 상의해서 날짜를 받아왔다. 여자도 없는데 날짜부터 잡으면 어찌냐고 하자, 어머니는 걱정 말라고 했다.

“그날 저희 어머니도 크리스찬인데 우리 이모한테 얘길 해 가지고 날짜를 받아왔어요. 여자도 없는데 날짜를 받아왔는데. 누군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삼년 전에 벌써 얘기를 다 해 났더라구요 둘이. 너 어디 가지 마라 결혼해야 된다. 좀 뭐라고 그럴까 저희 집사람, 시댁 식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결혼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둘이 아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대안이 없지 지금. 그렇게 해서 결혼.”

아내는 나와 동갑이었다. 청년시절에 교회에서 만난 사이였고, 아내는 내 학원을 맡아 돈 관리 같은 것을 총괄해 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학원을 두세 개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한참 교회 활동에 열중할 때였기 때문에 학원은 실질적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아내를 점찍은 것은 이미 그때부터였다고 했다. 우리는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빌려 그해 서른일곱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피지로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배낭여행이었다.

### 13.

나는 아내를 친구처럼 동지처럼 여겼다.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딸아이가 둘이 친한 거 보니 이혼은 안 하겠네 할 정도였다. 처음에 아내는 놀이방을

운영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어떤 사람이 가스통을 들고 나타났다. 아직 어린 딸과 아들을 있는데, 엄마가 도망가 버렸다고 했다. 돈 벌이를 나가야 하는데 애들을 맡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했고, 또 아이들을 구박하면 가스통을 폭발시켜 버리겠다고도 했다. 협박인지 통사정인지,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아내와 나는 그 아이를 맡았다. 그리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우리 아이들과 섞어놓았다. 아내는 무서우니까 아이를 잘 봐야 한다고 농담을 했지만, 아이를 진심으로 아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이로 착각할 정도였다. 아이의 아빠는 비가 와서 일이 없는 날이면 통닭을 사두고 우리 집을 찾아오곤 했다.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을 간다는 소설이 생각났다. 아내는 통닭을 싫어했지만 아이의 아빠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그 일을 계기로 놀이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바꾸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었다. 부모가 둘이 벌어야 겨우 먹고 살 정도였다. 둘 중 하나라도 벌이를 못 나가면 금방이라도 먹고사는 것이 막막해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맡기고 열심히 돈벌이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용불량을 벗어날 정도로 사정이 좋아지기도 했고, 가족이 흩어져 살다가 합치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봐주니까 둘이 버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해서 생활이 편져가지고 다시 합친 집도 있어요. 신용불량 된 것도 풀고 한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게 해 가꼬 남편이랑 떨어져 살다가 남편한테 10년 만에 내려가는 가족이 생겼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남편이 도망다녔죠.”

## 14.

일명 쓰레기집이라 불리는 집에 아이들이 살았다. 지하에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이었다. 방안은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 아이들은

몸에서 냄새가 났다. 그래도 몸을 씻을만한 여유가 없었다. 여름이면 몸 냄새와 땀 냄새가 뒤범벅이 되었다.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데려다 씻겼다. 하지만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어 가면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다.

“지역아동센터에 형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씻어야 되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 꼬마 애들 때는 데려와서 그냥 지역아동센터에서 씻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커 가면 몸을 안 보여 준다고요. 우리집 사람이랑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애들을 데리고 줄줄이 목욕탕 가며는 애들이 창피해 하거든요. 애들이 되게 쪽팔려 해요. 굴비 꿰듯이 꿰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이제 클 만큼 커서 속살을 보여주지 싫어하는 예민한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씻길 것인지가 문제였다. 그러다가, 탄천 수영장을 생각해 냈다. 아이들은 한 주에 두 번씩 재미있게 수영을 다녀오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욕하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었다. 목욕은 반드시 목욕탕에서 하라는 법은 없었다. 살만한 집 아이들이나 다니는 것으로 알았던 수영장으로 목욕을 다니면서 아이들은 훨씬 밝아졌다.

그런데 얼마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시청 공무원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몇몇 아이들만 수영장에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시청으로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아이들은 수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다녀오는 것이라고. 한참 설전을 벌였고, 시청 공무원도 그것이 변칙이긴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 15.

지역아동센터에는 별별 일들이 많았다. 부부가 있었다. 창고업을 하던 남편이 망하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떠맡은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2년

뒤 재기에 성공한 남편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진동을 구석구석 이 잡듯 찾아다녔다고 했다. 결국 우리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를 만났고, 그는 고맙다며, 사랑하는 것을 뿌리치고, 보약을 선물로 보내왔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만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랐다. 한번은 아이를 버리고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와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폐가 녹았다고, 우리가 아이를 방임했다고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어처구니없게도 고소를 당했다. 재판 날 증인으로 참석한 의사가 아이의 병은 한 달 만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무슨 고역을 당했을지. 그날 판사는 아이를 이용해 한몫 잡아보려 했던 그 아빠를 법정구속 했다.

어떤 이는 고마움을 알고 어떤 이는 그것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하다고 도움 받는데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알기도 어렵고 자존감도 생기지 않는다.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자존감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다. 없는 집 아이들이라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이고, 자존감이 있으면 가난쯤은 무서울 것이 별로 없었다.

“푸드뱅크 있죠. 이제 샐러케익을 받아서 분배하는 걸 했었어요. 저희가 갖다가 주변에 나눠 줬습니다. 왜냐면 저희 수진동 옆에 독거노인들이 좀 계세요. 배고프잖아요. 애들한테 뭐냐면, 저희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좀 주로 이렇게 사회적 배려를 받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개네들 손에 들려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 주는 거. 왜냐면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시키고.”

## 16.

나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내가 그 직종에서 일을 한 것은 석 달 뿐

이었다. 수학과 물리를 잘 하고 좋아해서 이공계 전공을 택했지만 나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았다. 플랜트 건설 회사에도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곳 일도 그런대로 할만 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도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구. 너는 화학과를 잘못 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아일랜드 교육처럼 일 년간 특별학기 제도가 있었으면, 내가 그 때 직업 체험을 했으면, 이거 안 합니다. 그래 저는 우리나라 문교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듣더니, 그래 니 말이 맞다.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유사한 과가 있었으면 저는 대학을 진로를 바꿨을 거 같아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제일 좋아하고, 계속 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 복지 활동이었다. 그것만큼 내게 잘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내 DNA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평생 할 일을 찾아주었던 것 같다. 교회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의 공연 기획을 하던 것도, 아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던 것도, 청소년수련관에 입사한 것도 모두 같은 줄기에 있는 일들이었다. 지금도 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뭔가를 도모하는 일이 즐겁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문화광장이 펼쳐졌다. 주차장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공간마저 청소년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또 나는 장애인 청소년들에게도 수련관을 개방했다. 회원 수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청소년들이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안전시설도 규정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 청소년들도 수련관에 와서 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7.

수진동은 골목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골목들은 비슷비슷하면서도 사람살이

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다. 아이들의 유전자는 그렇게 조금씩 다른 것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차이의 지리학. 그것이 고향의식을 만든다. 아파트 일색으로 바뀌 버리는 개발은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에게서 고향을 빼앗는 것이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문화 이걸 좀 남겨놓고 싶고, 꼭 좋은 것만 남기는 게 아니예요. 다 쓰러져가는 옛날 재래식 집이래두 역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성남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대통령특별법에 의한 20평짜리 한 필지 집이예요. 근데 그거 다 개발하면 그런 게 있었나, 이럴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쪽만 동네 하나 만들어 놓재니까요. 역사의 한 유산이잖아요. 그런 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개발을 하더라도 골목이야기와 골목문화를 남겨놓아야 한다.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 그들을 위해 성남의 역사를, 문화를,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어야 한다. 성남의 약진로가 얼마 전까지도 산길이었고, 그 오솔길을 한참 걸으면 복정동이 나오는데, 20년 전만 해도 복정동 일대가 모두 논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논 한가운데 복정파출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흔적으로라도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진동을 재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 인문학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살이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반드시 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만을 받아들였던, 너무도 단순했던 내 젊은 시절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남 아이들이 성남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 나는 그것을 꿈꾼다.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일꾼 아  
들들이 찾아 나섰다. 그후 그들 부자는 행방불명이 되어 아무  
런 소식을 알려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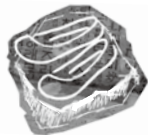
# 양벌리 따

부잣집

# 근

수진동 ●●●  
순금씨 이야기





## 양벌리 부잣집 딸

●●● 수진동 순금씨 이야기

### 1.

할머니는 해방된 이듬해 학교로 돌아갔다. 왜정 때 잠깐 다니던 학교였는데, 해방 통에는 그나마 다닐 수 없었다. 한 일 년을 묵었나, 할머니는 다시 간 학교에서 한글을 조금 배웠다. 그렇게 전부 통틀어서 학교라곤 딱 3년을 다녔다. 그게 할머니가 받은 학교 교육의 전부였다.

그래도 할머니는 지금껏 그때 배운 한글을 요긴하게 잘 써먹었다. 젊었을 때 부녀회장도, 나이 든 후 노인회장도,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평생 고마운 한글이었다. 이쯤 되면 할머니의 한글 실력이 궁금해지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잠깐 할머니의 메모지를 들여다보자.

“태어난(태어난) 곳은 서울 신당동. 학교는 광희초등학교. 학교는 삼학년 때 광주 오폐 양벌리. 해방 데고(되고) 나서 한글을. 학교에 다시 삼학년을 다니고. 그리고 얼마 안 데(돼) 가지고 육이오가 났고. 나이 20세에 시집가고. 그 당시 군인이고 논산훈련원 조교였고. 몇 개월 안 데(돼) 54. 4. 1일 제데(제대)가 되어. 잘 곳 있는 데 어디로 갈 곳이 없어 친정사리(친정살이)를 하고. 그리고 아이는 아들 오형제를 낳고

어연간.”

할머니는 스스로의 이력에 그렇게 적었다. 맞춤법이 조금씩 어긋나도 뜻은 통하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술하게 고생한 것을 곡진하게 모두 적어낼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다.

## 2.

할머니는 마흔 둘에 혼자가 되었다. 남씨 성을 가진 할아버지는 성남 신흥동으로 이사를 들어온 몇 년 뒤에 홀연히 떠나갔다. 할머니는 혼자 장사를 하면서 연명하고 아이들도 키웠다. 그 세월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술한 고생들을 무슨 수로 다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할머니는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옛날 신흥동 살 적에 할머니는 동네 새마을지도자로 발탁되었다. 1977년 수진1동으로 이사하고 난 후에도 부녀회장이며 바르게살기운동이며, 온갖 곳에 몸을 담고 활동했다. 그런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로당에도 일찍 출입하게 되었다.

“경로당에다 발 들여놓은 거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이런 데도 들랑날랑 하게 돼. 그래서 60대도 안 되서 경로당에 왔다갔다 했어. 봉사하러 댕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60대부터 그냥 어떻게 해서 경로당에 들어와서 댕기면서 61세부터 부회장이라고, 저 꼭대기 1경로당에서 해다가. 거기서 한 10년 있다가. 어떻게 한 5년 전에 또 어떻게 여기 와서 다시 내가 지금 경로당 회장이 되가지고 이력 허고 있는 거지 뭐.”

## 3.

할머니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과 열 명의 손주들이 있다. 거기에 머느리 다섯까지.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마흔둘에 혼자가 되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노심초사 하면서 키운 오형제였다. 큰 아들은 제대하고 스물일곱 먹어서 장가를 들었다. 큰 아들은 딸만 둘을 낳았는데, 그 중 하나가 삼성에 다닌다. 그 손녀딸은 얼마 전에 본사로다가 발령이 났다. 대견하고 기특한 일이었다.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인저 장가들고, 나이가 먹으면 장가들여야잖아 부모니까. 그니까 스물일곱 먹어서 아들 장가 들어서 살림 낼려니까 죽어도 살림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살다가, 손녀딸 둘 낳아가지고, 아들 손주는 없어 큰 아들한테, 딸 손주만 둘이라도 그래도 재밌게들 잘 살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저기,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그래도 장가들어서 집들은 오막살이 집이라도 난 다 집 사줬어.”

둘째 아들도 그냥 괜찮게 산다. 셋째는 우체국 다니면서 집배원으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넷째 아들은 할머니가 어려서 살던 광주 오폐 쪽에서 비닐합지 공장을 한다. 종업원도 몇 명 두었다. 다섯째 막내아들은 오형제 중에서 학교를 제일 많이 다녔다. 속된 말로 가방끈이 가장 길다. 지금은 베트남 현지에서 임시 시장으로 일하고 있다. 할머니는 아들 모두가 궁색하지 않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했다. 손주들도 아직까지는 큰 말썽부리지 않고 지낸다. 그리고 보니까 손주들은 아들 다섯보다 더 순탄하게 커 가는 것 같다.

“손주 손녀가 열인데, 다섯 다섯이여. 그래도 아직까지 말썽부리는 놈 없고. 지금 중학교 인저 1학년짜리가 제일 인저 막내아들한테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있고 셋째 아들한테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고거가 제일 적은 거여.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있고, 다들 학교 가방 잘 들고 땀 났지. 이런 골목에 애들 몰려서 못된 짓 하고 땀기지 않고 그러지 않고 땀기는 것만 내가 행복인 줄 알고 살아야지. 다른 거 행복인 줄 알면 안 되지. 사람은 올려다보고 살면 못써 내려다보고.”

#### 4.

그녀는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났다. 서울에 살면서도 광주 오폐 양벌리에 땅을 가진, 꽤 부유한 집이었다. 한 마디로 그녀는 부재지주의 딸이었다. <섬말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 한 평생을 농사꾼으로 보낸 종삼씨 이야기를 읽어보면, 광주 돌마면 섬말도 많은 농지가 이미 왜정 때부터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들의 소유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쨌든 소작을 부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고 안 된 일이었지만, 그 덕에 땅 주인들은 흰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녀의 경우도 매일 밥상에 쌀밥이 끊이지 않고 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전거로 신당동과 오폐를 자주 오갔다. 오폐면 양벌리까지는 백리길이라고 들었다. 추수 때가 되면 아버지는 특별하게 따로 만든 누비바지를 입고 오폐로 갔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누비바지 속에 쌀을 가득 담아 돌아오곤 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바지 속에서는 서너 말은 족히 되는 쌀이 쏟아져 나왔다.

“옛날엔 백리 길인데 자전거 타고선 쌀을 가져오시는 걸 보머는, 바지를 누벼 그래서 거기다 다 쌀을 넣어,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어린 맘에도 쏟아 놓는 걸 보면 한 서너 말씩 쏟아 놓더라구. (왜 바지를 누벼가지고 거기다 쌀을) 그 왜정 땐 그 붙잡히니까, (붙잡히니까 몰래 가져오신) 그럼 몰래 가져오느라고, 내 걸 농사지도 몰래 갖다 먹더라구. 그런데 어려서 봐두 바지 이렇게 누빈 데서 쌀을 쏟아놓고, 이제 전대지. 이를테면 몸에다 감고 자전거로다 끌어오고.”

아버지는 늦게서야 아들 하나를 낳았다. 방공연습이 있는 날이면 집집마다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미리 파놓은 마루 밑 방공 구멍으로 숨어야 했다. 왜정이 막바지로 내달릴수록 방공연습은 횟수와 강도를 더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공연습이 시작되기만 하면 늦둥이 아들은 자꾸만 울고 보채고 칭얼댔다. 견디다 못해 아버지는 신당동 살림을 정리한 후, 솔가하여 오폐 양벌리로 낙향해 버렸다.

오포 양벌리에는 당숙 되는 집안 어른 한 분이 사셨다. 당숙은 마을 구장, 요즘으로 치면 이장이었다. 마을에서는 언제나 지체 높은 양반으로 행세했는데, 6.25 때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 동네 사람 하나가 분위기에 휩쓸려 당숙을 ‘동무’라고 불렀다가 크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그런 당숙이 아버지를 오포로 불러내렸다. 오포는 방공연습이 없으니, 칭얼대는 아이 데리고 서울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버지는 당숙의 권유를 그대로 따랐다.

## 5.

광주군 오포로 이사를 한 것은 그녀의 나이 열두 살 무렵이었다. 그 후로 열일곱에 6.25가 터지고 스물에 시집갈 때까지, 그녀는 오포에서 사춘기를 다 보냈다.

나이가 열대여섯 살 되면 시골 사람들은 누구나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도 일손을 보태야 했다. 오포 양벌리라는 데는 논이 적고 밭이 많은 곳이었다. 저수지나 보가 없는 곳이다 보니, 논이라고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모를 낼 수 있는 천수답이 얼마간 있을 뿐이었다. 농사일에는 언제나 일손이 달렸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또 수확하는 철이면 그녀도 일손이 바빠졌다.

또한, 그녀는 철따라 보리밭을 매고 보리를 뺐다. 마을 사람들은 보리를 베어 낸 땅에는 그루같이로 조를 심었다. 그것을 그루조라고 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그루조 밭을 매는 일에 익숙했다. 그녀도 역시 그루조 밭 매는 일은 도사였다.

“밭에 서숙. 서숙을 그루조밭 그루조라 그래. 그러면 그루조밭 매가지고. 뭐 그런 데는 일등이지 뭐. 보리밭 매고 보리 비고 뭐 그런 거 하고. 한참 바쁠 때는 또 그런 데는 보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모를 내니까, 한참 바쁠 때는 논에 가서 모도 찌 줄줄 알고. 그런 거 다 했었어.”

## 6.

6.25 전쟁이 나던 해에도 집안은 여전히 살만했다. 집안 일을 맡아하는 일꾼 부자까지 둘 정도였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서울로 일을 보러 갔는데, 사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왔다.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일꾼 아들이 찾아 나섰다. 그후 그들 부자는 행방불명이 되어 아무런 소식을 알려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쟁이 나자, 학교 선생님이 소개해 준다면 은행 일자리도 물 건너 가 버렸다.

“그 때는 비행기가 파양 하고 나타나고 삽자루를 이러구 미구 가면 총인 줄 알고 기관총으로 쏘구 댕겼어. 저 비행기가. 그 때는 삽에 물꼬 보러 가면 이렇게 미구 가지. 그럼 총 민 건 줄 알고, 비행기에서 보고 총질하고 그랬어. 그래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 당시에는 기관총 같길 때는 인민군 있을 때니까. 인민군들 있을 때니까 인민군들이 총 미고 대니는 줄 알고 총질을 했지.”

서울이 수복되기 직전 한 달 동안 동네 사람들은 저녁마다 회의에 불려다녔다. 마을에서 제일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인민군은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전장에서 영용한 인민군들이 승승장구 하고 있다거나, 머지 않아 조국 통일 전쟁이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거나, 혹은 온 마을 사람들이 일심으로 전쟁물자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들이었다. 그 무렵 그녀는 동네의 인민군 반장 역할을 해야만 했다. 부역이 있는 날이면 반장은 동네 주민들의 부역 참여를 독려했다. 밤회의가 있는 날에도 반장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이 회의에 나오도록 독려를 하는 일을 맡았다. 동네의 곡물 수확량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도 맡아야 했다.

“그 당시에 날 보고 반장을 보래서 반장을 보는데. 베 이삭 알갱이 시라고 나오고, 콩꼬투리 시라고 나오고. 그런 거 한 거야. 그거 그 때는 그런 것 밖에 현 게 없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느냐. 서숙 알갱이는 천 알도 넘을 거야 실래면. 이것을 어떻게 시느냐. 고 하나 달린 걸 딱 따서 부쉬. 그제 내가 볼 때는 한 50개 이상 나와 알갱이가.

그럼 고거 시어. 고거 시고 고 알갱이를 시어. 곱해. 그 당시에도 내가 좀 머리가 있어서. 잘된 가닥 말고 중간 가닥을 하날 뽑아 알갱이 시어. 또 감자 한 바가지 캐. 거서 키로 달아. 그래서 그걸 또 그런 몇 포가지 몇 포가지 해서 키로 달아서 얼마씩.”

## 7.

스무 살 먹던 해에 선이 들어왔다. 신랑이 선보러 오던 날 그녀는 집안 한쪽 구석에 앉아있었다. 신랑이 그녀를 훑쳐보고 갔는지, 다음날로 사주와 택일이 왔다. 신랑은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능골 조금 못 가서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랑네 집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집안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화목한 집안도 아니었다. 괜찮게 사는 그녀네 집에서는 혼담을 물리려고 했다.

당숙은 해방 후에 면장까지 지냈다. 오포 쪽에서는 황서방네 하면 알아주던 양반 집안이었다. 당숙은 6.25때 돌아가셨지만, 양반으로서 자존심은 대단한 양반이었다. 그런 당숙이 혼담을 물릴 수 없다고 했다. 양반네 집에서는 택일까지 받는 혼사는 되돌리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으로 시집을 가야 했다.

“안 헐라고 허는데. 당숙이 하여튼 해방 되고 나서 면장까지 지내 잡셨어. 그래서 오포 양벌리 오포 쪽에서는 그래도 험다하는 양반치고 황서방네 아주 알아주던 집안이야. 그런데 어디서 양반네 집이서 첫혼인 날 택일을 퇴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래 죽으나 사나 가야 한디야. 그래 글루 시집가서 살은 거야.”

음력 10월 27일, 그녀는 오포 출신의 논산훈련소 조교였던 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남서방네로 출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걸어서 출발하여 말죽거리까지 가서 하룻밤을 잤다. 다음날 영등포 가서 또 하룻밤을 자고 논산행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천안인지 대전인지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내려 하룻밤을 잤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신혼여행인 셈이었다.

“10월 27일 날 시집을 갔는데. 산 날 걸어 저기 그 이튿날부터 걸어서 걸어서 저기 하고 말죽거리 가 자구, 영등포 가서 또 하룻밤 자구. 그리고서는 저기 기차 타구 논산을 가는데 지금으로도 생각하면 천안인지 대전인지 몰러. 어디 가서 또 하루 저녁 자고 논산을 가더라. 이렇게 내가 신혼여행을 한 사람이야.”

## 8.

남편은 해방 직후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할 무렵에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제대를 하지 못한 군인이었다. 군대 생활만 8년을 했고, 그래서 군인정신이 머리 속에 꽉 박힌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융통성이 없었다.

논산훈련소 부대 밖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만 해도 이사를 여러 차례 했다. 남편이 하는 조교일이 매번 장소가 바뀌었던 것이다. 이불 하나와 요 하나에 솔단지 하나가 전부인 살림이었다. 이삿짐을 쌀 필요도 없었다. 남편은 부대에서 식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밥을 끓여먹어야 했다. 스무살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다.

오륙 개월 지나서 남편은 제대를 했다. 막상 제대를 했을 때 남편은 호구지척이 전혀 없었다. 시어머니도 안 계셨고, 시누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오포로 돌아와 친정살이를 시작했다. 친정아버지는 다섯 칸 반 짜리 ㄱ자 형태의 집을 마련해 주었다. 우물도 파고 살았으니 넉넉한 편이었다. 게다가 농사지를 땅까지 사 주었다.

오포에서 사는 7년 동안, 남편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었다. 운전을 좀 하래도 안했다. 좀 뒤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한글을 몰랐다. 누구나 다 배우지 못하던 시절이니 까 그러려니 했다. 한글은 못 깨우쳐도 8년간 군생활 덕에 말만은 청산유수였다. 무슨 권유에도 번지르르한 입말만 되돌아왔다. 그렇게 놀면서 남편은 화투 놀음에 빠졌다.

“친정에서 집 사주고 땅 사주고 해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았어.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데 그 양반이 이거를 좋아해 그러는 바람에 (뭐요? 화투) 응. 왜 화투를 좋아하는지 군대서 그런 거만 배웠는지. 그래 가지구 뭐 친정서 해준 땅이구 뭐구 집이고 다 팔아 먹구서 서울로 올라왔지 뭐.”

## 9.

7년이 지나 오포를 떠나야 할 때 왔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득한 옛날 같다. 남편은 3일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3일 만에 들어온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고, 그것이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이 있고 나서 남편은 복덕방에 집을 내놓았다. 더 이상 처갓집 근처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 친정에서 사 준 집인데도 남편은 그것을 혼자 마음대로 결정했다. 내놓은 집은 이튿날로 팔렸다.

“집을 내 놓으니까 그 이튿날 아침으로 집이 팔려. (집을 누가 내 놓으셨어요?) 누가 내놔. 친정서 사줬어도 자기가 남편이가 내놔지. 가격 같은 게 생각하머는 지금이라면 한 천삼백 원인가 되나 천삼백 원 밖에 안 되는 거 같어. 근데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다섯 칸 반 7자집인데도 괜찮아. 우물 파고 괜찮은 집인데. 집이 팔리니까 어떡해. 그래 또 서울을 갔다오더라구. 갔다 오더니 서울로 이사 간다고 그래.”

이사하던 날, 남편은 8톤 차를 불러왔다.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그녀는 서울살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농사지는 짝이며 곡식들 15가마하고, 이런저런 세간을 가득 실은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정릉 근처 산속 마을이었다. 포장막 같은 허술한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밤이 들어 작은 마을은 어둠에 잠겨버리고 희미한 등잔불 몇 개만 남았을 때, 그녀는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전에 살던 오포만 해도, 중앙 정계의 최인규라는 사람 덕분에 자유당 시절부터, 이미 전깃불이 환했기 때문에 산골 작은 마을의 어둠이 더욱 깊게 느껴졌다.

정릉에 살면서도 남편은 화투를 끊지 못했다. 어느 날은 일년 먹을 양식으로 싣고 왔던 쌀 한 가마를 실어냈다. 그러면서 누가 꾸어달란다고 핑계를 댔다. 그렇게 쌀가마니는 하나 둘 씩 줄어들었다. 결국은 손가락 빨고 들어앉게 될 지경이 되었다.

## 10.

사정을 알게 된 친정에서는 마장동에 집 하나를 다시 마련해 주었다. 3칸짜리 자그마한 집이었다. 큰 장마가 지던 어느 해, 대성연탄 공장 앞으로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갔던 마장동. 그녀는 새로 마련한 마장동 집에서 하숙을 치기로 했다. 첫 하숙생은 남동생이었다. 때마침 남동생은 경희대에 입학하여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가까운 곳에 거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얼마 후 남동생은 친구를 하숙생으로 데려 왔다.

남편은 마장동 집에서도 마음을 잡지 못했다. 집 밖으로 돌면서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만난 여자하고 생각이 맞았다. 답십리 뚝방에서 장사를 하기로 짜고 그녀를 설득했다. 여인숙을 열자는 설득에 아무것도 모르고 답십리로 따라갔다. 갔더니 그 여자가 남편하고 같이 있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술장사 겸 여인숙을 했다. 그녀는 설거지 같은 허드렛일을 거들며 같이 지냈다. 몇 달 후 그 여자가 떠나 버렸을 때는 술도 팔고 여인숙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답십리 뚝방에 가가지고 장사 했어 또. (무슨 장사요?) 술 저 술 팔고 그러는 거. 또 여인숙을 하더라고. 여인숙 얻어서 가가지고. 그 때는 난 철도 없이 가서 허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누가 허재? 아~ 남편 분이 하시자고?) 아 인자 그렇게 술을 먹어하니까 이거가 있었나 봐. 이걸 데리구서 그리 가서 했어. 같이 인저 짜고서는 그걸 얻었는지 어졌는지 나는 멋도 몰르고 갔는데. 뭐 저기하더니 나중에 그 여자가 가버리더라구. 그러니까 거기서 인저 몇 달 하다보면 나도 배워서 같이. 장사는 내가 설거지하고. 그런 건 팔었지 뭐.”

## 11.

답십리 4동 545판자촌 일대에서는 불이 자주 났다. 한 번 불이 나면 판잣집 수십 동이 전소되고 이재민도 수백 명씩 생겨났다. 판잣집 50동이 전소되고 150가구 70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던 화재나, 88동이 전소하고 220가구 80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화재가 일어난 것도 1970년대 전반 그 무렵이었다.

그때 남편 친구 중에 답십리 툇방에 살던 이가 하나 있었다. 어느 날 불이 나면서 그 친구는 성남으로 이주했다.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읽은 독자 여러분 중에는 답십리 개천가에 살다가 꽃잎처럼 내리는 bom비를 맞으며 트럭 뒷칸에 실려 성남으로 이주해야 했던 구보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1970년을 전후한 성남 개발 초기에, 답십리 툇방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저런 형식으로 성남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즈음 그녀의 식구도 답십리에서 성남으로 옮겨 앉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친구를 통해 남편은 성남 개발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집장사를 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남으로 이주를 결행했다. 마장동 집을 팔아 성남에 하꼬방 집을 하나 샀다. 그런데 집장사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바깥양반 그 친구 하나가 답십리 툇방에 불나는 바람에 그 때가 71년돌 거야. 71년돈데 불나는 바람에 일루다 왔어. 그때 보상받아 가지고서는. 그래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 가면 괜찮다. 집장사한다고. 마장동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집장사한다고 땅을 사봤는데 그 놈의 게 팔리냐. 72년도에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안 돼 가지고 집장사도 못하고 그러구 있었지 뭐.”

## 12.

그녀는 성남에 들어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순대장사를 시작했다. 서울 마장동 옆집

살던 아줌마가 순대장사를 했었다. 마장동서 성남까지는 버스로 한 시간을 오가는 거리였다. 마장동을 오가면서 순대장사를 배울 수 있었다.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남편이었다. 남편은 여자가 돈벌이 하는 것을 싫어했다. 더군다나 자신은 돈벌이 없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내가 순대 장사를 했어. 순대장사를 해서 그럭저럭 괜찮게 했는데. 그 인저 여편네가 여자가 벌어들이는 걸로 먹고사는 거가 아니꼬운지 아~ 술만 먹고 저 뭐라 허더라구. 그러길래 요기 중앙시장에 그 다이를 하나 해 얻어줬어. 장사하라고. 세를 얻은 거지. 그리고 세 얻어서 허라고 주구 나는 순대장사를 하는데. 이거 안 팔리며는 그냥.”

남편은 본전도 못 건지는, 밀지는 장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채소 장사는 얼마 못 갔다. 그녀가 얼핏 보기에 얼마 못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일을 더 크게 벌였다. 누나에게 20만 원을 빌려 중앙시장에 용강상회라고 채소가게를 크게 낸 것이었다. 가게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용강상회에 가 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고 난 돈을 맞춰 보았다. 그런데 아홉싸 10만 원이 벌써 온데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단 3일 만에 밀천의 절반이 까이고 없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남편에게서 쌍소리가 돌아왔다. 자기 못하는 줄 알면서도 진작 나와 보지 않았다고 도리어 화를 냈다.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 시작한 만화가게를 접고 용강상회에 매달렸다. 우선 손실이 난 10만 원을 복구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녀는 가까운 광주와 용인으로 돌아다니면서 야채를 발뽀기로 사들여 차로 싣고 와 팔았다. 그렇게 몇 번 만에 손실금은 금방 복구되었다.

### 13.

남편은 그녀의 장사 수완을 옆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김장철이 다가오자 다시 직접 나섰다. 자기가 김장 채소밭을 사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일을

그르쳤다. 병든 달랑무 밭을 사들인 것이었다. 게다가 사들인 밭에서 무가 몇 단이나 나오는지 썸도 해보지 않았다. 망하는 지름길이었다. 남편의 계산속 없는 장사는 1년 만에 80만 원의 빚만 남겼다.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또 집을 팔려고 했다. 복덕방에서는 집값으로 85만 원을 봤다. 80만 원 빚잔치 하고 나면 머리 들고 들어갈 방 하나 얻을 돈이 남지 않게 생겼다. 친정아버지가 사 준 오포의 집을 내놓았을 때도, 정릉으로 이사했을 때 쌀가마를 하나씩 내다 팔 때도, 답십리 뚝방에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큰 반대 없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

남편은 언제나 일은 했고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었다. 워낙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 남편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녀도 이제 세상 물정을 알 만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들 오형제를 건사해야 하는 엄마였다. 그녀는 집을 팔겠다는 남편의 계획을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저 세상으로 가 버렸다. 평생 남 눈치 보는 일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남편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분을 못 이겨서 세상을 버린 것 같았다. 그녀를 꺾지 못하고 자기를 못 견뎌서, 이 세상 거 다 놓고 자기 세상을 찾아 떠나버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 14.

남편이 진 빚은 오롯이 그녀 몫이 되었다. 그녀는 채소밭에 가서 직접 채소를 사들이고, 그것으로 김장을 담가 팔기 시작했다. 보통 한 집에서 배추 한 점 이상, 두 점까지 김장을 하던 시절이었다. 2년 만에 80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 그러고도 집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 후로 1년이 다시 지났다. 어느 날 복덕방 사람이 집을 팔라고 했다. 150만 원의 시세를 쳐주겠다고 했다. 85만 원 하던 집값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그녀는 집을 팔았다. 그리고 신흥동을 떠나 수진동으로 이사하면서 330만 원을 들여 다른 집을 샀다. 안양 살던 동생에게서 60만 원을 빌려 보냈다. 곧잘 살긴 했지만 당장 가진 돈이 없던 동생은 농협에 집을 잡히고 돈을 빌려주었다.

터도 넓고 큰 집이었다. 빨간 벽돌로 지은, 방이 6개나 되는 2층이었고, 가게도 둘이나 딸린 집이었다. 그녀는 방이 많아 더 많은 세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흠족했다. 시유지를 조금 침범해서 준공이 안 떨어졌어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 허라 하는 배짱이 있었다.

“77년도에 150만 원 준다고 그래. 그래 150만 원 받고 팔고 지금 이쪽에 신흥동에 수진동으로 이사와 가지고 330짜리 집을 또 샀어 내가. 큰 거를. 빚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쪽엔 방이 두 개짜리니까 하나 밖에 못 놔두 여긴 방이 여섯 개 짜리야. 그리고 시유지를 침범했어도 터가 넓고 집이 커. 그거 빨간 벽돌 2층으로 지은 거니까 괜찮더라구. 가게가 둘 있고.”

그녀가 집에 딸린 가게에다가 만화방을 차린 것은 밖으로 나도는 아이들 때문이었다. 엄마의 손길이 부족해선지 아이들은 공부는 안하고, 어떤 놈은 주먹도 썼다. 셋째와 넷째는 만화방 출입이 잦았다. 1960~70년대 만화방은 동네 아이들의 제일의 놀이터였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유일한 문화공간이며 꿈의 장소였다. 그곳에서 <라이프이>와 <뽕이>로 하루해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래서 만화를 들여놓고 텔레비도 하나 갖추어 만화방을 열었다.

“지금은 그거 백 원 천 원일 테지만 그 땐 10원일 때지. 10원이면 몇 권 보는 거. 그 당시에는 우리 넷째하고 셋째가 남의 만화가게를 그렇게 가더라구. 그러니까 인저 우리집이 상가가 돼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화가게 차렸었어. (만화가게를 차렸더니 그 셋째 넷째 분?) 저희가 그걸 되레 맡아가면서 관리를 더 하게 되지.

하고 저희가 TV 옛날엔 텔레비가 어딴어?! 텔레비 사놔으니 텔레비전 보구 해서.”

## 15.

남편이 홀연히 떠난 후, 그녀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혼자 분투했다. 그녀에게도 좋은 운이 찾아왔다. 수진동에 집을 산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기 시작했다. 집값이 오르니 방값도 오르고, 방값이 오르니 방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집 사려고 빌린 돈도 금방 갚아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잘 키워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다. 또 아주 최근에는 죽은 남편을 6.25 참전자의 자격으로 이천호국원으로 모시기도 했다. 텔레비를 보다가 남편이 보훈 대상자라는 것을 우연히 알고 나서 직접 서둘러 해낸 일이었다. 그녀는 남서 방네로 시집 와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았다.

한번은 집안에서 족보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낸 적이 있었다. 잊고 지내다가 3년쯤 지났나, 족보를 찾아봤더니 아이들 이름이 하나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촌 시아 주버니가 그 옛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해서 믿거니 했는데 싹 빠뜨린 것이었다. 부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생활이 바빠 그것도 한동안 잊고 지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생활이 바쁠수록 아이들 뿌리를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 자신이 퍽하고 죽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은 영락없이 뿌리 없는 떨거지들이 될 판이었다. 그때 때마침 남씨 종친회에서 엽서가 하나 왔다. 사그막골 버드나무 밑에서 모임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엽서를 가지고 모임 장소로 갔다. 마흔두 살 한창 젊은 아낙이 종친회에 참석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다행히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해 주었다. 특히 종친회 회장이 그녀를 챙겨주었다. 회장을 잘 알게 되면서 그녀는 아이들 이름을 족보에

올릴 수 있었다. 그녀가 혼자 서둘러 식구들 뿌리를 확실히 해두자 남서방네 사람들도 그녀를 달리 보기 시작했고, 우습게보지 않았다.

“그래서 한 날 거길 찾아갔어. 찾아 갔더니 족보를 내놓는데, 옛날엔 이렇게 손으로 쓴 거니까. 근데 아는 거라구는 의령 남씨고, 큰 시아버지 함자는 다사오자 정오씨라는 거 알고, 우리 사촌 시아주버니는 구름운자 적어서 운이래는 거. 거기 장조카가 상화가 있어. 그 이제 삼대는 아니까. 그걸 아마 한 30분 앉아 찾다보니까 나오더라구. 그래 인저 우리 큰 시아주버니가 나오고 사촌 시아주버니가 나오구 장조카가 나오고 그래. 그래서 고기다 이제 뿌리를 찾아서 우리 시아버지 함자 넣고 우리 영감하고 애들 다섯 넣어가지고 족보를 다 인저 뿌리를 찾아놔어.”

## 16.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는 처음에는 자연농원이라고 불렸다. 그곳 동물원 호랑이우리가 있는 곳은 원래 남서방네 집안 땅이었다. 처음 자연농원이 만들어질 때 집안사람들이 그 땅 6천 평, 2정보가 넘는 땅을 처리하는 문제로 모였다. 그 중에는 그녀의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밭도 500평이 속해 있었다. 그런데 네 집에서 모인 사촌들은 모두 자기 몫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 시아버지 함자루다가 있는 밭이 5백 평짜리가 있더라구. 근데 가만히 앉아 듣자니깐 이거를 뭐 아무개 앞으로다가 하라니까 즈 아버지 으찌구 저꺼구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시아버지 함자가 나오길래, 우리 아버님 함잔데 그랬어. 그러니깐 영감님이 유복자라구. 그러니깐 제수씨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구 샷대질을 해. 그러구 하길래 내가 그랬어. 아니 혼인신고 하는데 부모님 함자 안 들어가느냐구. 그래도 내가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었네.”

결국 호적까지 떼어보고 나서야 500평 밭의 소유가 확인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앞으로 꽤 많은 땅 보상금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와는 별도로 6천 평의 나머지 땅도 보상금이 나왔다. 거기 1평으로 다른 데 5평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집안사람들은 종종 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각자 갈라갔다. 그곳에 있던 조상 묘를 이장해야 했지만 화장으로 모시고는 끝내 버렸다. 그녀 집에도 얼마가 배당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재산에 손대지 않고 장조카에게 관리를 맡겨버렸다.

그녀는 500평 보상금에 친정에서 보태준 돈을 조금 붙여 또 하나의 건물을 사들였다. 아이들을 위해 만화방을 했던 곳이 그 건물이었고, 남편이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만 홀연히 떠나버린 것도 그 건물 때문이었다.

## 17.

그녀는 70년대 후반부터는 새마을 부녀회 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꼭대기 노인정으로 연탄을 날랐다. 하꼬방 같은 노인정 한쪽 구석에 연탄을 쌓아주면서 할머니들과 친해졌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경로당 회원이 되었고, 결국은 경로당에서 환갑까지 해 먹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새마을지도자인 그녀는 항상 거기 있었다. 수해가 날 때도 그랬다.

“옛날에는 여기가 개천이야. 개천이었지. 그러면 국제시장에는 장마가 지며는 고 이 쪽으로다 요 밑에는 다 물이 다 차던 데야. 그럼 그러면 막말루다가 부녀회 그런 거 보며는 뭐 아무것도 안해도 빗자루도 들고 삽이래도 들고서 나가서 한바퀴 도는 거지 뭐. 봉사 무슨. 저기 80년대. 내가 78년도부터는 아주 발을 벗고 들어온 사람이야.”

어떤 이들은 그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순전히 그것은 내 신발 닳아가면서 하는 일이었다. 부주할 일이 생겨도 내 돈이 들었다. 어떤 이들은 시집에서 시어머니랑 함께 있기 싫어서 이런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월급을 받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집에서 뛰쳐나오려면 그런 방책이라도 동원해야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일찍 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들보다 활동이 자유로웠다.

그녀는 활동이 자유로운 만큼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모범이 되려고 애썼다. 요즘 사람들처럼 봉사활동 한다고 남자들하고 히히덕거리거나 덜렁거리며 땡기지 않았다. 다른 남자들에게 한 눈을 팔지도 않았다. 20년 넘는 세월을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 18.

수진동 사람들의 삶은 악착같았다. 1969년 그리고 1970년, 그 무렵에는 분양권 딱지를 사고파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것이 수진동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하꼬방 집에 살았고, 노가다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진동 사람들은 몸의 수고로움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요양병원 있다 뭐 있다 어디 가서 파출부 땡겨 돈 벌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뭐 아파트 청소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없어가지고 악착같이 진짜 나보팀이라도 발장사 해가지고, 밭에 가서 물건 떼어다 해서 팔고, 시골에 가서 그저 뭐든지 해다가 팔고,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니까.”

할머니는 이제 수진동에서 34년째 살아 왔다. 수진동은 이제 할머니의 고향 같은 곳이다. 아들 오형제에게는 수진동 살림을 맡긴 삼아 집 한 채씩 사 줄 수 있었고, 지금 생활비도 다달이 적지 않게 나왔다. 손녀딸은 삼성에 다니는데 회사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를 앞세워 참석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아직까지 엄마 말이라면 무엇보다 무섭게 여겼다. 굶은일을 생각하면 그 또한 한없겠지만,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할머니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할머니는 시집가던 해에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나머지 자잘한 기억들은 가물거렸다. 잘 생각이 안 났다. 그것이 아마도 열일곱 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스물둘이 되던 해에 전쟁을 만났다.



# 수진동 충 남상회







## 수진동 충남상회

●●● 라연씨 이야기

### 1.

할머니는 시집가던 해에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나머지 자잘한 기억들은 가물거렸다. 잘 생각이 안 났다. 그것이 아마도 열일곱 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스물둘이 되던 해에 전쟁을 만났다.

딸 셋에 아들 하나, 어릴 적 할머니네는 비교적 단출한 가족이었다. 먹고 살기도 그렇게 팍팍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정 말기가 되어 갈수록 일본 사람들은 극악스러워졌고, 조선 사람들은 조금씩 살기가 힘들어졌다. 가을걷이 곡식을 공출로 빼앗기고 나면 사람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구책으로 농사지은 곡식을 향아리에 담아 구들장 밑 방고래에 감추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먹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동네 사람 하나가 그것을 알고 일본 순사에게 찢어버렸다. 왜놈 순사가 지팡이를 짚고 거만하게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순사는 이곳저곳을 찢어보고 다녔다. 그리고 얼마만엔가 방고래 밑에 감춰뒀던 쌀향아리를 찾아냈다. 대문 밖에서는 순사를 데려온 동네 사람이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부자는 아니지만 뭐 그냥 지낼만큼 살았는데 왜놈들이 다 농사진 것도 뺏어가구 뭐. 인자 왜놈들이 인저 막 농사져 가꼬 막 나락 그런 거 뺏어 가면, 그냥 감추느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댁들에 갈아서 방고래에다 파묻으면, 방을 파고서 항아리에다 묻고 인자 파묻으면, 동네 놈이 일러서 왜놈이 지팡이 짚고 와서 다 파가고.”

봄이면 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텅 빈 쌀독처럼 사람들의 뺏속도 비어갔다. 그때쯤이면 들판에는 독사풀이 자라났다. 할머니는 형제들과 독사풀을 뜯으러 다녔다. 바가지에다 꽃가루가 잔뜩 묻은 모가지를 뜯어오면 어머니는 그것을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가마솥에 넣고 볶았다. 그러면 가마솥에선 배고픔을 자극하는 아련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 2

일본인들은 곡식뿐만 아니라 처녀들도 공출해 갔다. 그녀가 태어난 가룻매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 말고 공출을 면할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때는 정말 한시가 급했다. 그녀는 혼례 치를 여유조차 없이 중매쟁이 말만 듣고 솔매 마을의 한 총각과 덜컥 혼인신고부터 했다. 그리고 혼례는 뒤이어 올랐다. 혼례식 날 그녀는 배급 나온 검정고무신을 신었고, 다음날은 가마를 타고 30리 떨어진 솔매 마을 신랑집으로 갔다.

그녀는 솜씨 좋고 부지런한 일꾼이었다. 모심기대회에 나가 서천군 내에서 일등을 먹은 일도 있었다. 그래서 신랑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호화스럽지는 않더라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부지런히 움직거리면 밥은 굶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시골 살림은 아무리 일을 해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형제들은 어려운 시골 살림을 어찌지 못하고 모두 서울로 떠나 버렸다.

스물여덟이나 아홉이 되었을 때 그녀도 서울행을 준비했다. 우선 친정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얻었다. 쌀을 해주면서 어머니는 자꾸 울기만 했다. 사고로 일찍 잃은 외손주

녀석도 눈에 밝히고, 먹고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딸년도 불쌍했을 것이다. 한 동네 살던 시누이가 돈 3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쌀가마와 몇 가지 살림을 미리 부치고,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미리 올라와 있던 남편 형제들이 그나마 큰 의지처였다.

“스물아홉 정도, 우리 저 양반 형제간들이 다 서울 거기 와 살았어요. 근데 저 양반만 있었어요. 시골에 있어 가꼬. 그 때 인저 시골서 친정에서 참 저 양반 누님이 쌀 한 가마니, 응 친정에서 쌀 한 가마니 주고 저 양반 누님이 한 동네 사는데 돈 3만 원 주구해 가꼬. 그 인저 미리 부치고, 형제간들이 서울에 와 있으니. 그 때 따라와 가꼬 인자 사는데”

### 3.

서울 마포 공덕동에서는 사글세를 살았다. 남편은 아무런 기술이 없었다. 기술이 없는 남자가 도회지에서 산다는 것은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막노동이 전부였다. 그러다보니 요행 일이 있는 날이면 일을 나가고, 그마저 없으면 그냥 집에 있었다. 일이 없어도 집을 나서는 경우는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결국 생활은 온전히 그녀 몫이었다. 모든 살림을 그녀가 도맡아야 했다. 그래도 그녀는 별로 겁나는 게 없었다. 어머니가 일러준 태몽에, 광문을 열었더니 쌀이 그득하고 암탉이 병아리 수십 마리를 낳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태몽을 들려주면서 한평생 의식 걱정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빵을 받아다가 팔고, 바느질품도 팔았다. 바느질거리가 없을 때는 빵을 팔러 나섰고, 빵을 팔다가 일거리가 들어오면 다시 바느질을 했다. 바느질거리는 대부분 큰집 형님이 가져다 주었다.

“기술이 있어야지 저 양반이. 기술 없는 게 내가 서울와 가꼬. 참 친정에서도 우리 어

머니가 솜씨 좋고 음식 잘 하고 그러니까 와서 바느질품도 팔고 내가 바느질도 하고 큰 집서 동세가 땡기면 땡 인자 일거리 갖다 주면 하고, 나는 또 그 사이 땡기면서 빵장사도, 3만 원에 3천 원짜리 월세 살았어요.”

큰집 형님네는 먼저 올라와 서울 생활을 시작했었다. 크게 나올 것 없는 형편이면서도 시숙은 언제나 동생 부부를 걱정했다. 동생 부부를 위해 용산 근처의 서부 이촌동 모래사장에 집까지 지어주었다. 비록 판잣집이었지만, 보름금 3만 원에 한 달 3천 원씩 내는 월세방마저 감당하기 힘들던 동생 부부에게는 시숙의 마음씀이 참 고마웠다.

#### 4.

이촌동 판잣집은 다달이 월세가 안 나가서 좋았다. 하지만 판잣집은 어느 헨가 수해를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남편과 아들놈과 함께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수재민들은 근처 태권도장에 수용되었다. 무덕관에서 지내는 동안은 주먹밥으로 연명했다. 수재민들은 그나마 감지덕지였다.

“거기서 또 물이 들어와 가꼬 수해를 당했시유. 수해를 당해 가꼬 인자 몸만 애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들 하나하고 할아버지하고 몸만 빼 가꼬 인자 나왔는데, 용산 무덕관에서 인자 수해당해 와서 여서저서 주먹밥 이런 것도 밥도 해 와서 거기서 얻어먹고.”

얼마 후 정부에서는 수재민들을 미아리 하월곡동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다.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라서 산동네로 보냈나 싶었다. 미아리에 도착해서 수재민들은 판자 몇 장을 지급받았다. 그걸로 집을 짓고 살라는 것이었다. 그녀도 판자 몇 장과 고물 같은 살림살이를 조금 받았다. 그리고 한동안은 옥수수 같은 것을 배급받았다.

“거기서 또 인저 저 미아리 하월곡동으로 배치돼서 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 미아리루 산동네에다가 집 짓구 살으라구. 판잣집 짓고 살으라구. 정부서 그렇게 그랬죠.

거기 인자 그 모래사장에 살던 사람들이 그 용산 무덕관으로 다 거기서 살다가시루 인자 그 사람들이 배치가 땀잖아요. 미아리 하월곡동으로 판자 몇 장 주구. 인제 또 고물짜 주고, 배급 뭐 저런 옥수수 같은 거 따로 배급 주고, 인자 그런 거 타먹고 인자 살고.”

## 5.

남편은 한동안 하월곡동 목재소에서 일을 했다.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동명목재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대부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동명목재는 지금의 삼성전자만큼이나 유명한 기업이었다. 삼성에 다닌다는 손녀딸을 무척 자랑하고 싶어했던 황순금 구슬자처럼, 그때는 동명목재 직원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듯 싶다. 1960년대는 동명목재가 그런 기업이었다. 그때는 목재산업이 중요하던 때였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목재소가 있었다.

남편은 목재소 일을 오래 하지 못했다. 목재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없었다. 기술이 없으면 요령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요령도 갖지 못했다. 아니 너무 요령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 목재소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목재소를 그만둔 남편은 소구루마를 부리겠다고 했다. 소 한 마리가 쌀 30가마 하던 때였다. 그녀는 조금씩 부어오던 계를 타서 쌀 10가마를 마련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마는 잘 사는 친정 언니에게 손을 벌렸다.

“소 하나 사 가꼬 소 구루마 부리겠다고 해서, 또 우리 친정 언니가 잘 사는데 친정언니네 집에 가서 인자 그 소리했더니, 그 때는 소 살 때 쌀 30가마를 주고 소를 샀시유. 그 당시는 우리가 살면서 그 저 양반 고향동네 읍네 집이다 10개마짜리 쌀 내가 하나 들었는데, 그 놈 타고, 우리 형부가 또 20가마니 주구서 30가마를 소를, 큰 황소를 하나 샀어요” .

쌀 30가마에 산 황소는 요즘으로 치면 트럭 한 대나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황소로 달

구지 영업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남편은 소달구지를 부렸고, 그녀는 소를 먹였다. 그녀가 날마다 칼을 베어다 소죽을 쑀었다. 그녀가 잘 먹인 황소는 목재도 나르고 짐도 나랐다. 가끔은 남편은 사람도 태웠다. 그런데 미아리 산동네는 소달구지가 오르내리기 힘들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아랫동네로 옮겨 그곳에 가건물을 치고 살았다.

## 6.

남편은 소달구지를 부리기만 했다. 나머지는 그녀 몫이었다. 소죽을 쑤는 일도, 소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모두 그녀가 했다. 황소는 살림의 밑천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성 들여 돌보았다.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는지, 칠팔월 잘 먹인 소는 딱 보기도 달랐다. 미아리를 오가는 소달구지 치고 그렇게 잘 먹인 황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할머니는 자신의 황소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영화에 출연했던 일을 기억했다. <불가사리>는 한국 최초의 괴수영화였다. 최무룡하고 같이 나왔던 여배우가 김지미였던 것도 같고, 엄앵란이었던 것도 같다. 어쨌든 황소 덕분에 할머니는 영화배우들을 한 두 차례 아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서른넷 먹은 젊은 아낙은 여배우들이 부러웠을 법도 했다. 하지만 다 지난 지금 할머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준 자신의 황소를 기억할 뿐이다.

“옛날에 불가사리 영화 촬영까지 나갔었어 소가. 근데 그 때 불가사리 영화를 나오더만 김지미하고 최무룡하고. 산동네서 우리 소 갖고 불가사리 영화 촬영한다고 했었어. 그래 가꼬 이놈의 소가 막 또 싸놔 ((사나워)) 가꼬 튀어서 정릉고개까지 소구르마를 끌고 가고 그 양반도 갈비가, 느려 가꼬, 일도 못하고 드러누웠어.”

원래부터 황소는 몸집도 크고 성질도 사나웠다. 달구지에 사람을 태워 나르려면 고삐를 단단히 붙들어야 할 정도였다. 그렇지 않으면 소가 덤벼들어 사람들을 들이받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한번은 황소가 소달구지를 매단 채로 정릉고개까지 미친 듯이 거리를

내달린 일이 생겼다. 그 때 남편은 성난 소를 제지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고, 여파로 한 동안 몸져누웠다. 겨우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을 때, 남편은 그놈의 황소를 팔아버리라고 했다.

## 7.

언니에게 빌린 20가마를 포함해서 쌀 30가마를 들여 시작한 소달구지는 신통한 벌이가 되지 못했다. 몇 해가 지났는데도 빌린 쌀 20가마도 채 갚을 수 없었다. 한 마디로 애만 썼지 남는 게 별로 없었다. 더욱이 남편은 소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갈비뼈까지 부러졌다.

어느 날 남편은 소를 끌고 나가 미아리 도살장의 아는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 그리고 탄 소 한 마리를 끌고 돌아왔다. 탄 소는 그 날 밤새도록 설사를 해 댔다. 남편은 도살하려고 물을 먹인 소와 바꾸어 왔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지도 않은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녀는 도살장으로 쫓아갔다. 도살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당장 자신의 황소를 내놓으라고 목살잡이를 했다.

“인자 나서 가꼬 소 뵈기 싫다고 할아버지가 소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팔구서 다른 소를 산다구. 그래 가꼬 미아리가 소를 잡는 도소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 양반 친구께다 소를 인자 판다고 했나. 하루는 가져가서 소를 팔구서 탄 소를 사 왔다고 그러. 아니! 탄 소를 사왔는데 밤새 외양간에서 이놈의 소가 설사만 하는 거여. 잡으러 갈라고 물 먹인 소라. 그래 가꼬 또 인제 막 저 양반 친구한테 쫓아가 가꼬 친구 간에 사기쳤다고 막 그놈 붙잡고 목살 붙잡고 내가 싸움을 했어요.”

도살 직전에 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소달구지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나운 소를 끄직히도 싫어했다. 거기다 소 먹이는 일도 결코 만만찮았다. 하

는 수 없이 소를 팔기로 하고 쌀 10가마를 받았다. 소 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쌀값이 많이 오른 탓이었다. 그것으로 소 살 때 20가마 빚진 것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 8.

미아리에서 흘러내려온 하월곡동 개천은 지저분한 곳이었다. 여름이면 장맛비에 넘친 뒷간 오물이 온갖 쓰레기와 함께 둥둥 떠다녔다. 그래도 겨울철에는 개천이 얼어 꺼칠한 꼬마 애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은 머리가 껴부숴졌고, 까맣게 때가 짙은 더럽고 낡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치고 다녔다. 개천 양 옆으로는 벽돌에 슬레이트를 얹은 집들이 느런히 서 있었다.

그녀 부모도 가건물을 건어내고 개천가에 벽돌집을 새로 지었다. 이번에도 시숙의 도움을 받았다. 개천가에 지은 집은 큰물이 지면 물이 차 올랐다. 더 심하면 집을 남겨두고 물 피란을 가야 했다. 그래도 그 집에 살면서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다. 귀가 얇고 맘이 모질지 못해 평생 사기만 당하고 다니는 남편 대신 그녀는 더 부지런히 장사를 해야 했다. 안해 본 장사가 없었다. 길음시장에서 열무 장사도 했고, 화장품 외판을 다니기도 했다.

이웃 언니 소개로 시작한 화장품 외판은 대리점에서化妆품을 가져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월부를 놓고 다음 달부터 다달이 들러 월부금을 거둬들이는 일이었다. 어렸을 때 야학에서 글을 몇 달 배운 것으로 월부책을 기록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하월곡동 근처에는 밭들이 많았다. 그곳은 주로 채소밭이었는데, 그녀는 주로 열무를 받아다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녀는 길음시장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수단 좋게 열무를 팔았다. 그러면 그녀의 열무 바구니는 다른 장사꾼보다 언제나 일찍 비었다.

“우리 이웃사람이 주리아 판매를 하는데. 저 언니. 언니도 그러면 그 주리아 판매를 하자고. 거기를 가서 인자 판매하면서 월부 놓고 인자 받으러 다니면서. 그거 험서 평생을 장사한 거야. 거기 동네가 막 밭이 많았으니까 열무 그런 거 따오면 또 그거 가서 또 받

아다 팔고, 길음시장도 있고 대지극장 있는디 거기도 시장 있잖아. 고개로 이고 다니면  
서 팔지. 나는 여다 놓고 끌고 땡기고 저다 놓고 끌고 땡기고, 움직거리면 다 파는디 다  
른 사람은 못 팔고 그냥 있어.”

## 9.

남편은 연탄 배달을 한동안 했다. 그러다가 이내 연탄직매소를 차리겠다고 나섰다. 솔  
직히 미덥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 연탄이 비싸고  
잘 팔리던 때라, 잘만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그녀 자신도  
이런 저런 장사를 해서 보태면 금새 좋은 집 짓고 살 날이 오겠거니 생각했다.

그녀는 원남동 뒷골목에다 연탄직매소를 차려 주었다. 그동안 장사를 해서 벌여놓은  
돈을 많이 밀어넣었다. 운영은 남편이 맡았고, 조카들을 데려다 연탄배달을 맡겼다. 처  
음에는 그럭저럭 잘 되었다. 그녀는 밥을 해다 나르면서 장사를 돕기도 했다. 그런데 남  
편은 그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고를 쳤다.

몇 해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남편은 초저녁에 잠깐 집에 들렀다가  
다시 집을 나섰다. 저녁에 공장에서 들어오는 연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연탄 대금  
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돈을 내 갔다. 그런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어서야 그녀는 남  
편에게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벌써 여러 해 술집 여자를 얻  
어 판살림을 해 왔던 것이다.

“몇 년을 장사한다고 장사해도 가면 맨날 돈만 가져가. 낭중에 알고 보니까 술집여편  
네 얻어 가고 몇 년을 훌쩍 발긴 거야 저 영감이. 우리 영감 앉혀놓고 영감을 막. 내가  
낭중에는 인자 쫓아댔겠지. 인자 안살을 테니까 들어와 살으라고 들어오라구. 쫓아다니  
고 그랬더니. 그래 가고 연탄공장 훌쩍 다 떨어먹고 결국은 여편네 떨어지고. 여편네도  
내가 억지로 뺐지.”

## 10.

일찍이 아들 하나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국민학교 3학년 수학여행인지 아니면 다른 때였는지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거린다. 아이는 물에 빠져 죽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군대에서 앓은 한증 때문에 양기가 쇠약해진 때문이었다. 남편은 아들이 죽고 난 후, 아내가 살 낙이 없어 자기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 버릴 것을 걱정했다.

“저 양반이 애 못 낳는다고 인자 죽는다고 막 그래 가꼬. 애 못 나면 내가 나갈 거 아니냐고 죽는다고. 그래서 자식 없어도 돌이서 마음만 맞으면 살 거 아니냐고. 왜 죽느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작은집서 애를 나 가꼬 핏덩이루 3일 날 데려다 그걸 키워어요.”

작은집에서 낳은 지 3일 된 아이를 양자로 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다 친아들처럼 키웠다. 그런데 그 아이마저 죽고 말았다. 아홉 살 먹던 해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죽었다. 돈 없이 사는 것이 그렇게 한스럽던 때가 없었다. 한동안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보면 죽은 애가 떠올랐다. 그래서 학교 가까이 사는 게 점점 싫어졌다.

그 무렵 개천가에 지었던 집은 철거를 당했다. 철거반이 들이닥치자 개천가 양 옆으로 늘어선 집들은 금세 무너져 내렸다. 집안 살림들은 한 순간에 흩어지고 망가졌다. 겨우 몸만 빼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또 다시 정부에서 가라는 대로 옮겨야 했다. 그렇게 그녀 부부는 미아리 하월곡동을 떠났다. 그러나 한동안 그녀는 그곳을 완전히 뜨지 못했다.

## 11.

성남이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성남 수진리 부근이었다. 그녀 부부는 그곳에 배급받은

천막을 쳤다. 그리고 얼마 후엔 외탄으로 옮겨 새로 천막을 쳤다. 그런데 살 수가 없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산비탈에 들어선 천막촌이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녀는 전에 살던 미아리로 나갔다. 얼마 후에 수진리에 20평 땅을 배당받은 후에도, 배당받은 땅 근처에 길목 좋은 불하지 40평을 더 샀을 때도 그녀는 미아리로 갔다. 언젠가는 성남에 집을 짓고 가게를 내겠지만, 아직은 미아리가 생활을 꾸리고 돈을 벌기에 더 좋았다.

“여기서 저 질로 ((길로)) 넷째집인가. 20평을 배당을 탔어요 우리가. 배당을 탔는데 그래두 인자 뭐 장사를 해먹고 살아야 하는디. 그 골목이가 배당한 디가 장사가 안 돼서. 이걸 40평을. 내가 장사를 해서 언제나 돈을 벌지 않으니까. 이걸 40평을 14만 3천을 주고 샀어요.”

미아리에는 여전히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에 이귀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 친구였다. 그는 푸줏간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일을 했다. 시골서 잡은 돼지고기를 가져오면 미아리 인근 푸줏간들은 그것을 공급받아 팔았다. 일은 성황이었고 그는 큰 부자였다.

부자는 일꾼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밥을 덜 사람이 따로 필요했다. 이귀동 씨는 밥 일을 그녀에게 맡기고 싶어했다. 살림이 다 갖춰진 집을 내주며 몸만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했다. 남편 얼굴을 봐서 일을 맡겨 준 건지, 아니면 그녀의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잘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그녀 부부는 미아리 이귀동 씨 집에서 한동안을 그렇게 살았다.

## 12.

아들 둘을 죽이고, 집은 철거당하고, 그녀는 이래저래 살 마음이 별로 없었다. 삼십 후반의 아낙이 견디기에 너무 큰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양자 아들이 죽었을 때는 음식을 끊어 버렸다. 죽기로 작정하고 일주일을 누워 버렸다. 몸은 백짓장처럼 가벼워졌다.

그때 큰집 시숙이 둘째 아들을 양자로 줄 테니 마음을 돌려먹으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불쌍하고 처량해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견뎌 보기로 했다. 아들까지 내주면서 마음을 써준 시숙을 봐서라도 참아야 했다. 혹시 성남에 새로 마련한 불하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근거 없는 희망을 붙잡아 보기로 했다.

성남 불하지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돌았다. 20평 불하지를 여러 개 소유하면 나라에서 뺏는다는 소문도 들렸다. 미아리 돼지고기 장사꾼 이귀동의 집에서 살던 그녀는 남편을 성남으로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남편은 그날 돌아와서 4만 원을 내놓았다. 처음에 분양받은 20평 불하지를 팔고 왔다고 했다.

“여 사 놓고 여러 채 되면 뺏는다 한다고. 또 가보고 오라고 했더니 4만 원에 팔구 왔더라우 영감이. 인자 요것만 놔두고, 우리 탄 땅을 4만 원에 팔구 왔어. 다 뺏는다 해서 4만 원에 팔았다고.”

얼마 후, 영등포에 살던 시숙이 새로 산 불하지에 집을 지으라고 권했다. 새로 들인 양아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녀는 미아리에서 장사해 번 돈으로 공사비를 댔다. 집이 완공되면서 그녀가 미아리 떠났다. 그리고 서른아홉 나이에, 뜨내기 행상이 아니라, 수진동에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

### 13.

충남상회 간판을 내걸면서 그녀는 어릴 적 고향 가룻매 마을을 생각했다. 그때처럼 일 없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했다. 다행히 가게는 잘 났다. 충남상회는 대포집을 겸하고 있어서 막걸리를 12동까지 팔던 날도 있었다. 수진동 개발 지역에 집들이 하나씩 들어설 때는 손님 대부분이 목수나 미장이들이었다. 그런 만큼 외상 손님도 많았다. 그녀는 마다하지 않고 외상을 퍼주었다. 외상 장부가 양복 상자에 한 가득 쌓였다.

그때 한번은 그녀가 서울 나가려고 버스에 올랐는데 어떤 사내가, 형수씨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비켜 주었다. 자세히 보니 충남상회 단골 외상 손님이었다. 사내는 수진동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어디 어디 달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덕분에 외상값도 치르지 못했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서 그녀는 사내가 일러준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잘 사는지, 혹시 외상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 달나라루 또 갔다고 해서 인자 거기루 인자 거기 가서 잘사나 하고 가보면, 여편네는 나가고 사내하고 애새끼들 울고 있으면. 불쌍해서 국수 사서 삶아주고 쌀 팔아 주구. 평생 이러구 살았어 내가.”

하지만 사내는 더 지독한 달나라에 가 있었다. 사내의 여자는 가출했고, 아이들만 배고픔에 지쳐 우는 모습은 그냥 보고 지나치기 힘들었다. 국수를 삶아 먹이고 얼마간 먹을 쌀을 마련해 준 후에야 그녀는 달나라의 사내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얼마 전인가는 사내의 이름이 여기저기 적혀 있을 외상장부를 꺼내 한동안 살펴보다가 상자 채로 불태워 버렸다. 그때 그녀는 외상 빚을 40년 동안이나 끌어안고 살았을 사내가 떠올랐다.

#### 14.

할머니는 충남상회를 하면서 다른 일도 같이 했다. 한때는 남편의 친목계원이던 아저씨와 함께 복덕방 일을 했던 적이 있었다. 허가증까지 받은 정식영업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이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때마다 복덕방 일거리는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였다.

골목 서너 집 아래 있던 이발소 집에서 그녀가 가게도 없이 복덕방을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급기야는 영업허가까지 취소시켜 버렸다. 아마도 자기가 대신 복덕방 일을 하고 싶어서 누군가에 돈을 주고 벌인 일 같았다. 그녀는 그 뒤로 복덕방 일을 못하게 되었다. 이발소 집은 그 후로 영영 사이가 멀어졌고, 오래지 않아 제명을 다 못살고 일찍

죽었다.

또 할머니는 관광차 일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로부터 한 달에 만 원씩 건어두었다가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관광차를 빌려 여행을 주선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40여년의 세월을 훌쩍 보냈다. 그리고 이제는 충남상회 하나만 남겨놓고 있다. 큰 시숙이 아들을 양자로 주면서 아들 대까지 살라고 튼튼하게 지었던 가게였다.

## 15

오후가 되면 충남상회는 노인정이 된다. 동네 마실꾼들이 가게 앞 조그만 평상에 모여 들면 할머니는 손님 대접을 했다. 이야기판이 벌어졌는가 싶으면 마실꾼들은 어느새 고스톱 판을 벌였다. 또 그것이 시들해진 고스톱 판은 아들과 손주들 이야기로 이어졌다.

할머니는 큰 시숙이 보내준 양아들을 충남상회에서 키웠다. 양아들은 커서 가정을 꾸리고 개인택시를 몰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식 복이 없었다. 양아들은, 큰 시숙이 그랬던 것처럼, 5년 전쯤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 할머니는 그때 양아들 병원비를 댔다. 아마 2천5백 정도 들었을 것이다.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는 친아들 하나와 양아들 둘을 먼저 보낸 셈이었다.

양아들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죽으면서 둘째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유언을 남겼다. 둘째 손자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가끔씩 충남상회를 오가며 할머니와 가게를 돌보았다. 가게에 물건이 떨어지면 채워넣는 일도 알아서 했다. 대신 할머니도 둘째 손자에게 집이며 가게를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양자 아들이 죽음서 둘째 놓고 지가 인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끝까지 못 모시게 니가 인자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라구. 그래서 둘째 손자가 인자 관리를 해요. 물건 떨어지면 사다 주구. 또 이 재산을 그놈에다 뺏기기루 하구. 큰 손자는 인자 손자며느리도 대

학 나오고 손자도 대학 나오고 그래서 그놈들 다 잘 사는디 기술이 있는디. 둘째 손자는 기술 없어서 노동일도 하고 뒤통도 하고 하는디. 살기가 좀 어려워.”

## 16.

충남상회는 조그만 구멍가게이다. 수진동 소방서에서 골목을 타고 언덕을 좀 더 오르면, 옛날 한창이던 시절에 비하여 많이 초라해진 모습의 충남상회가 보인다. 어쩌면 충남상회가 초라해진 것이 아니라 골목 너무 저 바깥세상이 너무 화려해져 버렸다고 하는 게 맞겠다. 사실 충남상회는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수진동 골목의 풍경 하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충남상회 안쪽에는 방이 하나 딸려 있다. 할머니의, 할아버지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누워 지낸다. 그러다가 가끔씩 오줌 마렵다고 방문을 열고 나온다. 소변을 보고 와서는 때가 아닌데도 밥 달라고 보챈다. 그러면 할머니는 극성떨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다.

“평생을 속 썩이고 살았지. 시방은 정신할래 없어. 더 극성을 떨어 시방은. (할아버지: 밥 안 줘) 쪼그만 (할아버지: 밥 안 줘) 기다려. 극성떨지 마. 쪼그만 기다려. (할아버지: 뭐 허는 거야 당신은) 아니 우리 집 짓고 사는 거 추재 취재. (할아버지: 뭣 허는 거야) 쪼그만 쪼그만. (할아버지: 밥 안 줘. 어. 굶어 죽여) 저렇게 극성을 떨어. (할아버지: 죽일라면 쥐약이나 타서 줘 봐. 먹고 똥지게)”

가게 옆으로 나 있는 중간문을 지나면 허름한 탁자 두세 개가 놓인 작은 공간이 나온다. 옛날 1960년대 70년대에 목수며 미장인들이 삶을 안주 삼아 외상술을 하던 공간이다. 그곳에선 아직도 술이 팔린다. 맥주도 2천 원, 소주도 2천 원, 막걸리도 2천 원. 다시 그곳 미담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가게 앞 평상의 동네 마실꾼들 이야기가 골목길을 따라 두런두런 굴러 내려간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생애 최초의 추억을, 가장 먼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홍수가 지나가고 난 후, 돌과 흙으로 튼튼하게 다시 지은 우리 집은 벽 두께가 20cm나 됐을 정도였다. 동네에서 몇 굽이를 돌아 들어간 외진 곳에 있었는데, 방학이면 친구들의 놀이터였다.



# 돌 고도는 인생사

수진동  
진희씨 이야기





## 돌고 도는 인생사

●●● 수진동 진희씨 이야기

### 1.

나는 당연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살아온 내력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혹은 김수환 추기경이나 노무현 대통령 등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위인들처럼, 내가 무슨 위대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나는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들을 언젠가 한번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그것뿐이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의 옥상이나 지하실 구석 어딘가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삶에 대한 메모들이 쌓여 있다. 언젠가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서 책을 한 권 만 들어 보고 싶었다.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나를 돌아봤으니까. 또 다시 책을 한번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더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메모했던 것들을 한번 옥상이고 지하고 찾아가지고, 하하하하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지금 원내 나는 원세대, 50대 초반의 아주 평범한 아줌마이다. 지난날들을 정리해서 나 자신을 정립하고, 앞으로 20년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때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시청도서관에 들러 책을 보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지금 나를 주인공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10대 이전까지 나는 꽃과 자연 속에서 살았고, 20대 때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30대가 되었을 때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아이들 키웠고 시부모를 모셨다. 그리고 40대 때 나는 간호조무사였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봉사자였다.

## 2.

나는 눈을 감고, 내 생애 최초의 추억을, 가장 먼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홍수가 지나가고 난 후, 돌과 흙으로 튼튼하게 다시 지은 우리집은 벽 두께가 20cm나 났을 정도였다. 동네에서 몇 굽이를 돌아 들어간 외진 곳에 있었는데, 방학이면 친구들의 놀이터였다. 친구들이 여럿이 몰려와 며칠씩 놀다 가곤 했다. 어떤 날은 산 너머 절에 살던 스님이 지나는 길에 들러 묵어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스님은 언제나 내 옆 자리에서 자곤 했다.

나는 집이 외진 곳이라 학교를 늦게 들어갔다. 12살 차이의 큰 오빠는 가끔씩 무등을 태워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내가 다니던 이동국민학교는 걸어서 1시간 너머에 있었다. 눈을 지나고 물을 건너고 산도 넘었다. 논길에는 뱀도 많았다. 심심하면 들국화를 꺾었고, 배고프면 무를 뽑아 먹었다.

“산골짜기를 따라서 논길을 따라서 다니니까. 논에 뱀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 뱀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건너가요. 하루에 뱀을 많이 볼 때는 열 마리도 봐요. 열 마리를 다 넘어가야 되요. 그러면서도 들국화 꺾어서 학교 꽃병에 꽂고, 다니면서 별짓 다하죠. 그리고 또 가다가 학교 가까운 친구 집에 들러가지고 울타리에 심어놓은 오이 있으

면 오이 따 먹다 혼난 적도 있고, 하하하하 배고프니까, 남의 집 무도 뽑아 먹고.”

도시락은 언제나 장아찌였다. 그리고 밥 대신 산딸기나 오디를 싸가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아이들 도시락과 바꿔 먹곤 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서 우유와 빵을 배식 받는 날도 있었다. 학교 길은 즐거웠다. 천성이 그랬다. 한번은 누군가가 아이스크림을 주었는데 그걸 엄마 갖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방 속에 잘 넣고 집으로 뛰었다. 물론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을 때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버리고 없었다. 대신 가방 속만 엉망이 되어 있었다. 좀 바보 같기는 해도, 내가 엄마를 생각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해진다.

### 3.

우리집이 있던 포천은 군부대가 많았다.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다 보면 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우리집을 영외 숙소로 하던 인근 부대의 중대장이 있었는데, 나는 그 중대장의 당번병을 잊을 수 없다. 그는 중대장을 시종드는 일을 했다. 처음 만났을 때 당번병은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집에 들렀다.

당번병은 중대장을 기다리다 시간이 날 때면, 우리 큰 오빠처럼 나를 무등을 태워주었다. 어떤 날은 꽃다발을 만들어다 주기도 했다. 연극 관람을 시켜준 적도 있었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사전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휴가 차 고향인 제주도에 다녀오면서 굴 한 박스를 가져왔는데, 나는 그때의 굴맛을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굴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과일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굴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때의 굴맛에 이끌려 어린 시절을 기억하곤 했다. 미각이 주는 강한 인상은 그 어느 감각보다 강한 것 같았다.

아마도 굴 체험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마들렌 체험이나 <기억 서사>를 쓴 오카 마리의 서양배 체험과 동일한 류의 체험임에 분명했

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떠올린다고 할 때,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사람에게 도래하는 것이라는 사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이 주체가 되며 ‘사람’ 은 기억에 관한 한 철저하게 수동적이라는 사실. 삶의 내력을 이야기 하는 이런 작업은 어쩌면 이런 수동성에 기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저도 모르게 술술 풀려나오는 기억도 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번병 아저씨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한 사람의 삶에서 아주 오래가지는 않는 법이다. 내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중대장의 당번병 아저씨는 제대를 하고 포천을 떠났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저씨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지금은 아저씨가 떠난 것이 그해 어느 계절이었는지, 그 마지막도 분명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럴 때면 순간 슬퍼지기도 한다.

#### 4.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아니 다닐 수 없었다. 졸업 전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나를 데려다 공부시키겠다고 했다. 그 스님이 어릴 때 가끔씩 우리 집에서 묵어가던 그 스님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나를 데려다 공부시키겠다는 스님의 말은 한동안 내 머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중학교 졸업 이후 내가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자주 내게 도래해 왔다. 그러면서 나는 집을 떠나면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많이 아팠던 어느 날을 틈 타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동네 아는 언니 소개로 오산의 금성전기라는 회사에 들어갔다. 낯땀 작업이 나에게 부과된 일이었다. 나는 맡은 일에 늘 최선을 다 했다. 덕분에 8명의 조원을 거느린 조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집을 나올 때 가졌던 공부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미련으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공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나서 나가면 저절로 다 공부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금성전기를 인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오산까지. 동네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책을 들고 공부한다고 했지만 공장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고, 또 뭐 하다보니까 납땜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됐어요. 전자업체라.”

금성전기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나는 남편을 만났다. 그때 나는 트랜스실 조장이었고, 남편은 실험실에 근무했다. 우리는 작업 때문에 자주 접촉했다. 조금 가까워질 무렵 남편은 군대에 갔고, 이후 남편은 군사우편을 부쳐 왔다. 그런데 그때쯤 나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때 나는, 반복적인 납땜 작업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 5.

금성전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경기공전을 다니고 있었고, 나는 야간 고등학교를 가보려고 한참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남편과 결혼했고 또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평탄하고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다. 내 삶은 자주 고비를 만났고 어려움에 봉착했다.

나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래도 시작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트랜스실 작업반 내 책상에는 초록색 고무판이 깔려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 고무판 위에는 매일 껌이 하나씩 놓였다. 이브껌이었다. 100일 동안, 한 계절이 다 가도록 껌은 계속 놓였다.

“공부는, 마음 속에 늘 공부를 해야 되구요. 그리고 엄마가 아팠어요. 제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핵을 앓고 계셨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거든요. 그

래 가지고 마음이 없지. 그런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계속 이브낌을 갖다 주면서. 메모를 써 놓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 밝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메모를 다 찢어서. 자존심 상하게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갖다 놓더라구.”

껌 주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한 후였다.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른 척하고 떠보았더니, 자기가 한 일이라고 했다. 남편의 마음은 상큼한 껌으로 시작되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도 남편과는 업무상으로 계속 대면해야 했다. 우리는 대면하는 횟수만큼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사관학교를 들어갔다. 그는 떠날 때 나에게 앨범이며, 가지고 있던 책들을 주었다. 편지가 왔고, 또 그러다가 휴가를 나오면 으레 나를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그때 남편이 목덜미에 키스 자국을 내지만 앓았다면, 나는 금성전기에서 더 오랫동안 납땀일을 하였을 것이다.

## 6.

내가 오산을 뜰 무렵, 동생은 유신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유신고등학교는 수원 아주대학교 옆에 있는 학교였다. 나는 동생을 위해 수원 삼성전자 앞의 세대합성 품질관리부에 재취업을 했다. 동생은 오형제의 막내였고, 집에서는 동생을 돌볼 사람도 여력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동생을 떠맡아야 했다. 나는 세대합성에 다니면서 동생을 공부시켰다. 그리고 동생이 졸업하자, 세대합성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포천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운 좋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유치원 보조교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포천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군인들의 도시였다. 우리 집 가까이에만

도 3개의 군부대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군인들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내게는 아주 친숙한 대상들이었다. 내가 보조교사로 있던 유치원은 주로 군인 자녀들이 다녔는데, 이름이 흑표유치원이었다. 아마도 당시 포천에 주둔했던 군부대 이름을 따온 것이다.

“군악대가 있어 가꼬요. 유치원교사 시절에는. 그 군악대가 아침에 이렇게 군악대 차가. 우리집 옆에 거기 수송부가 있었어요. 수송부 차로 애들을 실어서 내가 보조교사니까 같이 타고, 우리 민간인 못 가는 데는 차는 갈 수 있잖아요. 군인 차니까. 군인차 타고 넘어가. 그 차 타고 다시 유치원으로 와서, 내려주면서 뺑뺑래 다 올려 주구.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지휘관이랑 군악부 애들을 잘 알았잖아요.”

흑표유치원 아이들은 아침마다 군부대 차를 이용해서 등원했다. 나는 유치원 보조교사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그 차에 탑승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차가 유치원에 도착하면 군악대가 팡파르를 울려주었다. 나는 그때 후레아치마를 자주 입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틈만 나면 내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런데 내 치마 속을 탐낸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그때 남편은 3일이 멀다하고 내게 편지를 썼고, 내 답장이 없으면 큰오빠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고향집을 큰오빠 내외가 지키고 있었고, 나는 큰오빠 밑에서 생활하던 때였다. 그때 남편은 편지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나를 만나러 포천에 들렀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가 생겼다.

## 7.

아이가 생겼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시절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어진다. 나는 당시 일어난 일들의 퍼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그렇게 만들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제대가 여러 달 남아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예정보다 8개월 정도 일찍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우리는 수원에 살림을 차렸고, 얼마 동안 남편은 성실했다. 술도 안 먹고 교회에서 복음성가도 함께 불렀다. 행복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어느 날 남편의 후배에게 편지 한통을 받은 후, 결혼생활은 점차 순탄한 길을 벗어났다. 편지에는 남편이 뇌종양을 앓고 있으며 방사선 치료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아저씨가 9월 달에 제대할 사람이 1월 달에 왔어요. 왜 그랬냐며는 뇌종양이 발견돼 가고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일찍 발견을 해가지고, 후유증은, 이제 한 4년은 기억상실증이 온 것처럼 아무것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몰르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발병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그러다가 내가 그것을 알게 되자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 버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직장도 포기하고 성심원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위해 무진장 애를 썼던 것 같았다.

## 8.

나는 그때 둘째 아들을 임신한 터라 몸이 힘든 상태였다. 배는 자꾸 불러왔지만, 나를 돌봐 줄 사람은 없었다. 남편은 뇌종양 치료가 급선무였다.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방치되는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6촌 아저씨가 사는 반월저수지 근처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곳으로 가면 무엇보다도 생활비 한 푼 나올 곳 없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었다. 적어도 먹거리는 자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는 불러오고, 아저씨도 이제 치료차 자꾸 나가니까, 반월저수지 옆에 6촌인가 아저씨 친척이 있어 갖고 글루 옮겼어요. 반월저수지 근처에 가면 공기도 좋고 농사

도 지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거기서 가지 뭐 배추 뭐. 논농사도 하고 이러면서. 가지도 따다 팔고 호박도 따다 팔고. 막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애를 놓다보니까 애가 조산이 된 거 같아요.”

6촌 아저씨가 내준 땅에 논농사는 물론이고 배추, 호박, 가지 등 닥치는 대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힘든 농사일에 지쳐갈 때 뱃속의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았다.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호흡곤란에 빠졌다. 동네 이장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산이었다.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온몸이 푸르딩딩했다.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나는 몸조리도 못하고 퇴원했다. 집에 혼자 남아 있던 큰 딸 아이도 걱정되었고 병원비도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닳새가 지난 후에 나는 아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 이장 아저씨는 산모도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아이의 상태를 바로 알려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을 때 남편도 함께 쓰러졌다. 뇌종양 때문인지, 아이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며칠 후 깨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시아버지가 와서, 남편 대신 아이가 간 거라고, 아이가 아빠를 살린 거라고 나를 위로했다.

## 9.

아이는 엄마 젖도 한번 물어보지 못하고 죽었다. 나는 아이를 잃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모진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농사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아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다. 일을 하면 혹시 잊을 수 있을까, 농사일에 매달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의 상흔은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다. 사는 것이 싫어졌다. 이사,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군포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암울하고 묵직한 옷자락을 끌며 흘러갔다.

남편은 군포에서 잠깐 동안 직장을 다녔다. 하지만 오래 하지 못했다. 딸은 커가고 생활은 차츰 어려워졌다. 우리 식구가 세 살던 곳의 집주인 아줌마는 나를 도둑으로 몰기도 했다. 그 아줌마는 마늘이 없어졌을 때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먹고살기 힘들어 틀림없이 내가 마늘을 훔쳐갔을 거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늘 도둑은 집주인 아저씨였다. 그는 마늘을 팔아 술값으로 써 버렸다고 했다.

“직장생활이 잘 안되고 애 키우면서 이러니까. 또 내가 힘드니까 인제 막 그 배추 꼬랑지 뭐 배추잎 이런 거 있잖아요 줏어다 먹다보니까, 내가 그걸 줏어다 먹다보니까, 없을 거다 생각하고 주인집에서 마늘이 없어졌다고 마늘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저씨가 주인아저씨가 술값이 없어서 그걸 팔았어요.”

집주인 아저씨는 자신이 한 짓을 털어놓고, 나에게서는 용서를 빌었다. 그런 일이 있는 얼마 후 아저씨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사고 아니면 자살? 나는 아저씨가 자살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간혹은 죽음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나는 다시 그 집을 떠나야 했다. 군포를 떠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 10.

군포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무렵, 시집에서 연락이 왔다. 시부모가 크게 아파 집안일을 전혀 돌볼 수 없다는 전갈이었다. 한 마디로 내려오라는 이야기였다. 시댁은 먼 남쪽 지방 순천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시댁이 어느 정도는 살만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시댁은 집 한 칸, 땅 한 평 없었다. 그런 작은 지방도시에서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가난하다는 말이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대문을 밀고 들어오더니 외상 쌀값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했다.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연탄 외상값을 받으러 왔다. 기본적인 생활마저 외상으로

해결하는, 힘든 형편이었다. 누구든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시택은 행상을 하던 가난한 집이었다. 가난하게 자라면서도 남편은 학교 때 줄곧 수석만 하던 기특한 아들이었다. 시아버지는 박스에 가득 담긴 남편의 상자들을 증거로 보여주었다. 남편은 시택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집안의 기둥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편은 출세해서 잘 사는 사람이었다. 뇌종양을 앓고 기억상실에 시달리는 사람은 당치도 않았다. 남편은 그런 동네의 분위기를 거북하고 힘들어했다. 취직은 고사하고 동네를 나다니기도 불편한 상황이었다. 남편은 며칠 만에 혼자 올라가 버렸다.

“아저씨는 인제, 우리 아버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기억상실이 온 줄 모르고, 치료해서, 뭘 줄 모르고, 옛날에 잘 나갔었으니까, 수석만 했었대요. 그래 가꼬 상장을 한 박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서 이렇게 잘, 가장이니까, 동네에다 소문을 내 놔가지고 이 사람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하하 취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집 근처엔 향림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다. 시내에서 벗어난 외딴 곳, 소나무가 숲을 이룬 평평한 곳에 위치한 고색창연한 절이었다. 좀 지내면서 알았지만, 소풍 철이 되면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순천에서는 꽤나 유명한 소풍 장소였던 것이다. 향림사를 끼고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간 곳에 공장 하나가 있었다. 누룩공장이었다. 나는 급한 대로 그곳에서 일을 했다.

## 11.

향림사 계곡은 물소리도 맑고, 소나무 숲에서 이는 솔바람도 그지없이 시원했다. 하지만 맑은 물소리도 시원한 솔바람도 느끼질 못했다. 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순천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시

택 살림을 간단히 정리해서 시부모와 함께 성남으로 올라왔다.

그때 남편은 순천을 먼저 떠나 성남으로 와 있었다. 시청에 근무하던 친구가 남편에게 시청 근무를 권했던 것이다. 남편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모양인데, 결국은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친구가 권했던 자리는 시동생에게 돌아갔다.

“성남에 시청에 친구가 있어요. 지금 시동생도 시청 근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를 시청을 근무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머리가 기억상실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 가꼬 자기 대신 동생을 집어넣고. 자기는 그냥 무위.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방황하고 다닌 거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다, 말은 못하고.”

남편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스물여섯 때였다. 진단 후 10년 가까이 남편은 나에게도 그것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치료를 하기 위해 며칠씩 집을 비울 때는 친구 집에 갔다 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고 했다. 제대 후 금성전기에 복직을 했을 때 계속 다니지 못한 것도 결국은 기억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소한 실수가 많아지자 스스로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남편은 정식 직장을 갖지 않았다. 그냥 농사를 짓거나, 놀고 먹는 일에 익숙해졌다. 하루벌이가 생기면 자기 용돈이나 벌어 쓰는 정도였다. 사람들은 남편을 못배운 사람으로 알았다. 한번은 영모자애원이란 곳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를 검토하던 사람이 남편의 학력을 보고 의아해 하기도 했었다.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 12.

나는 1987년에 남편을 뒤따라 성남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세월은 이미 내가 성남 언니네로 놀러 다니던 10년 전과 달랐다. 그때는 마징가제트, 아톰 등의 만화영화가 유행할 때였다. 언니는 성남제2초등학교 근처에서 꼬마문방구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주말이면 오산에서 성남까지 올라오곤 했다. 언니는 내가 오면 성호시장이며 제일시장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그때 시장 앞으로 흐르던 개천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남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만화영화나 징검다리와 같은 낭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나는, 그 비낭만의 도시에서, 밤에는 박스나 액자를 붙였고 낮에는 구두공장에서 일했다. 박스부업은 공장장이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알선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는 시아버지에게 내 주었다. 우리 식구가 3년 만에 월세 집을 벗어나 전세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런 도움 덕분이었다.

구두공장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똑 부러지게 일 잘하고 또 나를 언니라고 불러주던 미쓰리, 그 당시에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불렀다, 미쓰리와도 아쉬운 이별을 했다. 구두공장을 그만두고, 때마침 외근사원을 모집하던 중앙신협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운 일자리는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할 수 있었다. 집안일까지 전담해야 했던 나에게 딱 맞는 근무 조건이었다.

“그래서 옮겼죠. 중앙신협으로. 그래가지고 중앙신협도 8년 7개월 다녔죠. 그러면 수진동 한 100가구를 태평동 그 만화가게까지 막 계단 오르내리면서 하루에 썩 이렇게 차고 4천만 원씩 거둬들었어요. 동전하고 10원 짜리로. 집집마다 번 거 막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갖다 주고 외근 사원이. 그래 가꼬 그 때는 진짜 4천만 원까지 거둬다주면 거기서 수당이 얼마 붙어요.”

가파른 오르막을 종종거리면, 하루에 4천만 원씩 수금이 가능했다. 수금액에 따라 조금씩 수당이 붙었는데, 나는 그것을 따로 저금통장에 집어넣었다. 남편도, 시부모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아무도 모르게 통장 하나를 불러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신

협 일을 그만둘 때까지, 8년 가까이, 4~5백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 13.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의 준규씨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성남시청이 있던 태평동은 부자들이 선망하던 동네였다. 분당이 생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이면 태평동의 시청 앞 도로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에 비해 수진동은 오랫동안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의 동네였다.

나는 그것을 신흥의 수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 성남동과 태평동, 신흥동, 그리고 수진동 일대에서 수금 활동을 했다. 그때 보면, 수진동은 태평동보다 못하고, 신흥동보다도 못했다. 분당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노인들만 사는 경우도 많아졌다.

“수진동이 정말 없는 사람들 많고. 태평동보다도 못하고 신흥동보다도 못하고. 내가 지금 통장이 6년째거든요. 보며는 다 학력들이 너무 없구요. 토백이들은 많아요. 많은데 자식들은 다 분가해 가꼬 분당으로 내보내고 호호할아버지 호호할머니들 있는데, 그것도 자식들이 부모들은 전세에다 놔두고, 전세만 한칸 주고, 분당 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신세가 어르신들이 그러구.”

2000년을 넘어서면서 수진동에는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진동 상가밀집 지역에 세들어 살거나 여인숙 같은 데 장기 투숙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배달, 간병, 파출부, 식당 할 것 없이 돈 되는 곳이면 무슨 일이나 했다. 나는 그들이 수진동의 원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기를 바랐지만, 그들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14.

신험 외근 사원이 거둬들이는 돈은 하루 4천만 원에 달했다. 하루 수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전의 양도 많았다. 동전 때문에 등에 짊어진 가방은 축 늘어질 정도였다. 무게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매일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가파른 골목길과 층계를 오르내렸다. 그러다보니 다리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금씩 통증이 생기는가 싶더니, 심한 날이면 다리가 질질 끌릴 정도가 되었다.

“신험 다니면서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무거운 동전을 많이 들고 다니고,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게 막 층계를 4층씩, 에레베타가 없어요 그 때는, 없었어요. 그래 가꼬 태평1동 경원전문대 그 4층, 거기 만화가게 거기 올라갔다. 온 동네 돌아다니니까, 100가구를 돌래니까, 미련 곰탱이처럼 하고 다닌 거지. 열심히 일하면 누가 봐주겠다고, 봐줄 사람도 없어.”

결국 나는 가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사실은 우울증도 문제였다. 그때 우리 식구는 모두가 환자였다.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모두가 하루 종일 누워 지낼 때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천성이 밝은 나라도 우울증 증세가 없을 수 없었다. 가정의학과에서 종합진단을 할 때, 나는 의사에게 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 삶에 대한 미련조차 많지 않았다.

의사는 마음이 아파 몸도 따라 아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목도 더 잘 빠게 된다고 했다. 나는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았다. 나를 담당했던 마음씨 좋은 의사는 이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체의 주치의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나는 그에게 시아버지의 중풍이나 남편의 병에 대한 조언도 자주 구했다. 가끔은 그가 직접 집에 들어서 아픈 가족들에게 링거주사를 뽑아주기도 했다.

## 15.

나는 우울증 상담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스포츠태핑과 오행침구학을 배웠다. 내 상담 치료를 맡았던 마음씨 좋은 의사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익숙해졌을 때 정식으로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다. 젊은 시절 금성전기에 다닐 때 꿈꾸다가 이루지 못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에 들어갔다.

“인제 태핑치료하구 오행침구 하구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또 했죠. 그래 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뭐 하하하하.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요.”

신협 외근사원 업무는 통상 10시에 시작되었다. 나는 출근하기 전에 중풍에 당뇨까지 있는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다. 그리고 수금 업무로 무거운 다리를 끌며 5시에 퇴근하였다. 집에는 산적한 집안일이 기다렸다. 고교 검정고시와 간호조무사 시험 공부는 그 후에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공부는 늘 밀렸고, 하루는 언제나 빠듯했다. 그런 바쁜 일상마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중단되기 일수였다.

예컨대 전세금을 올려주는 일이 그런 일이었다. 시아버지는 중풍을 앓았고, 그 때문에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신흥1동에서 전세를 살던 때였는데, 그나마 수진동에서 여러 해 월세를 살다가 늘려간 집이었다. 그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천만 원씩이나 올려달라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병든 시아버지에게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 때문이었을 것이다. 올려줄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내 일상은 더 고단해져야 했다. 그때 시간은 늘 그렇게 정신없고 힘들게 지나갔다.

## 16.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상담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다. 마음씨 좋은 의사가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늘 웃었고 늘 씩씩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편이었다.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기 퇴근 후에 와라. 조합원들이 거래를 하면, 퇴근 후에 들려, 퇴근 후에 들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방앗간에서는 늘 떡 같은 거 주셔요. 그러면 아버님 아프시니까 포르르르륵 뛰어가 가지고 떡 얼른 갖다 주고 나오고, 음료수도 주시면 음료수도 얼른 갖다 주고 나오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다.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고, 덕분에 그들도 나를 그렇게 대했다. 사탕이 생기면 이웃집 할아버지를 가져다 드리거나, 하룻길 어둑어둑할 때까지 진달래를 따다가 이튿날 학교 선생님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면 선생님은 진달래술을 담그곤 했다. 중학교 동창생들을 만날 때면 친구들은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하여튼 나는 간호조무사로 8년 2개월을 열심히 일했다. 실험 외근사원 때 그랬던 것처럼,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라 내 어깨에 문제가 생겼다. 오십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그만두고, 치료 삼아 매일 청계산을 올랐다. 다행히 오십견 증세는 차츰 좋아졌다.

## 17.

딸아이가 이제 서른이 되었다. 결혼하던 바로 그해에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갖은

고생을 다했다. 엄마는 낮에는 아이를 들쳐 업고 보험 영업을 다녔고, 밤에는 아이를 방에 재워두고 김밥공장에 다녔다. 농사지를 때는 엄마가 밭 매는 동안, 아이는 밭고랑에서 혼자 놀았다. 김밥공장에서 10달치 수당을 떼이는 바람에 아이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했다.

딸아이는 어려서 수술을 한 적이 있다. 걸음마를 배울 텐데, 힘없이 주저앉는 증세가 반복되었다. 먹고사는 것조차 힘들던 때라 좋아지겠거니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 아이는 결국 절록거렸다. 그렇게 한참이 더 지났다. 결국 4살이 되었을 때 성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선천성 탈골이라고 했다. 엄마는 6개월을 꼼짝 않고 아이 곁을 지켰다.

“딸도 그렇게 6개월 동안 성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꼼짝도 안하고 옆에서. 성가병원에서 6개월 동안. 그 4살 때 가꼬 저기 수술을 해 줬죠. 선천성 탈골 뭐 이런 거라 해 가꼬. 성당에다 얘기해 가꼬 성당 의료보험으로 적용받아 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딸아이는 수술한 데가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책 보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는 대학원까지 다녔다. 대학에서 조교로도 여러 해 근무했다. 섬유공학 연구소에 다니기도 했는데, 직장상사가 집적대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제 딸아이는 웹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다. 딸아이를 볼 때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부모가 든든하게 받쳐주지 못해 아이도 고생이 많았다.

“섬유공학연구소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아니 총각이 가만 안 놔두면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유부남이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유부남 때문에 그만 뒀어요. 연구소는 진짜 잘 들어갔는데. 제일 좋았는데 그러더라구. 엄마 그 때 제일 좋았는데 그 유부남 때문에 아휴. 엄마 아버지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딸한테 좀 미안하더라구요. 내가 내노라 하는 사람이고 아빠가 좀 내노라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건드렸겠나 싶고.”

## 18.

내가 기록해 둔, 삶에 대한 메모들을 꺼내볼 때가 있겠지만, 나는 늘상 이런 저런 질병들과 맞닥뜨리며 살아왔다. 결혼 전에는 엄마가 오랫동안 결핵을 앓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팠다. 갓 태어난 딸도 몸이 불편했고, 시아버지까지 중풍으로 고생했다. 거기에 나도 우울증과 오십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나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마주해 왔다.

“환자는, 호스피스활동을 하다보니까 계속 한 20명 발굴했죠. 통장 일을 하고 구역장 일을 하다보니까 이제 암환자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 호스피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20여 명을. 거쳐 갔어요.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발마사지도 해 주구 고스톱도 쳐 주구. 손도 주물러 주구. 어깨도 주물러 주구. 마사지도 해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머리도 감겨 주구. 손발도 씻겨줄 때도 있고 이렇죠. 그렇게 하면서 방도 치워 주구. 밥도 해 주구. 설거지도 해 주구. 그런 생활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구. 지금도 세 분 정도는 계속 돌보고 있고. 활동중이니까.”

암환자들은 호스피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다. 마치 지금 내가 내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나도 그들에게 우리 집 얘기를 시작했다.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는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삶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조금씩 행복해졌다.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자선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오랫동안 자선사업가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은 적어도 산 하나를 옮기는 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집착에서 벗어나면,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봉사한 것도 자선사업이고,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삶도 자선사업이고, 동네 통장, 성당 구역장, 그리고 호스피스 활동, 이 모든 게 자선사업이 아닌 게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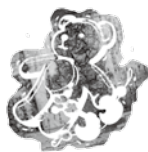
결혼과 함께 시작된 모진 세월의 강은 깊고도 길게  
흘렀다. 너는 언제부터가 그 모진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  
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졌다. 그리고 지  
금 너는 만리장성 같은 너의 이야기를 너 자신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 솜씨 좋은 집 장수

수진동 ●●●  
보화씨 이야기





## 솜씨 좋은 집 장수

●●● 수진동 보화씨 이야기

### 1.

나는 시골 촌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6.25가 나던 해였고, 공주 정안면 장원리라는 곳이였다. 오빠가 하나 있었고 나는 둘째, 큰딸이였다. 아래로 동생들이 여럿이었는데 어려서 하나는 죽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는 나를 서울로 보냈다. 그 때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아직 졸업이 몇 개월 남아 있던 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직후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남의 집의 머슴 노릇도 했다고 하는 데 기억나지는 않는다. 겨울이 되어 일이 없으면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살았다. 당시 가난한 시골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다. 그런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는 한 달 만에 시골로 다시 내려갔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진짜 어려워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도 사시고 그랬대요. 나는 잘 모르는데, 동생으로 밑에 넷이 있었고 다섯인가 여섯인가. 하나는 죽고, 그러다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막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가 인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와 가지고서는 서울로 와서 남의 집도 다녀보고 공장에도 있어보고.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려가 가지고서니 졸업장을 탔어.”

졸업장을 탄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후로 봉제공장, 아동복 공장, 청바지 공장을 비롯해 많은 공장을 옮겨 다니면서 미싱사로 일했다. 나는 솜씨가 꽤 좋았고 벌이도 괜찮았다. 보통 그런 곳은 명절 때가 되면 직원들 이동이 많았는데,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회사도 많았다. 그리고 스물여덟 살이 되던 해, 회사 사장님의 소개로 결혼을 했고, 그 후 나는 성남시 수진동에서 30년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 2.

수진동은 오랫동안 서민들이 사는 동네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골목길은 좁고 경사져 차 한 대 마음대로 주차하기 힘들다. 초보 운전자들이 뭣 모르고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혼쭐이 날 것이다.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있어 볼품이 없다. 혹시 사진작가들의 색다른 눈으로 본다면 이런 풍경도 그럴듯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수진동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웃끼리 어울려 사는 것에 익숙하다. 나도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다. 골목 안 사람들은 충남상회에 모여 빈대떡을 부쳐 먹고 막걸리를 나눠 먹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매일 매일 이야기로 만리장성을 쌓아갔다. 모두가 이야기 잘 하는, 사연 많은 충남상회 할머니를 닮아갔다. 그러다 이야기판이 시들해지면 고스톱 판이 벌어졌다.

물론 개중에는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이사를 왔다 금새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은 언덕이 높아 힘들다며, 어떤 사람은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며, 또 어떤 사람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며 떠나갔다. 그래도 긴 세월 수진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은 수진동에서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

“다닥다닥 집이 붙었어도. 그냥 옛날 60년대. 밥해서 같이들 앉아서 나눠먹고. 또 막걸리 같은 것도 서로 어른들 사주고 또 먹고. 나두 또 옥상에다 텃밭 해 갖고 음식 해 갖고서 막 빈대떡 부쳐갖고 와서 막걸리 사갖고 어른들 같이 먹고. 한 사람 해갖고 오면 또 저 사람 다음에 해갖고 오고. 막걸리 같은 거 다 돌아가며 한 병씩 사서 다 같이 먹고. 거의 날마다 모여요.”

### 3.

나는 수진동 일대가 재개발되면 이곳을 떠날 생각이다. 새로 당선된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바람에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들 하지만, 여하튼 재개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포기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때가 되면 나는 수진동 언덕배기를 떠나, 화성이나 충주 어디쯤에 땅을 사서 귀농할 생각이다. 그곳에서는 아파트처럼 살기 편한 집을 짓고 살 것이다.

“여기 우리 아들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세 개가 있는데. 우리 아들집이 여기 하나 있고, 이것도 우리 아들집이고. 우리 집은 저 밑이고. 내가 세 받는다는 집. 그 세 개에서 세가 나오는 게 한 달에 한 3백만 원 나와. 아들들 집도 내가 사줬으니까 세는 내가 받아.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하나라도 정리해 가지고. 시골 저기 어디 화성이나 아니면 저기 충주 쪽에 땅하고 사가지고 가서 인제 지어서 귀농 같은 거 할라고. 이제 우리 아저씨가 회사일 그만두면.”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어 늙어지고 외로워지면, 수진동의 그림고 아픈 기억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 궁금해진다. 수진동 이웃들과 충남상회, 한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던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내 속과 몸을 술하게 명들게 했던 남편. 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온 내력의 전부를, 더 이상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미 많은 것들을 잊어먹었을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졌다.

만약 남편이 이러한 내 이야기 계획을 안다면, 당장이라도 녹음기를 뒤집어엮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계속할 것이고, 미래의 나인 너는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가장 은밀한 아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고? 아니 그것은 자신이 없고, 시간도 없다. 남편이 언제 이야기 계획을 눈치 챌지 모르니까. 그리고 너도 가장 은밀한 아픔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 4.

너는 예순이 되어도 고향이 그리다. 고향에 간다고 생각하면 들뜨고 행복해진다. 다시 가고 싶지만, 다 돌아가시고 고향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그 어렵던 시절, 촌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를 씹어 먹었다. 하얀 메뿌리를 캐서 먹었고 산에 피는 진달래꽃을 따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시골에서 뭐 하~ 풀뿌리 이거 씹어 먹고, 또 땀싸이라고 있어 그 하얀 거 그거 캐서 먹으면서, 여름 봄에는 뽕기 뽑아먹고, 진달래꽃 막 이렇게 피는 거 산에가 다 따 먹고, 아카씨꽃 따먹고, 어려서 뭐 주전부리 그게 없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냥 엄청 멀어 한참 걸어가는디 산길 뭐 신작로길 하면 보재기에다 책보 탁 메고서니, 오다가 막 책이 빠져도 몰라.”

학교는 너무 멀었다. 그래도 너는 책보자기 하나 둘러메고 산길로, 신작로길로 하염없이 걸어가던 그때의 학교 가는 길이 그리다. 봄에는 뽕기를 뽑아먹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으며 다녔다. 친구들이 먼저 가버리고 혼자 돌아오는 하룻길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문둥이를 만날까봐 겁을 먹었다. 혼자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문둥이가 나타나서 어디론가 데려간다는 소문은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다. 이야기 속의 오싹한 공포가 현실과 이어져 있던 때였다. 그래서 너는 땀이 뻘뻘 나도록 뛰어서 돌아와야 했고, 집이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서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었다.

## 5.

엄마의 삶은 지독하게 힘들고 고달팠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참외나 열무를 팔러 다녔다. 쌀독은 항상 바다가 보였고, 끼니는 감자나 고구마가 고작이었다.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다. 가끔씩 엄마가 보리쌀 한 되박씩을 가져와도 하루 먹으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저 참외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며 팔고, 열무도 받아다 팔고, 그러면 보리쌀 한 되뽁씩 돈 치러 주고 남으면 고놈해서 하루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 또, 근데 내가 큰딸이다 보니까 그 쌀독아지를 열어보면 없잖아 보리쌀이. 쌀 하나도 안 섞고 깡보리밥만 해먹는데 보리쌀이 없으면 내일은 뭘 먹지 하고, 나는 큰딸이라 내일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너는 집안의 큰딸이라서, 일 나가는 엄마 대신 언제나 쌀독이 걱정이었다. 끼니 때마다 다음 끼니거리를 걱정해야 했다. 그래도 밥을 하면 너는 엄마 밥을 가장 먼저 푸는 기특한 아이였다. 동생들 밥까지 조금씩 푸고 나면 너는 밥이 없었다. 엄마는 그걸 다 알았다. 엄마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반을 딱 덜어서 너에게 주곤 했었다.

그렇게 살았다. 너는 그렇게 없이 살았다. 장내쌀을 얻어 먹는 일도 다반사였다. 쌀 한 가마를 얻으면 가을에 두 가마로 갚아야 하는 것이 장내였다. 옷은 다 떨어져 구멍이 날 때까지 입었다. 겨울옷에는 엄마가 솜을 넣어 누벼주면 해졌던 옷도 다시 입을 만해졌다. 옷장수가 동네에 들어왔을 때, 엄마는 보리쌀을 내주고 아이들 메리야스 같은 옷을 샀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 6.

살기가 힘들어 엄마는 너를 서울의 먼 친척 집으로 보냈다. 할머니가 아는 언니의

동생의 아들네 집이라고 하니, 촌수를 계산하기도 힘들었다. 그때 너는 열세 살인가 열네 살이었다. 엄마와 떨어져 서울 친척집에 온 너는 처음에는 밤낮으로 울기만 했다. 엄마도 그랬을 것이다. 엄마가 생각나면 화장실에서 얼굴이 통통 붓도록 울었다. 그러면 숙모는, 너는 그때 먼 친척 아줌마를 숙모님이라고 불렀다, “이놈의 지지배가 못 먹어 굶어 뒤지게 생긴 것을 데려다 놓으니까 재수대가리 없이 운다”고 너를 혼냈다.

숙모네는 큰 부잣집이었다. 삼표연탄으로 돈을 억수같이 벌어들였다. 방바닥에는 돈이 막 굴러다닐 정도였다. 숙부, 너희 아버지로 따지면 이모네 아들이지, 그 아저씨는 일찌감치 보파리 싸들고 서울 올라와 영등포 어느 다리 밑에서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는데, 연탄 배달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연탄공장까지 하게 된 거였다. 직매장까지 겸하면서 말이다. 연탄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고향사람들이었다.

“보파리 싸 갖구서니 올라온 그 아저씨는 영등포 어디 다리 밑에서 둘이 살았대. 그러다가 연탄 배달하면서 출세해 가지고 연탄공장까지 한 거야. 직매장하면서, 그레 가지고 연탄공장 크게 하고, 막 찍고 막 그냥 시골사람들 다 데려다가 다 시켜먹었어. 시골에. (고향사람들?) 예! 예! 많이 올라와서 거기서 연탄 시켜떻게 다 찍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올라와서 거기서 있었고, 그레가지고서 연탄공장 크게 하는데 날 데려온 거야.”

숙모네는 연탄공장 직원들 20명에, 직원들에게 밥해주는 아줌마들, 그리고 이런저런 뜨내기들로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그런 곳에서 너같이 어린 아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군식구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숙모는 마음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물론 당시에는 혼나는 일이 많아서 너는 숙모를 아주 무섭고 어려워했다. 그리고 일 년쯤 지나자 너는 시골 생각이 조금 덜 나고, 차츰 안정되어 갔다.

## 7.

숙모는 군식구로 집에서 애나 보면서 지내던 너를 비너스 공장에 넣어주었다. 마포에 있는 큰 브라자 공장이었다. 너는 밀일꾼, 소위 말하는 시다로 공장 언니들 심부름을 해 가면서 가위질부터 일을 배웠다. 처음에 너는 우왕좌왕, 공장이 뭐 하는 곳인 줄도 모르는 아이였다.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우왕좌왕. 시골서 공장이 뭐 줄 알아야지.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기 하늘에 별따기였어요. 그전에는 뻥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했어. 일 못하면 나가야 돼. 빨리빨리 안하며는 쫓겨났어요. 공장에 들어가기 하늘에 별 따기고, 지금 회사 들어가기 같았어. 시골서 공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출세했다고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어.”

얼마 후, 너도 생활에 요령이 좀 생기자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옮길 줄 알았다. 숙모네는 아무래도 눈치가 좀 보였다. 퇴근 후에도 집에서는 쉴 수가 없었다. 밤 12시까지 정신없이 돌아가는 연탄공장 때문에, 숙모네는 살림집이고 공장이고 항상 벽적거렸다. 밤이 되어도 조용히 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로 옮긴 곳은 하청으로 브라자를 만드는 곳이었다. 너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많았다. 손으로 하는 거라면 누구한테도 안 빠졌다. 타고난 솜씨 덕에 공장의 미싱 일을 금세 익혔다. 시집간 후에도 너는 인형눈알 색칠하는 부업을 남들보다 몇 배씩 해냈다. 일솜씨가 좋으면 평생 고생하고 산다는데, 어쩌면 너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 8.

너는 바느질을 하나를 하더라도 비전을 생각했다. 그래서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옷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밤 12시를 넘기고 새로 1시가 되도록 야근하면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몇 군데 공장을 돌아다닌 끝에,

너는 신성통상이라는 번듯한 무역회사에 자리를 잡았다.

신성통상은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영세업체와는 달랐다. 체계가 잘 잡힌 회사였다. 아침저녁으로 회사차가 직원들을 실어오고 실어다주었다. 너는 회사작업모를 번듯하게 쓰고 줄맞춰 아침체조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면 너도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 시간도 군대식이었다. 커다란 식당에 직원들은 줄을 맞춰 입장했다. 시골내기였던 너한테 그런 규모의 공장은 으리번쩍해 보였다.

2년 후, 너는 신성통상을 퇴사하여 월급을 좀 더 주겠다는 조그만 회사들을 몇 군데 옮겨 다녔다. 그때마다 너는 일 잘한다는 평가를 들었다. 명절에는 금반지를 받았고, 어느 노동절 날에는 시계를 타기도 했다. 쌍문동에 있던 조일산업은 추리닝, 운동복이지, 추리닝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반장으로 일했다. 반장으로 이삼년이 지났을까, 라이벌 회사였던 조양산업에서 너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너를 스카웃하고 싶어 했다. 조양산업 공장장이 명절날 시골집으로 찾아왔을 때, 너는 결국 회사를 다시 옮겼다.

“아침 출근하는데 와서 잡어 갔어. 딱 아침 출근하면 와서 잡아가요. 자기네 회사가자 이거야. 돈 더 준다고. 몇 번은 안 갔죠. 안 갔는데 야중에 명절에 시골 갔는데. 그 때는 명절 때 많이 이동을 했어요. 명절 때 인저 돈 다 주고 끝내고, 보나스 타고 하니까. 명절이니까 회사 이동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명절 때 집으로 찾아 왔더라구. 시골 우리집으로. 사장 아니구 그 밑에 공장장이 텔러 왔어. 우리 회사로 이번에 옮기자. 방도 좋은 걸로 얻어주고 할 테니까 기숙사에 있기 싫으면 방 얻어준다. 기숙사에도 독방을 준다. 그래가지고 퇴직금도 탔겠다 또 옮기는 거예요.”

## 9.

너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대우도 좋았다. 같이 사업체를 차리자고 하

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가 외국에서 주문을 따올 테니까, 너에게는 앉아서 공장을 운영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시골 엄마가 병이 났다. 스물여덟의 혼기가 꼭 찬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있어서였다. 그때 어머니들만 해도 여자가 시집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였다.

엄마 성화에 못 이겨, 너는 시집을 가 보기로 결심하고, 회사 사장의 중매로 결혼을 하였다. 그때 사장은 상대를, 다른 회사 사장의 동생이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 보니까 신랑은 직업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종의 목수 일이었는데, 일정한 일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가다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때 너는 시집 잘못 왔다고 신랑과 싸우는 날이 많았다. 신랑은 그때부터 너를 마구 잡이로 때렸다.

“몰라서 와서 딱 보니까니 회사에 갔다 왔는데 옷이 다 그냥 기름투성이고 흙 범벅인 거야. 목수일 그냥 바네루에서 이런 게 묻어가지고, 시커매 가지고. 운동화도 흙범벅 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시집 잘못 왔다고 막 싸우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나를 잡으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인제. 그 때 임신해서 배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아 그래서 애기 낳고 안 산다고 막 그러다 막상 나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았죠.”

## 10.

너는 태평동의 60만 원짜리 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랑은 수입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일정치도 않았다. 너는 하릴없이 구멍가게를 생각해냈다. 시집을 때 가져왔던 돈이 있어서, 일부를 신랑에게 내 주었다. 그때 200만 원이면 성남에서 집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런데 너는 그런 시세를 전혀 몰랐다. 처녀 때는 공장에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는 구멍가게를 차려 돈이 좀 모이면 서울로 이사라도 가 되겠다 싶었다.

아마도 너는 내 이야기를 듣는 지금까지도, 처음 성남에 들어왔을 때를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뭐 이런 데가 있냐고, 마구 울었다. 신랑이 살던 집까지 올라가는 골목은 좁고 가파랐다. 너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다. 잠깐 앉아서 쉬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렸었다. 빨리 성남을 떠나고 말겠다는 마음은 이미 그 첫날부터 생겼었을 것이다.

신랑은 가게 자리를 태평동 언덕마루 제일 꼭대기에 얻었다. 너는 처음 그곳에 가고 또 한 번 울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가게에 물건을 하나씩 들여놓고 가게꼴을 만들어 갔다. 신랑은 나가서 벌고 너는 가게에서 벌면 금세 돈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꿈을 꾸어 보기도 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신랑은 가게를 차리고 나서는 일을 나가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외상 손님들이 더 많았다.

“가게를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서 했는데, 외상만 가지가고 돈을 안 가져오는 거야. 사람들이 떼먹고 다 도망가고. 그 때만해도 내가 새댁 때라 뭘 몰르고 악착같이 못 받은 거야. 그래 갖고서니 자본이 없잖아. 그래 갖고 금반지 그 때 닳돈 받은 거 팔아서 거기다 다 투자를 했어. 그래도 야중(나중)에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장사를.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술 좋아하니까 술을 맨날 먹고 막 방탕생활을 하는 거야. 일도 안 나가고.”

## 11.

너는 가게를 직접 보았다. 그러다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자 가게를 신랑에게 맡길 수 밖에 없었다. 신랑은 오전에는 착실히 가게를 보다가도, 오후만 되면 찾아온 손님들과 술판을 벌였다.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게 물건을 거저 가져다 먹었다. 결국 가게는 3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렸다. 너는 반지까지 팔아서 가게에 집어넣었지만 몽땅 허사가 되어 버렸다.

살 길이 막연해졌다. 쌀이 없어 꺾다 먹어야 할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둘째마져 생겼다. 그제서야 신랑은 며칠 일을 나가더니 쌀 한 가마니를 사왔다. 시어머니도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왔다.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너는 기가 막힐 것이다. 시골에서 어렵게 살던 때보다 못하고, 객지에서 혼자 돈 벌며 살 때보다 못한 생활이었다. 아니 어쩌면 결혼에 대한 꿈이 커서 생활이 더 힘겹고 비참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시집 왔는데 꿈이 크잖아 아가씨 때는. 시집가면 신랑이 잘해주고 엄청 잘 살고 둘이 벌면은. 내가 처녀 때 번 생각을 하니깐 신랑도 그렇게 벌며는 남자는 더 잘 벌겠지 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개념이 없는 거야. 회사 직장 개념이 없는 거야. 없고 막 타락이 되는 거야. 나 이제 결혼생활 안 한다 다 때려친다.”

처녀 때 너는 멋도 부릴 줄 알았다. 공장 생활하면서 번 돈은, 적금 들고 시골 엄마에게 보내주고 했지만, 멋을 부리기 위해 정장 옷에 말가죽 부츠를 사는 데도 썼다.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은 허영기마져 있었다. 그러던 너였는데, 결혼 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결혼의 꿈은 사라져 버렸고, 힘든 일상만 남았다. 그때 너는 신랑과 헤어질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

## 12.

이틀 후에 신랑이 데리러 내려왔다. 풀이 많이 죽어 있었다.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래서 너는 신랑을 따라 다시 성남으로 올라왔다. 한번만 용서해 주기로 하고 올라왔지만, 변한 게 없었다. 두들겨맞고, 싸우고,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한번은 엄마가 올라와서 너를 끌고 내려간 적도 있었다. 엄마의 눈에도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보였던 것이다. 너는 이제 보다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는 한창 중동 붐이 일던 때였다. 고창 출신의 태평동 개목수로 불렸던 유재씨도 2년쯤 얼치기 목수짓을 하고 다니다가 이때쯤 해서 중동으로 나갔다. 또 야채집을 하

던 여정씨의 신랑도 1981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으로 취업을 나갔다. 한 마디로 태평동 남자들이 이란이나 이라크, 혹은 쿠웨이트, 오만,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지로 물밀듯이 나가는 해외 취업의 시대였다. 너도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봐도 좋겠다. 너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아무튼, 너는 그때 신랑에게 중동을 다녀오라고 했다.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길은 그 길 뿐이라고 최후의 카드를 내밀었다. 신랑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수공을 했다. 그리고 사우디 가는 회사에 목수로 서류를 넣었다. 다행히 신랑은 시험에 붙어 사우디 행이 결정되었다.

“인제 그 때 한참 사우디 붐이 일어났잖아요. 사우디 가는 거. 그래가 인제 우리 아버지께 내가 얘기를 했지. 살라면 거기 가서 벌어라. 그래야지 기틀을 잡아야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때는 살길이 없으니까 사우디를 서류를 넣었어. 목수루다가. 그래 갖고 붙었어. 삼개월 동안은 인제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사우디 간다고. 먹고 살게 없잖아요.”

### 13.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취업이 결정되었을 때, 집에는 먹을 게 바닥이 난 상태였다. 혼수 대신 가져온 거금 200만 원을 털어서 차렸던 구멍가게도 이미 말아먹고 난 후였다. 그런데도, 신랑은 떠날 때까지 3개월을 빈둥거렸다. 사우디 갈 거니까 그 동안은 놀겠다는 배짱이었다.

먹고 살 일이 진짜 막막해지자, 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그래도 장원리 친정 엄마에게는 논이라도 몇 마지기 있었다. 처녀 적에는 엄마를 도와주던 딸이었었는데 시집가서는 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것을 내색

하지 않았다. 그리고 딸이 왔다고 돼지고기를 사다 삶았다.

그런데 그 날 큰아들이 그것을 몰래 가져다 먹다 탈이 나고 말았다. 제대로 갖춰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고기가 들어가면서 생긴 문제였다. 아들은 밤새 설사를 해댔다. 신랑까지 내려왔고, 아이가 조금 진정되자 너희는 다시 성남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그곳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랑이 그 사이, 너희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조그만 살림방마저 빼내서 노름으로 탕진해 버렸다.

“올라왔더니 거 방 조그만 거 방 하나 있던 것도 싹 빼 가꼬 다 갖다 써버린 거야 신랑이. 노름해서 다 써버렸어. (살림하던 방?) 예. 사우디 가서 벌 거라고 인제 마누라는 친정 내려갔으니까. 홀랑 빼 써버린 거야. 그리고 그 살림살이를 전부 다 큰집에 골방에다 다 갖다 처박고 큰집에 가서 있더라구.”

#### 14.

수진동에 큰덕이 있었다. 시부모와 시숙 내외가 사는 집이었는데, 내 편을 많이 들어주던 시아버지는 풍을 맞아 누워서만 지내다 돌아가셨다. 신랑은 살림방을 빼내, 살림살이는 큰집 골방에 처박아 넣고 보증금으로는 놀음을 했다. 친정에서 올라와 그것을 알고, 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 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방법은 하나였다. 큰덕에 가서 얹혀 지내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큰덕은 집도 있고, 셋째인 너의 신랑과는 달리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었다. 너는 아이들을 데리고 큰집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와 큰동서는 너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구박대기로 취급했다. 너는 그곳에 바보였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도 막혔다. 너는 아이들만 남겨두고 아무 말도 없이 큰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가 가진 10돈 짜리 금비녀를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엄마의 비녀가 있었어 금비녀. 10돈짜리 금비녀. 그거를 달라고 했어 내가. 그래 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서 그걸 팔아가지고 월세방을 얻었어요. 월세방 3만 원짜리 얻었어. 한 달에 보증금 걸고. 그런데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 애들 둘 놔두고 나갔다고. 하나만 업고, 작은애만 업고서 공주를 갔다 하루 저녁 자고 오니까. 애들 놔놓고 나갔다고 뒤지게 맞았어.”

친정엄마가 내준 금비녀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너는 신랑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신랑은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복날 개 잡듯 두들겨 뺐다. 시댁 식구 누구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금비녀를 뽕뽕 감추고 있다가, 몰래 팔아서 월세방을 얻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모진 세월의 강은 깊고도 길게 흘렀다. 너는 언제부턴가 그 모진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졌다. 그리고 지금 너는 만리장성 같은 너의 이야기를 너 자신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한스러운 울음이 자꾸만 목줄기를 타고 넘는다. 너는 아마 내 울음소리를 선연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15.

남편의 사우디 통지가 나왔을 때, 큰집은 난리가 났다. 남편을 왜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느냐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큰동서마저도 너에게 심한 욕을 해댔다. 그래도 너는, 집 있고 먹고 살만한 시댁 식구들의 욕지거리를 꾹꾹이 참았다. 말대꾸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너는 속으로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내가 남자라면 열 번이라도 갔다 온다고, 수십 번 되뇌었다.

“큰동서가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굶 굶이 말대꾸도 안 하고. 당신들은 집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편한 소리지. 우리는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않냐! 가서 힘들게. 내가 남자라면 열 번 해서라도 간다. 속으로만. 안가는 남자랑 못 산다 속으로만 그래요. 너가 만약에 여기 가서 돈 못 벌어요면은 인제는 아주 끝나는 거다 인저.”

남편은 일 년 예정으로 사우디로 갔고, 너는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곤하게 자는 옆에서, 너는 밤을 지새며 인형눈알에 색칠하는 일을 했다. 졸릴 때는 부엌에 나가 빨래를 했다. 그러다 또 졸리면 샤워를 했고, 커피를 냉면 그릇에 타서 마셨다. 그렇게 부업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편의 월급은 모두 모았다. 월급은 밀리거나 안 나오는 달도 있었다. 사우디 현장에서 일이 되어가는 형편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랐다. 그래도 일 년이 지나자, 이백만 원이 모였다.

남편의 귀국 날이 가까워지자, 너는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해서 집을 샀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신속히 해야 했다. 어차피 남편이 오면 이백만 원 정도는 며칠 사이에 온데간데없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너는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근처를 돌아다니며 집을 물색했다. 그리고 삼백에 싸게 나온 집을 계약했다. 당시 분양지 집짓기 전, 수진동 집값은 사오백만 원대였다.

## 16.

삼백에 집을 계약했을 때 너는 수중에 이백만 원 가진 게 전부였다. 당연히 잔금 치를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너는 잔금 치를 날짜가 돌아오기 전에 그 집을 사백에 되팔았다. 그렇게 했더니 백만 원이 떨어졌다. 너는 똑같은 방법으로 집 한 채를 샀다가 되팔았다. 양도소득세가 없던 때라, 이번에도 백만 원을 남겼다.

“일종의 말하자면 집장사야. 애기를 하나 업고 집을 300짜리를 사. 200 밖에 없어도, 그럼 잔금 치를 돈이 없으려는 잔금 치르기 전에 팔아요 집을. 그 때는 막 팔아도 그게 없었어요. 양도소득세가. 그래가지고서니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하니까 집 살

돈이 나왔어. 4백만 원이 됐어.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100 얼마씩 남았어요. 인제 내가 집장사 한 거 다 가르쳐 주네. 지금은 못해 옛날이니까 했지.”

남편이 사우디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돈 한 푼 없었다. 집을 샀다가 되파는 데 돈이 전부 묶여 있었던 것이다. 너는 그런 방법으로 이백만 원을 육백만 원으로 불렀다. 그렇게 되자 너는 가족이 살 집을 샀다. 그리고 월세로 살던 작은 골방을 떠나 이사를 했다. 궁궐 같았다. 작은 방 하나는 세를 줄 수도 있었다.

돈 쓸 생각에 신나서 돌아온 남편은 화를 내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다시 한 번 중동 건설현장으로 보내기로 했다. 두 번째 갔을 때, 남편은 6개월을 못 버티고 돌아왔다. 처음보다 정신이 많이 안이해진 게 분명했다. 그래도 약간의 돈이 더 생겼다. 너는 이번에는 팔백만 원짜리 집으로 옮겨갔다. 같은 20평 분양지이지만, 육백만 원짜리 집보다 집세가 더 나올 수 있는, 4미터 도로의 코너에 위치한 집이었다.

## 17.

너는 집을 사고 파는 데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다.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되면서 너는 집을 직접 지어보기로 했다. 단순히 사고 파는 것에서 건축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갔다. 그래서 너는 우선 4미터 도로 코너에 새로 사들인 집을 헐어내고, 폼나게 새 건물을 올렸다. 물론 건축비는 마을금고에서 용자를 받았다. 건축은 목수였던 남편이 직접 맡았다.

3층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주위에서는 앞다투어 새 집을 짓고 싶어 했고, 남편은 줄지에 건축업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수진동에 4~50채의 집을 지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른다. 그 돈을 다 모았으면 성남시 빌딩을 다 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쓰기에 바빴다. 하룻밤 술값 몇 백에 놀음으로 잃은

집문서도 여러 개였다. 그러면서도 집에는 한 푼 가져오는 법이 없었다.

“우리 집을 진 것을 팔았어 또. 많이 냄기고. 남의 집도 막 지으면서. 팔아가지고 여기 6미터 도로에 집을 샀어요 상가를. (다시 이제 6미터. 점점 도로가 넓어지네요!) 넓어지는데 사 가꼬 지었어 또. 그래 거서 정육점을 차려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았어. 이천사백인가 얼마를 팔고. 하대원에 가서 땅을 30평을 샀어. 우린 그 집 팔은 디서 전세로 그냥 살면서. 하대원에 그 때 땅 막 팔라서 팔 때야. 거기서 30평을 샀어요. 그제 우리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야. (그러면 거의 90년이 넘었네요)”

너는 집을 지어 팔고 사기를 10년을 했다. 하대원에도 건물을 지어 세를 놓았다. 모 든 것이 너의 생각이었는데도 실제적인 주도권은 남편이 틀어쥐고 있었다. 남편은 돈 관리에는 너가 일절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기집년은 참견하지 말라는 거였다.

## 18.

집장사 10년에 일이 잘못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으랴. 100평 부지에 8층 건물 공사를 남편에게 맡긴 것은 가락동 사는 어떤 여자였다. 가락동 여자는 건축비가 없다고 했다. 건물 완공 후에 상가를 세놓아 건축비를 정산해 가라고 제안했다. 남편은 목재소 사장하고 건축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사는 등치가 컸다. 남편은 끝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그러나 8층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남편은 상가를 세놓을 수가 없었다. 이미 가락동 여자가 건물 내 예정된 모든 상가를 세놓고 돈을 빼 써 버린 후였다. 남편이 가락동 여자를 수소문해 보았을 때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목재소 사장과 남편은 보기 좋게 사기를 당했다.

“집만 8층 건물을 지었으니 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목재소 사장하고 우리

하고 다 망한 거지 인제. 우리 아저씨는 통만 커가지고, 한 건 잡으면 인제 떼부자 된 다 싶으니까. 그럴라고 한 거지. 우리아저씨가 부동산에서 4천만 원인가 얼마를 빚을 얻어다 썼는데. 그걸 짓느라고 얻어다 썼는데. 이자만해도 부동산 이자는 비싸잖아. 그래 가지구서 그 때 집값이 쌀 때야 성남시가. 그래가지고 몸뎡이로만 그 집을 내주고. 빚에 넘어가서 내주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너는 서울 논현동 어느 대학교수 집으로 보모 일을 다녔다. 백만 원 남짓이 월급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너는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는 중에도 남편은 건물을 지었고, 그 수입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썼다. 예컨대 멀쩡한 차를 새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반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거나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의 학비는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었다. 너는 그때 아이들을 넉넉히 뒷바라지 하지 못한 것을 언제나 마음에 걸려 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전문대까지 졸업해 준 아이들이 고마웠다.

## 19.

남편은 시동생의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차츰 그 회사의 월급쟁이가 되었다. 그때는 이미 성남 일대에서 주먹구구식 집장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후였다. 부산으로 수원으로 다니며 집을 지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게 된 후였다. 너는 남편을 월급쟁이로 받아준 시동생이 누구보다 고마웠다.

다시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너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1억 7천에 잡았다. 용자를 받고, 작은 동서에게서 3천을 빌렸다. 그리고 그것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세를 놓았다. 전세로 1억을 받아 용자를 갓고, 동서에게 빌린 돈은 월세 보증금으로 해결했다. 그러고도 너는 다달이 20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 논현동 보모 일을 그만두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다.

“집이 여기 경매루다가 40평짜리가 1억 7천에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그걸 내가 용자를 받아가지고 샀어요. 작은집 동서한테 3천 빌리고 해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서니 원룸으로 수리를 싹 했어요. 수리를 싹 해서 500에 30만 원씩 월세를 싹 냈어.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나오더라구. 나머지는 전세로 놓고, 전세 6천에 놓고 또 2층에 4천에 놓고. 그러면 1억은 해결됐잖아. 그러면 아래 원룸 4개를 500씩 받으면 그거 2천만 원 아니야. 동서네 돈은 이제 2천 갸았어. 천만 원 남고. 그래서 세 나오는 돈 모아서 어떻게 해서 다 갸았어 빚을 이제. 그럼 한 달에 2백씩 월세가 들어오잖아.”

그 후 남편은 양평에 6억을 투자하여 땅을 샀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 번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다시 6억의 빚이 너에게 돌아왔다. 너는 지금 그 빚을 갸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해 4억 7천을 갸고 마지막 일억이 남아 있다. 다행히 이제 남편은 월급쟁이가 되었고, 300만 원 월급을 자기 좀 쓰고 나머지는 너에게 갸다 주기 시작했다. 시동생의 회사이니 명예퇴직 당할 염려는 별로 없다.

## 20.

너는 오랫동안 남편 때문에 속이 썩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갑상선이니 자궁근종이니, 담낭이니 하는 수술을 서너 차례 해야만 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수술 후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너의 아픈 모습을 보고 미안해진 것인지, 아니면 노쇠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지난날을 조금씩 반성하기 시작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아직도 남편은 자주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린다. 내가 미래의 너에게 살아온 인생 여정을 이야기로 남기는 지금도 만약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오늘 바깥일에 바빴나 보다. 젊어서 버릇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집안 분위기는, 틀림없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남편도 이제 다 큰 아이들이 무서운지,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떤 소동도 벌이지 않는다.

내 이야기가 너에게 읽히게 될 그날, 너희 집 분위기는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해 본다. 편안해졌는지, 희망을 가져도 좋은 것일까, 아직 나는 그것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주변 어른들이 조언하길, 사람은 나이 들면 변한다고 했다. 스스로도 집안이 좀 안정되고 편해지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해 왔고, 혹은 남자들이란 으레 그렇거니 생각해 왔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이해해야만 할 것 같기도 하다.

“어른들이 자꾸만 옆에서. 나이 먹으면 변한다 변한다. 고쳐야지 어떡해서든지. 저 사람을 고쳐봐야지. 그래도 가정이 좀 기쁠이 잡히며는 변하겠지. 저 사람도 가정이 딱 테두리가 잡혀서 뭔가 뚜렷한 뭔가 나오며는 사람이 착해지겠지. 그 때는 남의 집 살고 그럴 때니까 저러겠지. 집을 사 놓고서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알바틴의 모래폭풍은 위력적이었다. 모래폭풍이 들이닥치면 주위는 캄캄한 밤처럼 어두워진다.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숨도 쉬기 어려운 모래먼지, 피부를 때리는 뜨거운 모래알갱이들. 이런 모래폭풍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 수진동의 나 전칠기 골목의







## 수진동 골목의 나전칠기

●●● 영권씨 이야기

### 1.

그는 개인 사업을 해 보고 싶었다. 돈암동 민예사라는 곳에서 같이 나전칠기 일을 하던 선배들도 간혹 독립해서 공장을 차리곤 했다. 그만큼 밑천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 그는 독립하는 선배를 따라갔던 공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동생은 서울에 남겨둔 채 성남으로 들어왔다. 1975년 무렵이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맨 손이었고, 당시 5만 몇 천 원 하는 사글세방 얻을 돈조차 다니던 공장 선배들에게 빌려야 했다.

“직장 선배들이 도와줘 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죠. 아무것도 없이. 저 아래 소방서 있는데, 거기가 옛날엔 소방서가 없었어요. 그때 들어올 당시에는 별판이었거든요. 별판이었었고. 운동장도 없었고. 거기다 인제 방 조그만한 거 하나 얻어 가지고 인제 공장을 방 한 칸에서 하청을 맡아서 시작을 한 거죠.”

방 두 개를 얻어, 하나는 살림방으로 쓰고, 좀 떨어진 곳의 다른 방에는 나전칠기 하청 공장을 만들었다. 브로크로 쌓아올린 허술한 단층집이었다. 겨울이면 추웠고 여름이면 무지하게 더웠다. 그런 곳에서 그는 나전칠기 기술자 예닐곱을 데리고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예전 서울에서 같이 일했거나 그 계통에서 알음알이로 알던 아이들이었다.

나전칠기는 경기가 좋았다.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호경기를 만났다. 1977년 그리고 78년 무렵에 들어서선 선금을 미리 받고 물건을 만들 정도였다. 나전칠기는 단단한 자개를 일일이 오려 붙이고 표면에 여러 번 옷칠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작업이 될 끝난 서랍 같은 것을 억지로 뺏어가면서 나머지는 완성되는 대로 자기에게 넘기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야말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 2.

수진동에는 서울의 청계천이나 창신동에서 이주해 온 철거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철거민들은 출자로 대강 재서 나눠준 20평 분양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받지도 못했다. 어떤 이들은 분양 땅지를 모아 돈을 벌기도 했다. 술 한 잔 얻어먹고 헐값에 분양 땅지를 넘겨버리던 사람도 있었으니 요령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도 몰랐다.

성남에 가서 자신의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말렸다. 그런 못 사는, 철거민들만 우글거리는 동네로 뭐 하러 가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고, 밀천 한 푼 없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성남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떠랴,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수진동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수진동은 생각보다 더 열악하고 험한 곳이었다. 주변엔 온통 가난한 사람들뿐이었다. 한낮에 방 안에 차려 놓은 밥을 훔쳐 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이 되면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혼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따라붙었다가 순간에 때리고 주머니를 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돌아 다니기 좋아하는 20대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밤에는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근데 밥을 해놓고 인제 불르러 와요. 밥을 퍼놓고, 그러면 밥이 없어지는 거야. 도

독이 들어와서 밥 훔쳐가요. (작업장하고 집하고 사이도 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300메다 정도. 동네니깐. 동네서 방에서 하는 일이라. 바로 왔다간 사이에 밥도 없어지고. 그때는 막 서로가 다 못 살으니까. 그래 가지고 밥도. 하여간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 3.

그는 처음부터 착실히 일을 했다. 그리고 호경기를 만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갔다. 5만 원 사글세방은 어느새 10만 원짜리 방이 되었고, 또 20만 원 전세로 옮길 생각에 그는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제 살던 장인어른이 올라왔다. 그리고 집을 하나 사주겠다고 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난한 남편을 만나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었다. 돈을 판 돈을 들고 먼 길을 올라온 장인의 마음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내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단대동에는 입식 부엌을 갖춘 집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입식이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는 수진동 26단지에 연탄아궁이가 있는 집을 골랐다.

“처가 집에서 그때 빌린 돈이. 여기서 집을 살 적에 120만 원인가 주고 집을 샀어요. 처가 집에서도 좀 주고. 몇 십만 원 주고. 내가 인제 전세 있었고. 또 방세 3개 있으니까 또 전세 하나씩 놓고. 전세가 그때 2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2개의 전세를 노니깐 40만 원 하고. 그때는 번지수가 아니고 단지로 나갔어요. 26단지에다 집을 산 거지.”

삼사년 뒤에 그는 처갓집 돈을 갚았다. 장인은 그것을 안 받으려했지만, 그는 애초에 갚기로 마음먹은 것이니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었다.

#### 4.

수진동에는 나전칠기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개껍질을 얇게 잘라낸 조각을 자개라고 하는데, 섬세한 문양으로 오려낸 자개를 기물의 겉면에 붙이고 옷칠을 반복하면 나전칠기가 완성된다. 전체 공정을 모두 하는 공장도 있었고, 부분 작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기술자들을 여럿 데리고 공장을 했다. 그러다가 70년대 말쯤 되서는 자개 문양을 오려내는 작업에만 집중했다.

“70년대 말쯤 될 거예요. 조금 지나서 이런 조각하는 것도 전부 기계가 다 하고, 그래서 내 동생이 일본서 살거든요. 일본 있는 동생 보구 치과에 보면은 스케일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보내라,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보내왔어요. 그걸을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루다 조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손으로 하는 거 보다 무지하게 빨라요. 빨르니까 막 다른 데서 못하던 게 막 오는 거야. 와 가지고 그때 다른 거 공장 안하고 고것만 하는 거야. 깎는 것만. 혼자서.”

그는 자개를 오리고 다듬는 데 치과 스케일링 기계를 사용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일부러 치과에 가 보았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발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용하는데 사용법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일본 사는 동생에게 스케일링 기계를 부탁했다. 그는 그것을 약간 개조하고, 혼자서 자개 문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같이 있던 다른 기술자들은 모두 내보냈다.

그는 하루에 5만 원 이상을 벌었다. 하지만 그런 호황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박대통령이 시해되고, 1980년 광주에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경기는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나전칠기 장롱 하나가 집 한 채 가격과 맞먹던 때였다. 나전칠기는 부자를 가름하던 사치품이었다. 그래서 나전칠기는 경기를 심하게 탔고, 그의 사업도 부도를 맞았다. 더 버티다간 집마저 팔아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5.

그는 나전칠기 사업을 정리해 버렸다.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을 때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장인의 도움으로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세들어 살던 이였다. 사우디로 갔다가 잠시 귀국한 그에게 자신도 중동에 가야겠다고 했다. 어려울 것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헌데 문제가 있었다. 그는 건축 일이라곤 해 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건축 기술도 아는 것이 없었다. 급한 대로 그는 며칠간 건축 현장을 따라다니며 천장하고 칸 막는 일을 배웠다. 그리고 금호건설에서 중동 노동자 뽑는 시험을 봤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합격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얼마 후에 다시 시험을 봤지만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다.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고창 출신의 개목수 정유재 씨 같은 수완이었다면 그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합격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수완을 발휘하지 못했다.

세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야 그는 중동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덕분에 잡부가 아니라 기능공으로 뽑혔다. 잡부와 기능공은 시급에서 큰 차이가 났다. 공사현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바틴이라는 작은 도시였다. 겨울은 엄청 춥고, 여름에는 모래바람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천장과 벽채 공사를 맡아서 내부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편이었다.

“이제 기능공으로 금호건설루다가 갔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우디 뭐 백배두 공산데. 저기 저 알바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막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냥 앞도 안 보이고 그런 데. 거기 가서는 일 년 삼 개월 있었나? 일 년 삼 개월 병원 공산데 인제 우리는 내부잖아요. 천정하고 벽채는 내부니깐. 그게 인제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여. 고생 엄청 했어요.”

## 6.

사우디아라비아 알바틴의 모래폭풍은 위력적이었다. 모래폭풍이 들이닥치면 주위는 캄캄한 밤처럼 어두워진다.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숨도 쉬기 어려운 모래먼지, 피부를 때리는 파가운 모래알갱이들. 이런 모래폭풍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는 한창 귀여운 짓을 할 아이들이 눈에 뵈었다. 그래도 돌아가기 전에 진 빚을 다 갚고, 다시 집안을 살만큼 일으키려면 참아야 했다.

그가 알바틴에 가 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요꼬 일을 했다.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철경 씨의 세 번째 토막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수진동엔 스웨터를 짜는 요꼬공장이 많았다. 그리고 집집마다 한 명씩은 요꼬공장에서 일을 했다. 생활비는 아내가 그렇게 버는 것으로 가능하면 충당했다. 부족한 일부만 그가 조금 더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재형저축에 넣었다.

일 년 넘게 알바틴에서 열심히 벌어 빚을 갚았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약간의 돈도 모아졌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니 막상 또 할만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력서를 썼다. 이번에는 기술도 있고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선발이 되었다. 알바틴에서 귀국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신성건설을 따라 다시 중동으로 나갔다. 그리고 2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허리를 다쳐 귀국했다.

“딱 2년 있다가 왔죠. 오니깐은 여기 오턴 날이 그날 아시안게임인가? 86년도. 아시안게임 허는 날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다쳐 가지고, 거기 인제 스포츠센터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 가지고 허리가 무지하게 아팠어요. 신성에서 하니깐 공상 처리 다행히 해줘 가지고, 백병원에 입원시켜, 거기서 그때 수술을 했어. 허리 수술을.”

## 7.

사우디에서 귀국한 후 그는 집을 새로 지었다. 수진동 고개 마루에 있던 단층의 블

록집을 헐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2층 단독주택을 올렸다. 지하실이 있었으니 전부 하면 3층이었다. 아래층 방들은 세를 내주고 그는 2층에 살았다. 2층에서 내려다 보면, 골목 안의 집들은 대문이 늘 열려있었고, 아이들 노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지금같이 서로 앞집 뒷집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전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으니깐. 전부 대문 열어놓고, 애덜 학원을 그렇게 안 보냈어요. 골목길에 나오면 애덜끼리 서로 그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진짜 사는 맛났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 가 봐요. 애덜 하나 없고, 조용해요.”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씩 놀러도 다녔다. 사우디에 있는 동안 그러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되도록 잘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광주의 남촌풀장까지도 기꺼이 따라나서곤 했다. 그는 아이들 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일 큰 행복으로 느껴졌다.

그 즈음, 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가 새기 시작했다. 옥상에 방수처리를 다시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뜨내기 건축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게 틀림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집을 싸게 팔았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성경교회 목사가 살던 집이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지었다. 그는 맨 밑층은 역시 세를 내주었다. 그리고 2층에는 그의 어머니가 들고, 3층에는 그의 가족이 살았다. 이후에 그는 옥탑방을 하나 더 내어, 장성한 아들을 살게 했다.

## 8.

다친 허리가 거진 다 나았을 때, 그는 차를 하나 샀다. 장사를 해 볼 요량이었다. 그리고 투박대고 가락시장으로 나가서, 얼굴도 모르는 어느 도매상인을 붙들고 사정을 했다. 장사를 할 줄 모르지만 한번만 도와달라고 무작정 빌었다. 다행히 사람 좋은 도매상이 장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실어 줄 테니까 내가 팔으라는 데로 갔다 파시오. 그때 인제 마늘이었었어요. 처음 시작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예. 그 사람한테 차 갖다 대고 그리고 돈 얼마 주고서 갖다가 한 단에 얼마 팔아라고. 근데 그 사람이 팔으라고 하는 가격으로 받고 가서 팔으니깐 이게 막 완전히 날개 돋친 듯이. 사람들이 막 줄서 가지고서는 사가요. 한 차 팔으면은 인제 얼마가 남는 거야. 하루에 두 차씩 세 차씩 팔았어요. 그 사람이 도와줘 가지고.”

그는 도매상이 하라는 대로 장사를 했다. 판매가도 그가 지정해 주는 그대로 팔았다. 마늘은 날개 돋친 듯이, 하루에 두세 차씩 팔릴 때도 있었다. 그리고 마늘 장사철이 끝나자 그는 야채 같은 생물로 품목을 바꿨다. 처음에는 장사가 다 똑같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생물은 팔리는 것이 마늘 같지 않았다. 점점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어졌다.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밀리는 것이 생물이었다.

그는 장사를 접어치우고 다시 영업용 용달차를 샀다. 이삿집도 나르고, 이런 저런 화물을 나르면 수지가 맞을 것 같았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용달차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성남에는 공장들이 많아 화물도 많았다. 특히 요꼬공장이나 가구공장에 들고 나는데 완제품과 자재 화물은 무시할 수 없는 양이었다.

## 9.

영업용 용달을 가진 열 사람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냈다. 그리고 전화를 하나 놓은 다음, 모두 나서 전화번호를 적은 전단을 붙였다. 화물 수송 의뢰가 들어오면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맡아 나갔다. 이삿집을 한번에 대개 5천 원을 받았다. 공장 화물은 성남 시내에서 이동하면 3천 원, 서울 올라가는 화물은 5천 원이나 만 원을 받았다. 요꼬공장의 스웨터, 가구공장의 가구, 벽돌 등 걸리는 것은 모두 실었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무실을 내다 보니까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

다.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일을 맡을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공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자 그는 변호관 값으로 칠백을 받고 용달차를 되팔았다.

“인제 하다가 용달도 팔아버리고. 그때 용달이 살 적에 대개 비쌌어요. 용달이 처음 살 적에 칠백만 원. 변호관만. 변호관만 육백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칠백만 원인가 육백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랬다가 야중에 나도 인제 그 가격 받고 팔은 거지. 변호관 남바값이 그렇게 비싸. 그런데 뭐 차는 현차라도 남바만 있으면은 남바는 별도의 고 가격이에요. 차야 뭐 가격이야 별로 안 가잖아요.”

그는 용달차를 처분해 버리고 세일즈맨으로 나섰다. 성남 종합시장에는 금성출판사 영업소가 있었는데, 성남은 물론이고 광주, 여주, 이천까지 관할했다. 그는 그곳에서 책 방문 판매도 하고, 배본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운전도 했다. 하지만 큰 비전은 없었다. 사우디에서 귀국한 후로 줄곧 가락동 소매상을 거쳐, 영업용 용달과 출판사 세일즈맨까지, 그리고 이미 그전에 유리병 공장과 나전칠기 공장까지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는 아직 이것이 내 일이다 싶은 것을 만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다른 일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 10.

충남 보령군 주산면 증산리는 바닷가 마을이었다. 방문을 열면 바다가 내다보였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있어도 파도소리가 들려왔다. 간석지를 막아 논밭으로 변하기 전, 집 앞은 바닷모래가 파도를 따라 출렁이던 곳이었다. 파도가 모래밭을 쓸고 나가면 아이들은 고무신에 물을 퍼서 서로 끼얹으며 놀았다. 주전자에는 조개도 한 가득 잡았다.

바닷가 아낙들은 굴을 따다 팔아 생계에 보탬다. 모시나 삼베를 짜는 길쌈 일로 밤을 지샬 때도 많았다. 그의 할머니도 그랬고, 큰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굴을 따지도 길쌈을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낯선 일들이었다. 처녀 적 그의 어머니는 친정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여자들의 악작같은 노동으로 그나마 지탱되던 것이 바닷가 살림일 터인데, 그의 어머니는 개펄일도 길쌈일도 할 줄 몰랐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은 자연 어려울 수 밖에 없었고, 이내 식구들은 뿔뿔히 흩어졌다. 동생은 큰어머니 집으로 가서 지냈고, 아버지도 외지로 떠돌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서 남의 집 식모를 살았다.

“그러다 보니깐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인제 서울로 돈 벌러 좀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혼자서 하시는 일이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고 그런 거잖아.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깐, 안 되것더라구요. 나도 올라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아버지는 그 때 어려우니까 다 흩어져 있다시피 한 거요. 그리고 내 동생들은 전부터 인제 큰 집을 가 있는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죠.”

## 11.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머니를 뒤미처 쫓아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사촌형의 소개로 유리병 공장에 들어갔다. 공장 안은 무지 뜨거웠고 그는 거기서 허드렛일을 했다. 고무신 바닥에는 유리조각이며 실유리들이 무시로 박혔다. 살갗에 유리가 박히면 유리를 빨강게 녹여 유리가 박힌 곳에 딱 찍었다. 그러면 박힌 유리가 떨어져 나왔다. 그는 그것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유리공장을 나왔다. 그리고 돈암동 민예사에 들어갔다. 나전칠기를 만드는 공방이었다. 나전칠기가 귀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민예사에는 나전칠기를 배우고 만들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술을 좀 익혔다 싶으면 독립해서 공장을 차렸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런 공장에서 그는 한동안 열심히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밤에는 미아리 수도학원을 다니며 공부도 했다.

그가 서울 정릉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 무렵, 외지를 떠돌던 아버지는 전라북도 고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농사지를 땅도 좀 마련했다. 자리가 잡히자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기분이 좋았다. 더구나 학업을 중단했던 아들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든든했다. 그러면서 스물을 넘어서 아들을 장가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고창으로 낚시하러 내려갔을 때, 선 자리를 주선했다.

그는 선을 보고 1년 뒤에 약혼을 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5살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여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럴 것 같아 결혼까지 했다. 결혼 후 아이가 바로 생겼고 아이를 낳은 다음, 그들 부부는 나전칠기 개인 공장을 하기 위해 집값이 싼 성남으로 들어왔다.

“부모님이 이렇게 맺어 주는 거니깐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 부모님들도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없는 데서. 그러니깐은 야중에라도 우리 부모님 잘 모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팔십여섯이예요. 팔십여섯인데 지금 치매가 있어 가지고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렇게 잘 하는 거 보면은 판단이 옳았던 같아요.”

## 12.

1990년 들어서면서 그는 2.5톤 트럭을 샀다. 서울 살던 친구가 성남에 폐유 처리 사업권 하나가 나올 거라고 알려주었다. 친구 말을 따라 트럭을 사서 탱크를 만들어 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차를 회사에 지입 넣고 차 운행증을 받아 폐유를 수거했다. 한

드럼통의 폐유를 수거할 때마다 티켓을 열세 장씩 받았는데, 한 달이 되면 정산을 했다. 그런데 성남이고 어디고 수거해서 처리해야 할 폐유는 넘쳐났고 일손은 부족했다.

“그때 당시에 동성산업이었었는데, 저기 오산에 있었어요. 오산에 있었는데 오산에 신고 가면은 그것을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야. 드럼통으로다가 막 해서 산같이 쌓아놔어요. 산같이 쌓아놓았는데, 기다렸다가 이제 차 오면은 차에다 싣고, 차에다 싣고, 그래 딱지를 인제 고걸 모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산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서울 쪽 사람들은 딱지가 없어서 돈을 곧바로 받았다. 한 드럼통에 칠천 원을 받았는데, 하루면 한 사람이 삼사십만 원씩 받아왔다. 당연히 지입회사에서는 서울로 나가 수거작업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는 서울까지 들어갔다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성남으로 들어와서 폐유를 수거했다. 성남에도 폐유를 못 버리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이왕이면 성남 거를 치우고 싶었다. 딱지가 없다고 돈을 대신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워낙 폐유 처리 수요가 많아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었다.

### 13.

IMF 사태가 터지자, 물가도 치솟고 기름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는 그때 외려 큰 돈을 벌었다. 기름 값 압박이 심해지자 폐유를 처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던 폐유들이 본격적으로 재활용되기 시작했다. 폐유가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딱지도 없어지고 오히려 폐유가 공급이 딸렸다.

“폐유가 재활용이 되니깐, 재활용 기술을 개발시켜 가지고 막 산더미 같이 쌓아 놔던 거 전부 다 그냥 재활용하고, 기름이 인제 그때는 막 팔리는 거예요. 팔리니깐 딱지도 이거 없어져 버려. 부르면 부르는 데 몇 드럼 갖고 와. 들어오면 그때 인제 단가는 뭐 칠천 원 허던 게 만 원, 만오천 원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구요.”

모두가 어려울 때,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라는 노래가 전국 어딜 가나 흘러나올 때, 그는 오히려 호경기를 누리면서 차도 5톤 짜리 큰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얼마 후 동성산업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은행 대출 빚에 넘어지게 되자, 그는 시화공단으로 옮겨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온 아들을 이 일에 끌어들였다.

아들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교사자격증이 있어서 임용고시를 봤는데 연거푸 실패를 했다. 나이도 있고 해서 학원강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강의 준비도 그렇고 야간 강의도 그렇게 몹시 고된 일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그거 그만두고 아빠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의중을 떠보려고 던진 말이었지만 아들은 냉큼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쉴 수 있는 이 일을 더 좋아했다.

“여기 90%는 내가 치운다고 봐야죠. (이쪽 성남에) 예. 자동차 정비소에 보면은 폐유 모아놔요. 그거 버릴 순 없잖아요. 다 차면은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그거 가져다가 처리업체로) 예. 예.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그게 좀 단가가 싸지다 보니까 인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오늘 연락 왔는데 부가세가 750만 원.”

## 14.

그는 결혼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다. 부인은 처녀 때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그는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릉성당에서 관면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때 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었다.

“세 가지 약속을 해야 되요. 간멜혼배((관면혼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영세를 안 받았어도 결혼식을 해주는데, 그게 인제 뭐냐면 내가 야중에 영세를 받겠다는 약속. 내가 교리 공부를 해 가지고 영세를 받는다는

약속을 한 거. 첫째가 그거구요. 그 다음에 인제 내 자식들도 영세를 시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인제 봉사하겠다는 약속. 그거 세 가지. 충실하게 성당에다 충실하게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는 교리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우디를 다녀온 후에 영세를 받았다. 그리고 네지오에 들어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네지오는 성당 봉사단체로, 아픈 사람들 위문하고 죽은 이들 장례를 도와주거나 또는 노숙자들에게 밥해주는 일을 주로 했다. 네지오는 보통 열 명 미만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네지오는 더 큰 꾸리아를 이루고, 꾸리아는 더 큰 꼬미숨을 이루고, 꼬미숨은 더 큰 네지아가 되는 체계적인 조직이지만, 활동은 성당의 뿌리 조직인 네지오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펼쳤다.

그는 네지오 단장으로, 그리고 꾸리아 단장으로 여러 활동을 했다. 한번은 성당에 늘 보이던 노인이 보이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더니 노인은 집에 혼수상태로 누워있었다. 그는 노인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숨을 거뒀다. 그래도 노인이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는 다행으로 생각했다.

## 15.

그의 어머니는 여든이 넘었고 치매에 걸렸다. 아내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만, 어머니는 늘 외국 나간 작은 아들을 그리워했다. 어머니가 그러는 통에, 그도 미국에서 죽은 동생을 잊을 수 없다. 어머니는 미국 간 작은 아들 사진을 문갑 위에 늘 올려놓았다. 얼마 전에 그가, 보기 싫으니 치우시라고 했더니 사진을 장롱 속으로 옮겨서 세워놓았다.

동생은 미국에서 양장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부고가 왔고, 장례는 그곳 성당에서 치러졌다. 조카만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자식을 마지막 보내는 자리에도 참석치 못한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무렵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후로 어머니는 손주를 부르다면서도, ‘주원이는 어디 갔냐’ 하고 작은 아들 이름을 부르곤 했다.

어머니에게는 외국으로 보낸 자식이 하나 더 있었다. 일본으로 시집을 간 딸이었다. 1970년대였으니까 오래 전 일이었다. 일본을 갈려면 3급 공무원 보증이 필요하던 시대였다. 그는 서울 정릉에서 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고, 동생은 양장점에 다녔다. 그때 동생을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성씨를 물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이 자기와 같은 윤가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대신 좋은 데로 시집 보내준다면 재일교포를 중매했다.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딸을 어머니는 또한 그리워했다.

“그때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 났는데. 거기서 초청장은 와 가지고 수속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죠. 공무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집사람 처 처당숙이지. 처당숙이 청와대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 그 양반이 보증을 서준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됐어. 그때 조총련이 있고 그래 가지구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어릴 때 고생 많이 하고 커 가지고. 내 동생도. 지금 거기서 집 2개 장만하고 잘 살아요.”

## 16.

3층집의 2층에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살았다. 그의 아내는 아침 일찌감치 아들이 사는 옥탑방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2층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한 번 살피고, 일터로 향했다. 아내의 일터는 분당에 있다. 케이티 옆에 있는 계원예고의 식당에서 아내는 밥을 지었다. 처음에는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급식이 학교 직영으로 바뀌면서 윤종계 학교 직원이 되었다.

“집에서 맨날 놀기도 지루하고. 거기를 인제 다녔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하청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밥을 해 줬었는데. 하청업체가 없어지고 직영이 되다 보니까 직원

이 되 버린 거야. 그냥. (잘됐네요) 예. 예. 허허. 방학 때 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일찍 갔다가 늦게 올 때도 있고, 일찍 올 때도 있고, 그래 갖고 또 집에서 노는 거 보단 낫더라고요.”

그는 요즘 들어 폐유처리 일을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육십 줄에 들어섰으니 일에서 손을 놓는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일이 몸에 부치고 땀도 많이 흘렸다. 아들이 일을 다 물려받으면, 그는 광주 쪽으로 옮겨 가서 살 생각을 했다. 그곳에 집 한 채 마련해 둔 것이 있고, 또 아들을 장가를 들여야 하는데 지금 집은 너무 좁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광주로 아주 옮겨갈 생각은 아니었다. 수진동 재개발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재개발 이후에 그는 다시 수진동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다. 수진동은 그가 35년을 살아온 동네였다. 내년이면 환갑을 바라보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수진동에서 산 셈이었다. 이제 수진동은 그에게 고향 같은 곳이 되었다. 아버지조차 떠나버리고 없는 증산리 바닷가 마을보다 더 편한 곳이 되었다. 어려운 시절 오랫동안, 자신을 받아 안아준 곳이 수진동이었다.

## 17.

덧붙이는 이야기. 그는 증산리 바닷가를 이미 오래 전에 떠나왔다. 바다 개펄은 간척을 해서 논이 되었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마을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어렸을 때 그가 마주하던 마을 풍경은 도통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낯설다.

얼마 전에는 선대 할아버지, 몇 대 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할아버지가 남양주 어디에 사놓은 땅이 정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온 일이 있었다. 조그만 마을에 수십억의 돈이 떨어진 것이었다. 원래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율씨 집안사람들이었는데, 보상금 때문에 마을 인심이 변하기 시작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사

람들이 서로 많이 갖지 못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전부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이니깐 굉장히 우애도 있고. 그런데 이 돈 벌고 나니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싫어. (허, 마을 인심이 변해 버렸구나) 예. 그래 요새는 종친회 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가면은 뭘 해. 돈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친구들과 수영하고 조개 잡던 곳을, 자신이 학교 다니던 데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학교 끝나면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던 마을 뒷산을 잊을 수는 없다. 증산리 바닷가는 50년 전 모습으로만 그에게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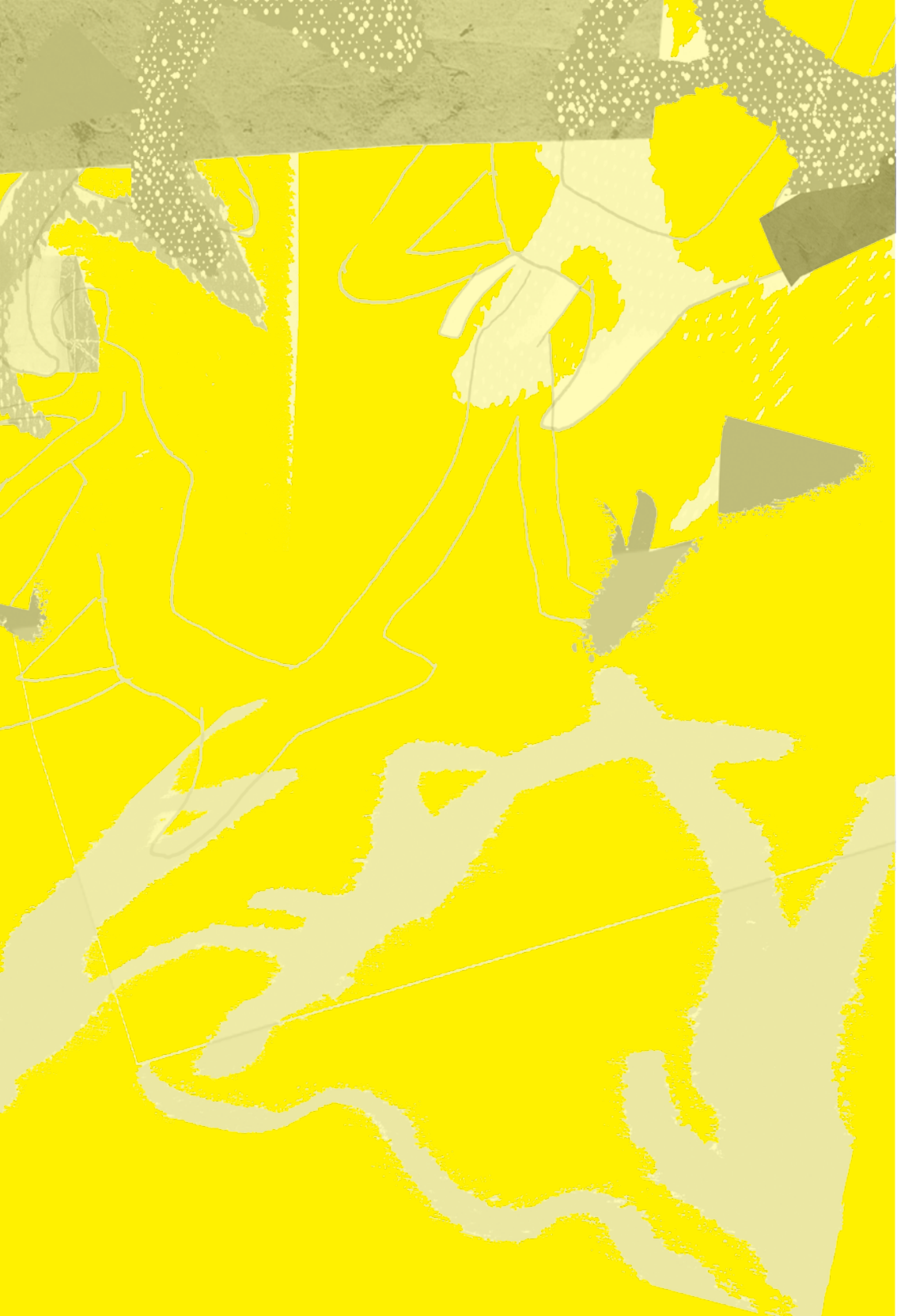


# 구술자료

- 수진동 황순금 녹취록
- 수진동 이영권 녹취록

## 일러두기

- 조사자와 구술자만을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전사하였다.
- 구술의 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문단을 나누고 구술자 표지를 첨가하였다.
- 호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어구는 따로 문단을 나누지 않고 괄호 ( ) 속에 전사하였다.
-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나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이중괄호 (( )) 속에 표준어를 병기하거나 해당 사항을 표시하였다.





## 구술 자료

●●● 수진동 황순금 녹취록

조사자 : 장노현

구술자 : 황순금

전사자 : 정혜영

조사자 : 2010년 6월 30일 수진동 황순금 할머니 서사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아오신 걸 쪽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구술자 : 75년도에 할아버지 돌아가고 내가 장사하면서 그제 애들하고 살아가는데 연명하고 살았지 뭐. 그러다 어떡하다 보니까 동네 혼자 있어서 그런지 어떡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새마을지도자로 발탁이 됐더라구. (새마을지도자요?) 응 새마을지도자로 있다가, 신흥동에서 한 3년 어떻게 지내다가.

구술자 : 수진1동으루다가 7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와 가지고 이날 이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뭐 바르게살기 벨 걸 다 했어 내가. 안 해 본 게. 그리고 그렇게 허다 보니까는 내 자신이 그런 데다 발을 들여놓고 보며는 남한테는 모범이 되야 하기 땀에 어디까지나 한눈 안 팔고 잘 살을라고 열심히 살았어. 막말로다가 인저 아들 큰 아들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 장가들고, 아들 다섯 다 장가들여 놓고 그러구는 이날 이렇게 사는 건데.

구술자 : 이 경로당에다 발 들여놓은 거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이런 데도 들랑날랑 하게 돼. 그래서 60대도 안 되서 경로당에 왔다갔다 했어. 봉사하러 땡기면서, 봉사하러 땡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 60대부터 그냥 어떻게 해서 경로당에 들어와서 땡기면서 61세부터 부녀회장 부회장이라고 저 꼭대기 1경로당에서 해다가. 거기서 한 10년 있다가 어떻게 한 5년 전에 또 어떻게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녀회 참 경로당 회장이 되가지고 이력 허고 있는 거지 뭐. 살아가는 건 뭐 사람 사는 건 별 거 아니구. 아들 다섯에 손녀 손주가 열인데, 아직까지는 아들 다섯 며느리 다

첫 손자 손녀가 열이며는 행복한 거지 뭐 (다복하신 거죠!) 다복한 거지. 내 자신은 하난 저기한 거 없고,

구술자 : 어떻게 또 살다보니까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서 집 장만해서 살다가 그 집을 하나 성남시가 한참 재개발된다는 바람에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갈 적에 집을 한 채 팔아서 큰아들 집을 수원에다 사 주구. 사 줄 적에 괜찮을 걸 사줬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한 300만 원이 나오더라구 세가. 그러는 거 사주다 보니까 내가 그냥 너희가 한 달에 나를 한 달에 50만 원씩만 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50만 원씩 보태주구. 지금 또 사는 집에서 미장원을 하는 거를 세를 냈더니 40만 원 해서 한 90만 원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거지 뭘 내가 더 바라구 살아. (그렇죠!)

구술자 : 한 마디로다가 뭐 손녀딸도, 큰아들은 딸만 둘인데 그래도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삼성에 취직이 되더라구, 졸업도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삼성에 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삼성에 들어갈 때는 전자과로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지가 그 자리에서 잘 보였는지 조금 부서가 달른 데로 옮겨 가고 옮겨 가고 좋은 사람이 데려가더니,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는 인저 서울 서초동으로 본사로다가 발령이 나서 가니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딴어 내가. (손주 잘 되고) 애들 저거 하고.

조사자 : 그러면 할머니가 지금 그렇게 여러 손주 손녀들과 같이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까지 오랫동안 사시면서 겪었던 일이 되게 많을 거 같아요.

구술자 : 많지. 그 애로점이야 그런 말로 이루 말할 순 없지.

조사자 : 태어날 때부터 좀 쪽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뭘 태어난 거) 신당동에서 태어나실 때는 어떠셨어요, 집안 사정은?

구술자 : 서울에서 살 때는 부허게 살았어. (부허게 살았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아 부하게) 괜찮게 시골에다도 땅 사서 그전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왜정 때래두 시골에서 농사지어다가 놓고서 우린 쌀밥만 먹고 살았어. (어디 시골에다가?) 광주 오폐. (광주 오폐에다가?) 오폐면에 양벌리라고 (거기가 이제 집안 토지가 있고?) 거기가 아버지의 고향이야. (아버지의 고향) 거기다 땅을 사서 어쨌는지, 왜정 때 그 무서운 저기에도 쌀을 추수해다가 그걸 그래도 어떻게. 옛날엔 자전거를 타고 백리 길인데 자전거 타고선 쌀을 가져오시는 걸 보며는, 바지를 누벼 그래서 거기다 다 쌀을 넣어,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어린 맘에도 쏟아 놓는 걸 보면 한 서너 말씩 쏟아 놓더라구. (왜 바지를 누벼가지고 거기다 쌀을) 바지. 그 왜정 땐 흙처가 그 붙잡히니까. (붙잡히니까 몰래 가져오신) 그럼 몰래 가져오느라고, 내 걸 농사지도 몰래 갖다 못해 먹더라구. 그런데 어

려서 봐두 바지 이렇게 누빈데서 쌀을 쏟아놓고, 이제 전대지, 이를테면 몸에도 감고 자전 거로다 끌여오고, (그런 애기 처음 들었어요!) 하여튼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갖다 쌀을 갖다 놓으며는 어린 마음에도 서너 말씩 되는 거 같애. 그런 걸 한 일 년에 몇 번 갖다가 쏟아놓으며는 우리는 저 배고픈 걸 몰르구 살았어. (아 그랬구나!)

구술자 : 시골루 내려간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늦게시리 그 당시에 늦게 아들을 두셨는데 왜 정 때는 방공 연습이 심했거든. (방공) 연습이 방공연습이라고, 그거를 까만 거루다 다 덮어도 불빛 바깥에 안 나가게. 그리고 마루 밑에다 반공 구멍이를 파놓고 무조건 거기 숨어야 해요. 저 서울서두. 그러면 애기가 너무 울고 그래니까는, 거기 인저 한 마디루다가, 오포에 거 쪽에는 우리 당숙이 그 동네서 지금으론 이장이지 옛날에는 구장이라는 거야. 그 걸 보시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간 거야. 내려가자마자 해방이 된 거지.

조사자 : 신당동 살림을 정리하시고 아예 다 내려가신 거예요?

구술자 : 정리하고 집 팔고 내려가서 살다가 보니까는 그냥 해방이 됐고. 공부는 왜정 때 그 거 배우고서는 그러저럭하다가 일 년 묵어가지고는 (그 때 3년 하시고 그리고 해방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못가고 그 이듬해 갔는데 그냥 3학년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글 한 3년 배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써 먹어. 그거 가지고 써먹어 지금.

조사자 : 그러면 해방되던 게 지금 연세가 그 때 해방되던 해가? (열일곱 살이야) 열일곱 살. ((실제로 할머니 나이 17살 때는 해방되던 해가 아니라 육이오가 일어났던 해이다.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잘못 구술을 한 것이다)) 그럼 오포에 가서 한 3년 사셨네요?

구술자 : 아니지 인저 그러니까 12살 먹어서 가가지고는 해방 되구는 그 길로 해서 20살 먹어서 시집을 갔으니까. 사춘기는 거기서 다 겪었지 시골에서.

조사자 : 오포에서 살 때 애기를 좀 해주시죠? 농사짓는 것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구술자 : 그거야 인저. 그 때는 나이가 나이 열대여섯 살 되면 시골 시골사람들은 손 가진 사람은 다 나가서 일해야 해여. 근데 우리 오포 양벌리라는 데는 논이 적고 밭이 많아. (양벌리) 그러니까 우리네는 아이가 어려도 가 밭을 때. 그러니까 그루조 매는데 일등이여 우리가.

조사자 : 무슨 밭에는 뭘 심으셨어요?

구술자 : 밭에 서숙. 서숙을 그루조밭 그루조라 그래. 그루조라구 그러면 그루조밭 매가지고 뭐 그런데는 일등이지 뭐 보리밭 매고 보리 비고 뭐 그런 거 하고. 한참 바쁠 때는 또 비가 그런 데는 보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모를 내니까, 한참 바쁠 때는 논에 가서 모도 쪼 줄줄 알고, 그런 거 다 했었어.

구술자 : 그렇게 하다가 시집 가가지고는 막말루다 군인이니까 군인이 최곤 줄 알고 시집을 가다 보니까는, (스무 살서 시집가라고 하시던가요?) 스무 살 먹던 해 선이 들어오니까 그냥 선 봐가지고 두 번 다시 안보고서는 오늘 선 봤으며는, 이견 참 우스운 소리다, 오늘 선 봤으면 내일 사주하고 날 택일이 와, (맘에 드셨어요?) 아 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누가 알아. 남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가 부다 하고서는 (얼굴은 보신 거예요?) 와서 선 보러 왔는데, 나는 한 구통이에 앉었고 앉아서 보고 갔으니까 누가 알아.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할머니는 못 보시고 신랑 쪽에서) 그럼, 보고서는 갔는지, 그 이튿날 사주하고 날 택일이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 그 사람네 집안이 어머니 저머니 인자 물어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니까 우리집이서 이제 안 할라고, 친정에서는 괜찮으니까 살기가. 안 헐라고 하는데, 당숙이 하여튼 해방 되고 나서 면장까지 지내 잡셨어. 그래서 집안 오포 양벌리 오포 쪽에서는 그래도 헐다하는 양반치고 황서방네 아주 알아주던 집안이야. 그런데 어디서 양반네 집이서 혼인 첫혼인 저거헌 거를 날 택일을 되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 래 죽으나 사나 가야 한디야. 그래 글루 시집가서 살은 거야.

조사자 : 시택이 그래서 아까 어디라고 하셨나요? 시택이

구술자 : 시택은 거기가 거기도 오포로 들어가는데 오포 쪽인데 오포가 아니라 능골 능골 조금 못가서 거기가 있어, 능골 못 가가지고 거기도 팽주 쪽으로 붙었어. (거기선 별로 멀지 않은데) 멀지 않아. 멀지 않은데 그러니까

구술자 : 그 때 집안이 화목한 집안이 아닌 데로 시집을 갔는데, 제대하고 인저 한 읍력으로 다가 10월 27일 날 시집을 갔는데, 산 날 걸어 저기 그 이튿날부터 걸어서 걸어서 저기하고 말죽거리 가 자구, 영등포 가서 또 하룻밤 자구. 그리고서는 저기 기차 타구 논산을 가는데 지금으로도 생각하면 천안인지 대전인지 몰러 어디 가서 또 하루 저녁 자고 논산을 가더라. 이렇게 내가 신희여행을 한 사람이야. (아 그거 신희여행 간 거예요?) 응 신희여행 간 거지. 그렇게 해서 가서 논산 가서 그러니까 훈련소 있는 데서 살림했어.

구술자 : 그리고 54년도 (직업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인, 6.25 때 6.25 때 제대할라고 그러는데 군인을 8.15해방 되가지고 바로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제대를 할라고 하는데 6.25가 난 거여. (그래서 계속) 그래서 하여튼 군대생활을 8년을 했디야. (8년을?) 8년을. 그러니까 군대가 머리에 백인 사람이야 군대정신인. 그런 사람도 있을까 하고, 살다가 어쨌든 아들 다섯을 낳고

조사자 : 논산에서 사셨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부대 근처에서 사셨나요?

구술자 : 부대 근처지. 부대 근처 조금 이리저리 옮겨 다녀 전군 다니는데 옮겨다니면서 한 5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도 몇 번 이사를 갔는지도 몰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인저 여기저기루다 조교들이 옮겨다니더라구 한 군데서 안 가리키고. (살림도 많이 장만 못 하셨겠어요?) 살림은 무슨 살림이 있어? 이불 하나 요 하나 솔단지 하나 가지고 다녔지. 군인은 자기는 부대 가서 먹고 나 혼자 끓여먹으니 오죽했겠어. (혼자서 끓여 먹고?) 그럼! (집에는 며칠만에 한 번씩 들어오시고?) 집은 집에 와서 살어 집에 와서 자구, 시간 되면 가가지고 가르키고 오고 그러더라구. 그런가부다 하고 살은 거지 그 때 뭘 알아. 스무 살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6개월 사셨다고요?) 응

조사자 :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제대를 하신 거죠?

구술자 :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난 일은 정말 집안 망신 주는 거여. 제대하고 났는데 어디 머리 들고 들어갈 데가 없어.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네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친정살이를 내가 7년을 했다. (오포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오포로 갔어. 오포가 스물일곱 먹던 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날 입대 사는 거야. (오포로 가서 사시다가?) 친정에서 집 사주고 땅 사주고 해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았어. (거기서요?) 응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데 (7년을 더 사셨구나!) 7년을 거기서 살았어. (그 때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양반이 이거를 좋아해 그러는 바람에 (뭐요? 화투) 응. 왜 화투를 좋아하는지 군데서 그런 거만 배웠는지. 그래가지구 뭐 친정서 해준 땅이구 뭐구 집이고 다 팔아 먹구서 서울로 올라왔지 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겠어. (올라오실 때 저기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은?) 말도 못하지 그거 말루다 다 하면 뭘해요. (말로 좀 해주세요!) 고생한 거를 뭐 말루다 해, 막말루다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공부도 못 가르켰지만, 그래도 한글 눈이라도 뜬 줄 알았더니, 제대하고 났는데, 운전 좀 하래도 운전도 안 해, 뭐 하래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설마 저기 군대생활을 한 8년씩 했으니까 입은 뭐 모르는 말이 없어 그냥. 그런데 뭘 하나라도 해야지. 아이고 그래서 고생 좀 했어 내가. 한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 고생 살다가 세상 뜨시고 나니깐 어째든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아들 오형제 다 장가들이고 살았는데. 살아온 게 뭘 재미있는 얘기라고 얘기를 해여 그거를.

조사자 : 아 그거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오포에서 7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오포를 떠나실 때 어떤 계기로 해서 떠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구술자 : 떠나게 된 계기는 나가서 3일을 안 들어와. 그래서 인저 3일 만에 들어온 거를 뭐라고 내가 안 좋은 소리로 씹이 안 되나 그런. 그 때 애를 셋을 낳고 사는데. 뭐라고 하니깐 처갓집 근처에서 안 산다고 나가서 사랑방에 가서 집을 내 놓으니까 그 이튿날 아침으로 집이 팔려. (집을 누가 내 놓으셨어요?) 누가 내놔. 친정서 사줬어도 자기가 남편이가 내놔지 사랑방에 가. 그러니까 그 이튿날로 팔려. 팔려서 (그 때 가격 같은 거 기억나세요?) 가격 같은 게 생각하며는 지금이라면 한 천삼백 원인가 되나 천삼백 원밖에 안 되는 거 같

어. 근데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다섯 칸 반 7자집인데도 괜찮아, 우물 파고  
 괜찮은 집인데. 그런 집 살다가 (이튿날 팔려서) 집이 팔리니까 어떡해. 그래 또 서울을 갔  
 다 오더라구. 갔다 오더니 서울로 이사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서울서 살던 사람이니까 서  
 울로 가면 집 가지고 살면 괜찮으려니 하고 갔더니, 이사한다고 해서 차를 끌고 왔는데,  
 그 때는 8톤 차가 와서 차를 끌고 왔어. 시골 살면... (8톤)

구술자 : 논산 저 농사지은 거 쌀이고 뭐고 곡식이 한 열댓 가마씩 되니까 진땀 싼고 살림 싼  
 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정릉으로 가더라구. 근데 광주는 그 때는 오포에는 저저여 전  
 기불을 키고 사는 데서 살았는데. 그 때 최인규 저기 했을 때거든. 전기 일찍 들어왔어. 아  
 정릉으로 들어갔는데 아 북악대 그 산속에 포장치고 사는 데 그런 데를 갔어. 등잔불 키는  
 데로 가더라고. 그런 데로 가가지고 내가 살았어. 살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니까 못  
 살것어. (정릉에서 그렇게 힘드셨어요?) 농사를 지어는 걸 갖다가 그래도 일 년 먹을 양식  
 을 가져왔는데 쌀 한가마 굴러내가, 왜 쌀을 어따 저기 하니까 누가 꾸어 달랜대. 그러니  
 까 이거 허구서 또 갖다 팔아먹는 거야. (일 년치 농사지은 걸 가져와서) 먹으면 살 텐데  
 그러더라구.

구술자 :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 못 살겠다고 인저 또 친정에 뭐라고 그러니까 친정에서  
 마장동에다 쪼그만 삼칸 짜리 방을 집을 하나 사주더라구. (마장동에다가) 그래서 마장동  
 으로 왔을 적에 죽은 동생이 말띠니까 지금 육십아홉 됐나 그러. 그래는데 개가 경희대학  
 생 됐어. 그래서 경희대학 다니는 개하고 그 친구하고 하숙을 쳐 가면서 내가 살은 사람이  
 야. 방을 두 개 짜리 저서 우리는 하나에서 살고 인저 동생은 거기서 하숙치고 살고. 거기  
 서 그럭저럭 그럭하고 살다 안 해 본 게 없지 뭘.

조사자 : 마장동에서 뭘 하셨어요 하숙 말고?

구술자 : 마장동에서 거기서 살다가 거 답십리 인자 뚝방을 답십리 뚝방이 있었어 그 때. 답  
 십리 뚝방에 가가지고 장사 했어 또. (무슨 장사요?) 술 저 술 팔고 그러는 거 또 여인숙  
 을 하더라고. 여인숙 얻어서 가가지고. 그 때는 난 철도 없이 가서 허재면 그렇게 하는 걸  
 로 (누가 허재? 아~ 남편 분이 하시자고?) 아 인자 그렇게 술을 먹어 하니까 이거 ((새끼  
 손가락을 들어보이며))가 있었나 봐. 이걸 데리구서 그리 가서 했어. 같이 인저 짜고서는  
 그걸 얻었는지 어쨌는지 나는 멋도 몰르고 갔는데. 뭐 저기하더니 나중에 그 여자가 가버  
 리더라구. 그러니까 거기서 인저 몇 달 하다보면 나도 배워서 같이. 장사는 내가 설거지하  
 고. 그런 건 팔았지 뭐. 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인저 성남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조사자 : 왜 그거 계속하시지, 별로 할 마음이 없으셨구나!

구술자 : 술 저거라구 안주 하고 허니까. 그래서 성남으로 들어온 거여.

조사자 : 성남으로 하필 성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때?

구술자 : 그 때 당시에 우리 바깥양반 그 친구들이 하나가 답십리 불이 나는 바람에 답십리 뚝방에 불나는 바람에 (그게 칠십 몇년 칠십오 년인가 그런가요?) 아니야. 그 때가 71년돌 거야. 71년돈데, 불나는 바람에 일루다 왔어. 그때 보상받아 가지고서는. 그래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 가면 괜찮다. 집장사한다고, 마장동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집 장사한다고 땅을 사났는데 그 놈의 게 팔리냐. 72년도에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안 돼 가지고 집장사도 못하고 그러구 있었지 뭐. 그래 살아간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어떻게 있어. 어 진짜 집안 망신이지.

조사자 : ((웃음)) 성남에 오셨는데 수진동 이쪽으로 풍경이라든지 주변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처음에 왔을 때, 딱 옮겨 왔을 때, 그 때 뭐 트럭 타고 오셨나요 뭐 타고 오셨나요?

구술자 : 그 때 버스가 맴기는데 서울서 마장동에서 버스를 타면 성남에 오면 한 시간이 더 걸렸었어. 그런 데를 저기를 왔는데, 내려가지고도 먹고 살 거가 없어서, 순대장사를 했다 내가. 처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서울 가서 순대하는 사람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순대장사를 한 (서울 가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서울 마장동 사는 내 옆에 사람이 순대장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순대를 허는 걸 배워가지고 내가 순대 장사를 했어. 순대장사를 해서 그럭저럭 괜찮게 했는데. 그 인저 여편네가 여자가 별어다 주는 걸로 먹고사는 거가 아니꼬운지 아~ 술만 먹고 저 뭐라 허더라구. 그러길래 요기 중앙시장에 그 다이를 하나 해 얻어줬어. 장사하라고. 세를 얻은 거지. 그리고 세 얻어서 허라고 주구 나는 순대장사를 하는데. 이거 안 팔리며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가지 오이 이런 거는 갇수가 있어서 텃을 주면 못써요, 딱딱 저거하며는. 술 한 잔 먹으면 막 퍼주니까 본전이나 나오나. (그러면 야채?) 그럼 야채장사를 하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구. (또 인심은 좋으서 가지고 퍼줬구나!)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니 거니 내 거니 막 퍼 줘. (저녁에 보며는 본전도 안 받고)

구술자 :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것어서 그것도 이제 내가 집어 치우고. 여기 저 시장 수진 신흥동 있을 땐데. 만화가계를 내가 집에다 채렸어. (신흥동에 계실 때?) 신흥동에 있을 때. 만화가계를 차렸는데. 만화도 물건을 들여놓고 다 적고 해야잖아, 물건이 나가고 그러면 새로 들어오고. 그래 그거를 허구 있는데 또 뭐 장사를 한다고 그래. 무슨 장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장사한다고. 그래 돈이 없으니까 진짜 이게 기가 맥힌 거다. 당신 누님한테 가서 지금으로 이르면 2천만 원이지만 그 때는 20만 원이야. 20만 원 빚을 얻어다가 저기 중앙시장에다 용강상회라고 상회를 만들어 놓더라구. (뭐 파는 가겠네요?) 용강상회라고 시골서 물건 들어오면 하 하주 주구 그러는 걸 허더라 말이며. 그거를 하는 걸

내가 못하게 했더니 안 된데. (왜 못하게 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만화가게를 이거를 하는데 이걸 안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안하고 앉아있길래 못한다고 그랬더니, 가서 얻어다가 했어. 못 믿어워서 3일 되는 날 나갔어. 내가 그래도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나? (거기를?) 3일 되는 날 나갔더니, 물건 나갔으면 작발 들어온 돈이 맞아야 하잖아. 다 돈을 따지고 나니까 돈이 10만 원이 온 데 간에 없어 3일 동안에.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된 거냐, 왜 돈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때 가서 나한테 쌍소리를 해면서 진짜 나와 보지, 내가 못하는 줄 알면서 안 왔다고 뭐라 하잖아!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만화가게 하던 걸 집어 치우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그 때 20만 원이래도 지금 2천만 원보다 더 큰 거 같아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인저 그거를 복구를 할라니 어떡해. 진짜 광주하고 용인하고, 광주 쪽에는 우리 부모님들 살던 데 내가 살던 데니까 가가지고 무조건 발을 내가 그냥 가서 내가 발을 산 게 아니라 야채발을 야채만 산 거야. 사가지고 거기서 팔랑무니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해서 차로 싣고 와서 팔고 팔고 했더니 돈이 그거를 복구를 해놔서. 금방 몇 번 하니까 복구가 되더라고.

조사자 : 할머니 수단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구술자 :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어영부영 그걸 허다 보니까 7월 달부터 허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김장이 되잖아. 김장 때가. (그렇죠!) 아 근데 돈이 좀 몇 푼 있으니까 또 자기가 나가서 발을 산다고 가서 사! 사러 갔다 몽땅 가 쏘아서 샀지. 왜 속아 샀느냐?! 김장 발이라는 건 살 때 그게 지네발 병이 있나 뭐가 없나, 뭐가 들어있나, 또 이 저 딸랑무를 사먹는 발작을 세서 이게 몇 단이 나오나 그걸 풀이를 하고 사야 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몰르고 그냥 덩벼거리고 샀단 말이며. 샀다가 갖다 팔을래니 다 병든 걸 샀으니 그 어찌냐. 쏘딱 망했지 또. 또 어떻게 어떻게 마련하가지고 또 마련해서 어떻게 해 놔더니. 그것도 또 차가 김장 때는 조그만 차로 딱 받아가지고 팔고 또 사고 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큰 차로 바퀴 여덟개 달린 큰 차로다가 뭘 놈의 배추를 담뿍 사놔서. 사놔가지고 그놈의 거 남의 김장 다 팔 때까지 파는데 파는대로 가 술을 먹고 저저 빚을 담뿍 저가지고 빚을 못 이겨서. 우리 양반이 빚을 못 갚아 가지고, 20만 원이 빚을 얻어서 또 이자 갚고 빚을 얻어서 이자 갚고 1년 돌 딱 되니까 80만 원이 돼. 오막살이 집 있는 것도 자기가 산 것도 아니야. 부모가 다 사준 건데 그걸 팔을라고 들먹거리. 글면 그걸 팔을려고 할 때 얼마 보느냐 85만 원 봐 그거를. 그럼 그걸 팔아서 빚잔치를 하게 되면 빚을 다 갚아야 하잖아. 빚 갚으로 막말로 어디 가서 머리 들고 들어갈 방을 얻어야 하잖아. 없어 그런 게 그렇게 험해. 그래서 그걸 내가 못하게 절대 집은 못 판다고 그랬더니 거기 못 이겨서 나를 못 견뎌, 꺾지를 못한 거지 한마디로 나를. 그래서 당신은 그냥 당신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

리고 그냥 혼자 살아간 게 이날 살은 거다. 이럭허구 사는 거야.

구술자 : 근데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연치 않게 내가 재수가 있어서 그래는지. 그나마 집을 못 팔겠어두 또 그 당시에는 배추 김장들을 보통 집이서 한 점 점 반 두 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허던 내가 장사가 있으니까 밭을 가서 사 시골 가서. 밭을 사서 김장해서 팔게 되면, 밭을 조금씩 갠터라구. 그래 인저 2년 해서 나오니까 그 밭을 다 갠터. (80만 원 을?) 그 밭을 갠고 나니까 집이 살아 있잖아 밭을 갠았으니까. 집을 살았으니까 집이 얼마 안 있다가 한 마디로가 복덕방하는 사람이 집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면 줄래 그러니까 그 때 3년 났을 때야 딱. 그래 75년도에 세상 쓰셨는데 77년도에 150만 원 준다고 그래. 그래 150만 원 받고 팔았어. 150만 원 받고 팔고 지금 이쪽에 신흥동에 수진동으로 이사와 가지고 330짜리 집을 또 샀어 내가. 큰 거를. (좀 밭을 얻어서 사야 되겠네요) 밭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쪽엔 방이 두 개 짜리니까 하나 밖에 못 놔두 여긴 방이 여섯 개 짜리야. 그리고 사유지를 침범했어도 터가 넓고 집이 커. 그거 빨간 벽돌 2층으로 지은 거니까 괜찮더라고 가게가 둘 있고. 그래 준공이 안 떨어졌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허는 일인데 못 허랴! 그런 배짱이 있어서 샀단 말이야. 그 때 가선 내가 운이 좀 있었는데 석 달이 안되 가지고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가. (아! 석 달이 안 되서!) 그러니까 150만 받고 팔고 330을 주고 샀으면, 두 채 값이 넘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한 60만 원을 우리 내 밑에 동생이 안양서 곧잘 살았어. 과천서 살았는데, 가서 이러저러 한테 좀 달라 돈 좀 도라 하니깐 저희도 돈이 없는데 가서 농협에 저희 집 잡혀 가지고 돈을 60만 원을 해줘 가지고. 난 동생 때문에 살았어.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도와주는 바람에 그 집 가지고 그냥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니깐 방값도 올라가잖아. 방값이 올라가니까 올려 받아서 밭 갠다 갠으니까 밭은 다 갠아지더라고.

구술자 : 그리고 나선 얼마 안 있다가 인저 그 당시에 저 아버지 돌아가면서 큰아들이 군인 갔는데. 군인 갔으니 뭐 돈 벌어주는 놈은 없어 그냥. 벌여가지고 애들 때 기술 배울 때는, 지금은 기술 배워도 돈 주지만 옛날에는 기술 배우면 돈 못 받고 다녔어. 구두 기술을 배우러 땡겼는데 (어디로 다녔는데요?) 칠성 허구 뭐 칠성제화인가 보다 그 때. (이 쪽 어디 근처에 있나요?) 저기 을지로6가. (아 그 쪽으로?) 근데 여기서 차비는 맨날 내가 대 줘야 해요. 기술 그거 한 일 년 반이 되고 나니까 겨우 차비 타가지고 다녔어. (아! 거기서!) 그 래가지고 그래도 이쪽으로 이사와 가지고 애들 저거하고,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인저 장가들고. 나이가 먹으면 장가들여야잖아 부모니까. 그니까 스물일곱 먹어서 아들 장가 들어서 살림 뉘러니까 죽어도 살림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살다가. 손녀팔 둘 낳아가지고. 아들 손주는 없어 큰아들한테. 딸 손주만 둘이라도 그래도 재밌게들 잘 살

고 저들 재밌게 잘 지내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저기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그래도 장가들어서 집들은 오막살이 집이라도 난 다 집 사줬어. 내가 그래도, (할머니가 거인이시네 거인!) 내가 애들이 벌여준 거 아니래도 내가 무슨 수단으로래도 다해서 집장만은 다 해줬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구술자 : 근데 그 그런 거 살아가는 거는 별거가 아니지만, 이런 데 와서 회장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니까.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말 많고, 여자들 저거하고 남자들 저거하고 이게 골치 아파. 살아가는 거는 말 못 하지, 그러니깐 장한 어머니상도 타고 그래도 그런 거 다 해 타 봤어. 남서방네서.

구술자 : 진짜 이 소린 내가 해야겠다. 우리가 그 족보를 만드는데

조사자 : 이게 언제 적 애긴가요? 지금 하실려는 애기가?

구술자 : 그 때는 우리 아저씨 살아서야. 족보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내가 준 생각이 나 인저 사춘 동세가 와 가지고. 그리고 몇 년 3-4년이 지났는데, 인저 우리 인저 먼 친 당숙네가 큰집이니까, 거기 가서 아저씨 족보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족보를 내놓는데 우리 식구가 싹 빠졌더라구. 그러니깐 우리 사춘 시아주버님은 옛날에 그 연세래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머는 우리 식구를 다 넣어야 할 거 아니야. 작은 아버지는 넣구서는 인저 형제들을 넣어 뵈어야 하는데 싹 빠졌더라구. 그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부애가 나는지, 우리 식구가 없으니 얼마나 부애가 나! (돈도 냈는데!) 응 그 이듬해 그러다 세상을 뜨셨어. 우리 바깥양반이.

구술자 : 그래는데 내가 이러다가, 그 때는 내가 이러 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때니까. 이러구 땡기다가 내가 퍽 허니 사고라도 나서 죽게 되면 우리 애들이 돌난 거 밖에 안 되겠다. 그런 바람 그런 생각이 부쩍 들어가고 안 저저하더라구. 근데 그해에 칠십 저기 그 해가 75년도인가 76년도인지 우리 남서방네 종친회에서 염서가 왔더라구. 보니까 저 사그 막골 버드나무 밑으로 모이라구. 그래서 그걸 보구서 가지고 갔어. 갔더니 누가 남서방이네? 내가 남씨냐 바깥양반이 남씨냐? 그래서 바깥양반이 남씨네 바깥양반이 세상을 뜨셨는데 이런 거가 온 거를 보고 안 오머는 이게 뭐가 남서방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몰라서 왔다고 그랬더니. 참 고맙다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환영을 해 주더라구. 그래구 나자 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앉아서 얘길하다 보니까 거기 회장을 알게 되잖어. 그 때는 내가 나이가 마흔두살 밖에 안됐다. 한창 젊을 때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네 집이 어디 아무게 상전 어디라 그랴. 그래서 한 날 거길 찾아갔어. 찾아 갔더니 족보를 내놓는데 여기서 하여튼 이 줄루다 대는데 다섯 줄을 내놓더라구. 옛날엔 이렇게 손으로 쓴 거니까. 근데 아는 거라구는 의령 남씨고, 한마디로 인저 우리 큰 시

아버지 함자는 다사오자 정오씨라는 거 알고, 우리 사촌 시아버주머니는 저기여 윤이래는 거 구름은 자 적어서 윤이래는 거 그것만 알구서 찾는데 거기 장조카가 상화가 있어. 그 이제 삼대는 아니까, 냉기다 보니까 뭐 정오라는 양반이 한 장 건너 정오야. 같은 이름이 그렇게 많아. 같은 남서방네래두. (그렇죠!) 그래 어느 파에 인저 그게 다르잖아 그래 나오면. 그걸 아마 한 30분 앉아 찾다보니까 나오더라구. 그래 인저 우리 큰 시아버니가 나오오 사촌 시아버니가 나오구 장조카가 나오오 그래. 그래서 고기다 이제 뿌리를 찾아서 우리 시아버지 함자 넣고 우리 영감하고 애들 다섯 넣어가지고 족보를 다 인저 뿌리를 찾아놔어.

구술자 : 근데 이제 한 2-3년 지나가지고 우리 저기 아저씨 되는 분이 족보를 새로 모신다니까 족보를 새로 낼 테니 돈 5만 원을 부쳐라 그래. 족보 이래 저래 해서 찾아놔다. 그랬더니 판 파에다 갖다 넣었으면 안 되니까는 돈을 내라 그래. 그래 돈을 줬어. 돈을 5만 원을 부쳤는데, 한 3년 있다가 돈이 도로 왔어. 돈을 어떻게 저저 하니까, 진짜 조카는 뿌리를 잘 찾아서 넣었다 그랴. 뿌리 안 찾고 아무데나 집어 넣갔으면 내가 왜 찾아.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지.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서 남서방네서는 나를 우습게 못 보더라구. (아! 그렇죠!) 우습게 못 봐. 그리고 그런 족보에 대해서 그런 뿌리를 찾다보니까 남의 족보에서도 그 뿌리 저 그거를 항렬을 알려면 7대 항렬만 알면 다 알아. (그렇죠!) 내가 여기 가운데라면 우루다 3대 알고 밑으로 3대 알고 7대만 알면 그 족보의 내력을 다 알게 되더라구. 그래 내가 그런 것도 다 찾아. 그렇게 살다보니까 사람은 이상스럽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땀기다 보면 머리가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 (돌아가고 트이고) 돌아가고 트이고.

구술자 : 그리고 한 어영부영 이라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한 3-4년 전이야. TV를 딱 보니까 6.25 참전자가 나오더라구. 6.25 참전자가 나오길래, 6.25 참전자는 우리가 6.25 참전자니까. 뭐 산 저기한 건 아니래두 전사자는 아니래두. 가만히 여기서 따질 거가 아니라 병무청에 갔어. 수원 병무청에. 큰 아들하고 큰 며느리하고 데리고 개가 차가 있으니깐 차 타고 인저 가서 병무청에 찾아 들어가니깐.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서 6.25 참전자 무슨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내력 좀 알아볼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6.25 참전현 양반들이 살아 계셔도 좋은 데 갈 수가 있고 뭐 살아있으면 돈 몇 푼 나오는데 돌아가신 양반한테는 돈은 없어도 어디 좋은 데 호국원 같은 데 모신다고 그랴. 그래 인제 국군묘지 같은 데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엔 우리가 저저해서 남의 산에가 계셨거든 우리 영감님이. 그런데 그거 몇 개월 안 살았아도 이 머리에 군번이 안 잊어버렸어. (그래요? 남편 군번을 외우고 계시네!) 그래 군번이 안 잊어 버렸다고 그래 여기서. 그래

서 군변을 째 대니까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요?!) 딴 사람은 와가지고 본인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본인도 군변을 모른다고 못 찾고 있는 거를 옆에서 봤단 말이여. 근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군변을 대주고 나니까 이름이 나와.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영감님 이천호국원으로 모셨어. (이천?) 이천, 여기 이천. (이천호국원?) 이천호국원. 그리로 모셨어. (삼년 전에?) 아니 모신 거는 일 년 조금 넘었지. 찾은 건 그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양반들도 사회에서 나쁜 일 한 사람들은 못 가더라구. (그래요? 그걸 다 조사를 하나 보죠?) 다 조사해. 다 조사하고 나쁜 일한 사람은 막말루다가 빨간 줄 호적에 빨간 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못 가더라. (그렇겠죠!) 이러쿵 저러쿵 해서 조사할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구. 조사해 보라구 그랬더니 두 달 있다 연락이 와서 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호국원으로 모셔서 지금 호국원에 2단지로 들어가서 계셔. 나도 죽으면 그리 갈 거니까. (그 옆으로?) 그 옆으로. 딱 해서 낚으니까 그리 가야지 인저. 하하하 내 말하는 건 그 말 밖에 없어 저기허구. 막말루다 나이 먹어 가지구 이런 데 와서 이럭허구 저럭허구. 오늘도 이거 웃음치로 하러 가면서 앞에 가 앉았다가 뭐라고 했다가 내가 깔깔대고 웃었더니 내가 그래도 뭐 타가지고 왔잖아. (뭘 타셨어요?) 손선풍기. 손선풍기 뭐 저저하는 거 상 준다고 그러더니 내가 저저 하니까 날 찍어가지고 나 혼자 타가지고 왔어.

조사자 : 아까 그 만화가게를 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화가게를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 : 애들이 그 때는 남의 집 만화가게를 그렇게 땡기더라구. (자제 분들이요?) 그래 그러니까 TV 하나 사다 놓고 만화가게 해놓으면, TV 보고 만화 보느냐고 애들이 와. 그럼 그 당시에 아들이 다섯인데 뭐는 없었어. 주먹 쓰는 놈이 있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공부 안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없었수?! 그러니까 그런데 안 보낼려구, 그래서 만화가게를 차렸던거지.

조사자 : 어~ 만화가게를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차리는 걸 궁리를 하셔서 차린 거예요? 만화를 어디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만화도 인저 만화 저기에 가서 사 와야지. 저기하면 그 협회가 있어. (만화협회?) 거기 가서 우리 인저 무슨 만화가 없다고 하면 지금 저기만 하면 다 와,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번 채워놓으면 새 물건이 들어오면 현 물건 가져가고 새 물건 갖다 놓고 그러더라구. 그래 인저 그거. 이를테면 지금은 그거 백 원 천 원일 테지만 그 땐 10원일 때지. 10원이면 몇 권 보는 거 그렇게 그거 해가지고 해서 해구 그랬지 뭐 (애들 때문에 만화가게를 하셨구나!) 그렇지. 그 당시에는 우리 넷째하고 셋째가 남의 만화가게를 그렇게 가더라구. 그러니까 인저 우리집이 상가가 돼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가가 돼 있는 집이니

까 만화가가게 차려도 되니까 거기다 만화가가게 차렸었어.

조사자 : 만화가가게를 차렸더니 그 셋째 넷째 분?

구술자 : 저희가 그걸 되레 저희가 그걸 맡아가면서 내가 해도 저희가 관리를 더 하게 되지.  
하고 저희가 TV 옛날엔 테레비가 어딴어?! 테레비 사났으니 텔레비전 보구 해서, 그래서 만화가가게 했던 거구.

조사자 : 그러면 생각하신대로 됐네요. 아들 분들

구술자 : 근데 그래두 공부는 못 가르켰어도 우리 큰아들은 딸 형제래도 하나 시집가고 하나는 그래두 큰 딸은 잘 풀렸고, 둘째 아들도 저 그냥 괜찮고, 셋째두 그래두 우체국 댕기면서 집배원으로다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두 저희 먹고 살기 괜찮어. 그리고 또 넷째 아들은 저기야 여기 광주 오폐 매산리라는 데서 합지 비니루 합지 공장을 해, 그러니까 종업원 몇 사람 두고 공장하고, 또 막내는 그건 또 적금 가방줄이 길다고 그래두 전문학교래도 보냈더니 지가 잘 풀려서 그러는지 지금 베트남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개 명의로다 채리더라구 거기를 그냥 회장 가서 못하나 봐, 회장이 얻어놓으면 회사서 얻어놓으면 거기다 회장이라는 사장을 앉혀놓나 봐. 그래서 지금 임시사장으로다 해서 개가 책임자로 있어. 사는데는 그러니까 아무 저기도 없고, 남한테 궁색하진 않게 내가 이러구 사니까. 이것을 나는 대복인 줄 알고 나는 행복인 줄 알고 살어.

조사자 : 그렇죠! 행복이죠. 자식들 잘 크는 게 제일 큰 복이죠.

구술자 : 그리고 손주 손녀가 열인데, 다섯 다섯이여. 그래두 아직까지 말썽부리는 놈 없고. 지금 중학교 인저 1학년짜리가 제일 인저 막내아들한테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있고, 셋째 아들한테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고거가 제일 적은 거여.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있고, 다들 학교 가방 잘 들고 댕긴 댕지. 이런 골목에 애들 몰려서 못된 짓 하고 댕기지 않고 그러지 않고 댕기는 것만 내가 행복인 줄 알고 살아야지. 다른 거 행복인 줄 알면 안 되지. 사람은 올려다보고 살면 못써 내려다보고.

조사자 : 할머니 6.25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6.25전쟁 한참 날 때?

구술자 : 사연이 깊지! (그래요? 그 얘기를 좀 재밌게!) 6.25 난리 나던 해가 우리 그래두 시골서 살아두 저기여 괜찮게 사니까 일꾼이 아버지하고 아들 되는 사람을 부재를 뒀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서울을 간다고 갔어. 그래 쿵쿵쿵 하고 그래니까 아들이 난리났다 그 러구선 아들이 쫓아가더니 그 사람들 행방불명 되서 모르는데.

구술자 : 그 때는 비행기가 파양 하고 나타나고 삼자루를 이러구 미구 가면 총인 줄 알고 기관총으로 쏘구 댕겼어. 저 비행기가. (삼자루를 미구?) 그럼 그 때는 삼에 물꼬 보리 가면 이렇게 미구 가지. 그럼 총 민 건 줄 알고, 비행기에서 보고 총질하고 그랬어. 그래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게 남한 쪽 비행긴가요? 북한 쪽 비행긴가요?) 남한 쪽 비행기지. 북한 쪽 비행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 쪽엔 없었으니까 남한 쪽 비행기데도, 총미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기관총 같길 때는 인민군 있을 때니까. 인민군들 있을 때니까 인민군들이 총미고 대니는 줄 알고 총질을 했지.

구술자 : 그 당시에 내가 열일곱 살인데. 그래도 그 때도 내가 좀 저기 하게 했는지.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저기해서 내가 반장을 다 봤어. 인민군 반장을. (아! 그래요!) 일을 보라 그러드라구. (그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반장?) 반장 일이라는 건 동네, 일 부역 나가라고 내보내고 저녁이면 맨날 회의하니까 회의에 가라고 가서 끌고 나가고. 그게 일이었어 2개월 동안은. (2개월 동안 그거 하셨어요?) 2개월 동안 했지. (어쩌다 그걸 맡으셨어요?) 6.25 나가지고 저기 9.18 아니야. 그러니까 7월 8월 9.18. 9월 18일 날 이 쪽에서 왔으니까는. 딱 두 달 동안 처음에는 와서 한 달 동안은 조용했어. 한 달이 넘어가니까 전부를 회의한다고 아주 넓은 마당있는 집으로는 저녁이면 가서 회의 참석하러 가야 해, 회의 안 가면 큰 일나. (가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전쟁에 대한 얘가지 뭐. 저희가 저기해서 지금 우짜고 저짜고 나오고 저러니까. (잘 이기고 있다고?) 그럼! 잘 저거했다고. 그런 거를 그 동네서 우리 당숙이 면장을 봤는데. 그래도 그 양반이 워낙 깨끗하니까는 우리 동 그 동네서는 빨갱이가 없어 그 동네서 만큼은. 근데 면내래두 고 한 두 동네 건너가는 동네는 그 동네 자체가 빨갱이 동네야. 빨갱이 동네야. 그럼 그 빨갱이 동네서도 황서방네가 있어. 그래 인제 우리 당숙한테 와가지고 대무 동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했단 말이야 그 때. 그러니까 이 자식아 친구도 동무가 뭐냐. 그래가지고 발도 못 들여놓게 했거든. 그렇게 하나씩 얼마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양반이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어 6.25때. 돌아가시고 났는데.

구술자 : 그 당시에 날 보고 반장을 보래서 반장을 보는데 서숙 이삭 뽑아다가 서숙은 한 이렇게 이삭에 대롱대롱 매달렸거든. 그러면 서숙 이삭 갖다가 알갱이 시라고 ((세라고)) 그게 전달되고. 베 이삭 베 이삭 알갱이 시라고 나오고. 콩꼬투리 시라고 나오고. 그런 거 한 거야. 그거 그 때는 그런 것 밖에 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수확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알려달라고?) 응 그거 몰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느냐. 서숙 알갱이는 천 알도 넘을 거야 실래면. 이걸 어떻게 시느냐. 고 한나 달린 걸 딱 따서 부쉬. 그래 한 그래 내가 볼 때는 한 50개 이상 나와 알갱이가. 그럼 고저 시어. 고저 시고 고 알갱이를 시어. 곱해. 그 당시에 도 내가 좀 머리가 있어서, 은행에다 취직시켜 준다고 그랬거든. 그래도 그 때 학교 선생님이. 근데 6.25가 나는 바람에 내가 못갔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알갱이를 시어 그리고 곱해 그러면 답이 나와. 서 저 벼 이삭도 가다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잘된 가닥 말고

중간 가닥을 하날 뽑아 고서 알갱이 시어. 곱해. 알갱이 수 나와. 또 감자 한 바가지 캐, 거 서 키로 달아. 그래서 그걸 또 그런 몇 포가지 몇 포가지 해서 키로 달아서 얼마씩. 그런 거 했어.

구술자 : 그런 거 허다가. 그래니깐 1.4후퇴 때 피난을 나갈래는데 그 땐 도민증이 있어야 나가 피난을. 도민증 없으면 못 나가. 그런데 일차 내가 걸려서 도민증이 없어서 피난을 일차로 못 갔어. 그래 인저 이 사람은 이걸 허구 싶어 한 게 아니라 살라고 현거지. 그 동네는 빨갱이 동네가 아니니까. 이거 허구 싶어 현 거 아니다. 우에서 시키니까 했지. 이거 억지루 현 거라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2차로 도민증이 나왔어. 나 그런 세상을 살아봤다. (그렇구나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큰일 나지. 그 당시에든 그거 저기라면 인민군한테 끌려가구 그런 사람이 있었어. 고 웃동네는. 근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지. 동네 자체가 깨끗한 동네가 있었어. 빨갱이 동네가 따로 있고 그런 동네가 있지 지금도 아냐. 무슨 난리났다면 그런 빨갱이가 더러 한 군데서 몰아 나올 거야. 그 동네 그 옛날에 그 동네가 있어. 하루저녁에 제사만 몇 사람 몇 집이 제사 지내는 집도 있잖아. 하루 저녁에 몇 집이 제사지내는 집이 있어. 그쪽 동네는. (그 동네가?) 그럼. 막말로 데려다 총살시킨 사람 거기 있잖아.

구술자 : 그 당시에 막말로 6.25 때 지금 젊은이들은 몰르는데, 어떤 사람이 한동안 복침했다 소리를 해. 그래서 절대 복침은 아니다. 내가 복침 아닌 거는 아는 거가 제대할라구 그러는데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데 막말루다가 납침을 헐 저기 복침할라구 그러면 제대를 시키겠어. 휴가를 못 보내지. 휴가를 안 보낼 거 아냐, 우리가 복침할라구 그러면 묶어 놔야지. 근데 그 때 뉴스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들 휴가를 6.25 때가 일요일이 켜었어. 일요일이 켜는데, 일요일 꺾가지고 그 때 마지막 휴가들을 휴가나간 사람이 많고 이제 부대가 텅텅 비었다고 그 소릴 내가 들었다구. 그래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르며는 복침했다고 그러는데 복침이 절대 아냐 납침이지. 그 엇그저께 중국서 무슨 저거가 나오면서 납침했다 소리가 처음 나오더라. 납침한 거는 확실한 거고.

조사자 : 성남으로 처음 오셨을 때 그 첫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때는 막 분양지 나눠주고 천막치고 살았다고 그러던데.

구술자 : 그 당시에 집장사할라고 서울 마장동 집 팔아가지고 와서 저기 했단니까. 집을 산거가 집이 있는 거가 (어떤 집을 사셨어요 사실 집을?) 그거 그냥 하꼬방집 하나 샀어. 집터 그거 해가지고 팔아먹고 사고 한다고. 그러는데 팔아먹었으니까 서울서 이루다 이사 온 거지. 72년도에 이사 온 거야. 72년도에 이사 와가지고.

구술자 : 좀 생전 안 그러더니 그때는 또 어디로 날 보고 가자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인제 남

서방네 저기 가자고 그래. 그래서 쫓아갔어. 쫓아갔더니 집안네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기  
 여 자연농원에 저기 호랭이 있는 데가 거기 우리 친산이었었어. (친산?) 우리 친산. (친산  
 어떤?) 우리 산. (선산 이런 거?) 선산이 아니라 우리 친 그냥 진짜 내 산이나 똑같은 거.  
 근데 이제 집안네가 몇 사람이 모였는데, 여가 뭐가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있는 걸 팔아야  
 넘겨 줘야 한다고. 그래구 하는데. 그거가 저기했어도 친 사촌 시아주버니가 있고 사촌이  
 있고 다 있잖아, 육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집안네 십촌 내에는 우리 친산인데 고건 저기  
 하고 우리 시아버지 함자루다가 있는 밭이 5백 평짜리가 있더라구. 근데 가만히 앉아 듣자  
 니깐 이것을 뭐 아무게 앞으로다가 하라니까 즈 아버지 으썬구 저꺼구 해. 그래서 내가 우  
 리 시아버지 함자가 나오길래, 우리 아버지 함잔데 그랬어 옆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영  
 감님이 유복자라구. 그러니까 제수씨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구 나하구 사대질을 해. 그러구  
 하길래 그 당시에 내가 그랬어. "아니 혼인신고 하는데 부모님 함자 안 들어가느냐구!" 그  
 래도 내가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았네. 그래구 하니깐 그 때가 포곡이었어, 지금도 포곡이  
 라고 하지만, 포곡 전대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들 자전거를 타고서 한 10리길 밖에 안  
 돼. 4키로밖에. 그래 자전거를 타고 가더니 가서 호적등본을 떼어 왔단 말이야. 떼어보니  
 까 맞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들 나를 그냥 꿈쩍 못하는 거야. 그 때는 우리 시아버지가  
 살아있어. 그래 인제 밭이 5백평이라는 밭이 인제 이를테면 우리 시아버지 함자를 쓰다 우  
 리 영감 앞으로 떨어졌잖아. 그래 영감으로가 돈이 나온 거가 꽤 많이 나왔어. 돈이 나와  
 서 그 지금 만화가게 했다는 집을 이 집은 놔두고 그걸 또 새로 샀지. 집을. (그것 때문에  
 나온 돈으로?) 그것 때문에 나온 거를. 거기서 인제 돈이 조금 모자라는 걸 친청에서 보태  
 줘 가지고 샀어. 그걸 팔아먹을라고 그러길래 못 팔아먹게 해가지고 그 양반이 갔네.

조사자 : 아니 그러머는 그 산을 팔아서 그 때 자연 용인자연농원??

구술자 :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다가 네 집인데, 네 집이서 판 데 가서 땅을 사서 이장을 모셔  
 야 할 거 아냐. 욕심들이 많으니깐 그냥 화장 모시고서, 다들 이제부터 손에 붙은 밥풀이  
 좋다고, 다들 먹어버렸지.

조사자 :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손에 묻은 밥풀이 좋다고?!

구술자 : 아 손에 붙었으니까 빨리 먹고, 돈이 있으니까 보고서는, 돈 욕심에. 그거가 나왔으  
 머는 그 당시에 재개발 개발되는 데니까 거기 한 평이면 판 데 가면 다섯 평 살 수가 있는  
 돈이야. 그게 한 이정보 되는 거야. 일정보가 이를테면 3천평이거든. 그럼 이정보면 6천평  
 돼. 6천평 되는 걸 막말루다가 저기하고 조금만 사두 배락부자가 되지. 다 노나 먹고서는  
 다. 말로는 샀대. 샀다고 그러더니 몇 년 안가가지고 죽었으니까 다 팔아먹었는데 뭐라  
 고 말해. 우리는 그래도 그 이를테면 할아버지 걸루다 나왔으니까 그 돈을 안 찾았어. 돈

을. 이럴테면 장조카 주구서 우린 그거에다 손을 안댄다 해가지고 우리 거만 받아왔지. 그런데 그거 먹은 사람 더 가난하게 더 못 살더라 지금. 나는 우리는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나아 지금. 집안 내. 다섯 네 집안 중에 우리가 제일 나아. 그래서 종정이 집안 내 거 하여튼 종정 집안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먹으면 절대 안 돼. 하하하하

조사자 : 그렇게 판 땅은 지금 뭐가 됐나요. 그 쪽에 놀이공원 그런 게 됐나요?

구술자 : 호랭이 지금 있구 그런 데야. 사자 있구. 거기가 우리 친 저긴데 이병철이가 산 거 아냐. (아 거기구나) 이병철이가 산 데. (옛날에 자연농원이라고 하던데) 거기 지금 꼭대기 루다가 ????? 다 차고가 됐지만. (거기가 길지인가 보네요. 거기를 가서 그렇게 만들 생각을 했으면 땅이 좋았나 보네요) 좋으니까 그럴 테지. 몰라 우리 남서방네 저기여. 옷테 시제 잡숫는 산소도 그쪽으로 갔거든. 요기 그 때 산소가 우리 12대조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천주교회 있는데 거기 계셨어. 그 양반이 그리구 갔다가 거기 또 개발되는 바람에 남산면으로 가셨어 지금. 남산면에 계셔. 남산면에 계셔. 그래서 그런 요리는 그래서 내가 이 집안내 돌아가는 것두 그래서 내가 더 잘 알아. 집안내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조사자 : 할머니 그걸 그런 걸 잘 아세요? 한번 탁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나 봐요?

구술자 : 들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뛰어댕기면 내가 현지를 겪으니까. 내가 내 손이루 허니까. 내 손으로 하는 건 안잊어 버리거든. (그렇구나!) 말 듣는 거 하고 내 손으로 겪는 거 하고는 또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현지를 발로 뛰댕기면서 했으니까 그건 다 안 잊어버리지.

조사자 : 할머니 봉사활동도 좀 하시고 그랬다는데 처음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 어떤 일로 하게 됐나요?

구술자 : 봉사라는 건 다른 거가 아니지, 새마을지도자라고 하고 부녀회장이라고 그러면 괜히 뭐 한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뭐 해주러 가고. 막말로 수해나면 그 뭐 하는데 가면 쫓아댕기는 게 그게 봉사지.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 뭐 수해 나면 봉투 들고 다니면서 삽 가지고 치워 주구 그런 거 했어. (어디가 수해났을 때? 이쪽 성남에 수해가 난 적 있나요?) 그 때는 여기가 지금 하천 부지가 됐지. 하천 부지니까 다리 놔지. 옛날에는 여기가 개천이야. (개천이었죠!) 개천이었지. 그러면 국제시장에는 장마가 지며는 고이쪽으로다 요 밑에는 다 물이 다 차던 데야. (그 밑쪽으로는 ?) 그럼 그러면 막말루다가 부녀회 그런 거 보며는 뭐 아무것도 안해도 빗자루도 들고 삽이라도 들고서 나가서 한바쿠도는 거지 뭐. 봉사 무슨. (그게 70년대죠?) 아냐! (80년대가요?) 80년대 저기 80년대. 75년도 내가 78년도부텀은 아주 발을 벗고 들어슨 사람이야.

구술자 : 그랬는데 (봉사활동에?) 땡기면서 한번 어디 가서 듣자니까 누가 그래. 우리 머느리는 부녀회하는데 월급을 준다고, 월급을 줘요? 내 신발 닳고, 어디 가서 단체로 모이는데 모임 있어 봐라. 돈 거둬서 부주할 때는 내 살돈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집어서 얼마나 시어머니하고 한데 있기 싫으면 월급 탄다고 그러고 나가 땡기겠어.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이고, 나는 누구와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내 혼자 저기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런 거를 못 저기하는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뛰쳐나올려면 그 소리하고 나오는 거 같어. (아 그렇구나!) (58:00)

구술자 : 그럼 막말루다가 지금 내 이렇지 옛날에는 이런 노인정에 내 노인정에 발 들여놓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야. 가을이 되면 연탄 몇 장씩 해서 실어다 주거든 부녀회에서. 그럼 저 꼭대기 하꼬방 집으로다가 노인정이 있었어. 거 연탄도 갖다 주구, 연탄 갖다 주구 해겨 거기 다. 연탄 실어다 주면 다 해서 저장해 줘야 해요. 그렇게 해. 그런 거 해러 다니는 거. 그런 거가 참 도우려 땡기는 거지. 뭐 다른 거가 아니야. (좋은 훌륭한하신 봉사활동이죠!)

구술자 : 그런데 한 마디루다가 그런 거 혈 때는 지금 나이가 먹은 우리 때가 됐으니까 그렇지 지금 젊은 사람하고 다른 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 남한테 모범이 되어 한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 하유 이런 거 있다고 그냥 남자들 히히덕 거리고 덜렁거리고 안 땡겨 봤어. 그런데 내가 인지 한 20년 넘겨 하고 나서 어르게 시골로 왔다 갔다 애들 때문에 시골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내가 내뻤거든. 내놓고 나니까 말이 많고 진짜 가만히 보니까 눈꼴서서 못 보겠더라. 말이 있고, 그래 어떡 해다 보니까 경로당에 발 들여놓은 것도 한 15년 됐어 내가. 내 젊어섬부터 발을 들여. 내가 환갑을 저 꼭대기 1경로당에서 해먹었으니까. 그래도 거 경로당에 땡겼으니까 거기서 환갑을 해먹었지. 안 저거 했으면 거서 해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거기서도 뭐 환갑 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흔일곱 살이 됐으니까 15년 됐잖아. 15년 됐고, 여기다가 2경로당에 온 지가 한 5년 됐고. 저 꼭대기에서 한 10년 있었고.

조사자 : 아까 홍수 같은 거 날 때 이쪽 수진동은 어떤 모습이고 사람들 삶은 어땠나요?

구술자 : 그래도 성남시는 워낙 꼭대기 동네가 되서 홍수 나도 그런 물난리는 없어. 물난리는 없는데 모란이 한 몇 년 전에 큰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여기는 장마가 지며는 지금은 복개공사하고 그제 없는데, 장마 지면 다 저기여 복개공사 한 밑에서 물이 하수도물이 못 내려가니까 역수를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하수도로다 물이 기어 올라와서 기어올라와 가지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없대 퐁. (요즘에는 배수시설이 잘 되 가지고!) 잘 되 가지고 그런지 요즘에는 성남 쪽으로는 큰 장마가 없었어. 큰 장마가 없었어 내가 볼 때는.

내가 저 마장동에서 살 적에는 그 연탄 대성연탄 공장 앞에 거기 도랑에서는 집 떠내려가고 사람 떠내려가는 건 봤어도 여기서는 그런 거 못 봤어. 여기서는 그거 못 봤어.

조사자 : 이쪽 수진동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사셨나요 그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다양하겠지만? 주변에 사신 분들 주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구술자 : 그 때 당시에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노가다 일이라도 악착같이 하고들 살고 그렇게 저기하질 않았어. 70년대 넘어서 산 양반들은 내가 볼 때 한 7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저기 한테 71년도 아니 69년도부터 여기가 저기한 거야. 69년도에 여기 갖다 놓고 저기했을 때는 딱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말도 못했지.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 때는 그 당시 69년도에 내가 보질 못했어도 가만 얘기 들어 보면 어디 가서 주먹 한 번 쓰고 나면 딱지가 몇 장이 생기고 그랬다니까, 오죽했겠어. 뻔할 뻔하지. 그런데 나는 72년도에 왔는데 72년도부터 와가지고는 집들은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도 하교방집이래두 가만히 보면 그렇게 저기한 건 없어. 뭐 가다 가다 좀 물 나쁜 사람들 손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은 못 본 거 같애. (그렇죠!) 그래도 살라고 그렇게 기를 쓰고. 또 요기 수진동 신흥동에는 한마디로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 전라도 사람들이 단결심이 세거든. (전라도 사람들이요?) 저기 2고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단결심이 시어. 그래서 뭐 어서 싸움이 났다하면 패싸움이 될 때니까 무서워서들 말 안하고.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험한 꼴은 내가 안 보고 살았으니까. 험한 꼴은 안 보고.

구술자 : 막말로 내가 봉사하려 땡기는 거는 한마디루다가 지금은 봉사하기도 좋지. 돈이나 벌려 땡기잖아. 막말로 그 땡 줘니까 내가 지금 같았으면 돈 얼마든지 벌었지. 근데 그 당시에는 해도 봉사해도 돈 없었고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지금은 뭐 요양병원 있다 뭐 있다 어디 가서 파출부 땡겨 돈 벌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뭐 아파트 청소도 있겠단.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없어가지고 악착같이 진짜 나보팀이라도 발장사 해가지고 밭에 가서 물건 떼어다 해서 팔고 시골에 가서 그저 뭐든지 해다가 팔고.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 사는 데는 그래도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쁜 건 없는 것 같애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다고 봐. (나쁜 사람 없다!) 나쁜 사람은 없다고 봐.

조사자 :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살아오시면서 기억 속에.

구술자 : 기억 속에 제일 살기 힘든 거는 아마 한 63년도부터 63년도부터 72-3년까지 (성남 어디서요?) 오기 전부터도 참 너무 돈은 당시는 번다고 버는데 돈 벌어가다 내 주머니에 쥐어본 적은 없어.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당시는 번다고 버는데 내 주머니에 갖다 주지는 않더라구. (직접 다 쓰시는구나!) 그래 이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지

금같이 돈을 벌으면 통장에다 붙이며는 안식구가 만지지만 옛날에는 일을 했으면은 간조를 준다 그러잖아 보름까지 열흘까지. 안 줘! 안 주면 그걸 받으러 댕기면 차비로 다 까져. 다 없어지는 거야. (차비로?!) 저 돈 받으러 댕기다가, 갔다가 돈 못 받으면 속상하다고 세상없이 술 먹어. 돈 받으면 기분 좋다고 받아 술 먹어. 그래 빈털터리지 뭐 맨날, 우리는 젊어서부터도 놀고 먹지는 않은 사람이야 내가. 놀고 먹진 않은 사람이야. 뭐든지 하고 그래도 돈 되는 거는 허구 살았는데. 그렇게 영감 돌아가고 나서는 뺏심 빠지는 일은 안했어도 머리 쓰는 일은 많이 했어. 내가 머리 쓰는 일을. 돈 되는 것도, 복덩방도 해봤고, 다른 거 안 해본게 없거든. (복덩방은 어떤 거?)

구술자 : 복덩방을 한참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데 내가 지금 심장에 링이 두 개가 철사가 들어 들어가 있거든. 심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방을 얻으러오면 데리고 댕길래면 내가 못하고 혈떡혈떡 거리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허다 말아버렸어. 안 해본 거 없어.

구술자 : 내 집을 시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집을 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사야 사면 준공이 떨어져. 그 당시는 2백 주고 허면 산다 그러는 거를 2년 있다가 2천 주고 샀어. 2천을 주고 살 때는 열배를 주고 산 거 아냐. 그런데 그 한 3년 전에 빚을 2백을 얻어서 샀으면 그만큼 안 저기 했을 텐데. 내 집이 있는데 누가 여기 와서 그걸 사라 했더니 그게 아니야. 가만히 있다 보면 땅이 시유지니까 살라고 맨 와서 돌아댕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집이 팔리게 되면 그걸 집을 팔려주 그냥 지금같이 저거면 저희가 못 허는 거니까 내버려둘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사게 되면 집을 팔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안 되겠더라구. 그래서 사가지고 집을 두 채 지어서 그래도 사람이나 집이나 뭐든지 한마디로 집은 준공 떨어지는 게 호적이고, 사람은 호적이 있는 게 호적이 출생신고하는 게 호적이다시피 집두 이게 준공이 떨어져야 집값이 제대로 나가지. 이게 준공이 안 떨어진 집은 가게터래두 가게를 못해. 허가가 안 나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서. 안 되겠다. 집을 두 채 이걸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지어서 한 채는 팔고 한 채래두 똑똑한 걸 맨들자. 그래서 집을 두 채를 지었어. 똑 같으게 25평씩 해 가지고 저거서 50평이 넘는데다가 해가지고. 집을 딱 짓고 나서 빚을 어떡하다 변제해 놓고 빚을 갚아보니까 빚이 2천만 원밖에 안 남더라구 빚이. 아이 이기 이만큼 빚진 것도 저거한 건데 다 집을 지어놓으니까 내 이까짓 것 못 갚으랴. 또 그것두 배짱이 생긴 거야.

구술자 : 그래 집 팔을라고 계약을 쓸라고 그러는데 계약을 썼다가 해약을 하고서는 안 팔았어. 안 팔고 있다고 한 2년 있으니까 그게 운이라는 거야. 나는 운이 있다고 봐 꼭 봐.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돈가요? 이쪽에 집값이 쑥 올라가는 게) 그거가 90년도다. 그러니까 20년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89년도에 88년도에 집 지어서 저 99

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집인데, 하여튼 저기여 내가 1990년도에 집이 별안간 올르더라구. 그러면 집 지어서 천오백에 세를 놓은 거가 지금 5천을 났으면 얼마나 세가 올른 거냐. 그 당시에도 천오백에 세를 논 거가 3년 되니까 3천만 원 세놓기가 우스워. 그러니까 빚 한 채만 한 칸만 저거해도 빚 갚잖아. 막말루다가 셋째 아들이 저 신작서 세 살다가 들어와서 사는데 처음에는 할 수 없어 지하실을 쫓다가 지하실 쫓는데 지하실에는 화초가 안되더라구. 그만큼 안되는 거야 공기가 안 좋아. 그래서 손주는 또 셋째 아들한테서 첫 손주를 낳는데 그래서 그냥 그걸 판 사람들에게 세를 놓고 공장으로 놓고 3층으로 올려 보냈지. 그렇게 해다 보니까지는 그것도 인저 저 살단 거 세 놔가지고 그 저 아주 전세 입빠이 놔가지고 조금 보태서 집사게 되고 집사고. 그러니까 집을 해서 하여튼 다섯을 다 그래서 집을 마련해줬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뭐 남한테 가가지고 아순 소리 안하고 지금 거서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

조사자 : 제일 행복했던 기억 하나만 더 얘기하고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게 기억나세요?

구술자 : 제일 행복한 거는 첫 손녀딸 나가지고도 행복했지만, 고고가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해. 유치원 가서부터 상을 타기 시작하는 애가 하여튼 초등학교 6년 꼭 상타, 중학교 때 상타, 고등학교 때까지 상을 타더니 대학교 가니까 상을 못 타데. 대학교 가면 (대학교는 상을 많이 안주니까) 많이 안줘서 그러는지 대학교 가서 상을 못 타. 근데 대학교 가서 전자과를 갔는데 저한테는 맞들 안했دي야 그제. 그거 가서 지가. 거기 가서 그래도 어떻게 저거 했는지 1년은 공부를 못하더니 2년 되면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4년제 졸업하기 전에 졸업은 그때 2월 달 1월 달에 하잖아. 12월 달엔가 그렇게 하는데, 10월 달에 취직이 되더라구. 삼성에 취직해서 저거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구나!) 지금 손녀딸이 나는 딸이 없고 아들만 다섯이거든. 손녀딸을 그렇게 길러서 그런지 아주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그 보답 더 행복한 게 없지. 삼성에 들어간 지 이제 4년 됐는데 3년을 내리 그제 삼성에서 뭐 행사만 있다 하면 할머니 불러서 꼭 불러서 앞세우고 가잖아. 저 혼자 안가고. 저희 엄마 아버지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저희 엄마 아버지 데리고 가는덴 꼭 나를 앞세구 가. 할머니가 최고고, 우리 할머니가 제일 저거해. 그래고 허니까 자식한테 저거하는 거 보다 손녀딸한테 그래고 그런 소리 듣고 우리할머니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지. 우리할머니 저기하구. 저들한테 할머니가 부끄러운 점은 한 폰 안 했구. 부끄럽겐 안 살았어. 하늘에 도리질치구 어디 가서 남자들하구 뭐 저거하는 거 없이 부끄러운 점은 하나 없이 살았어 내가. 남들 말 저거하구 어찌구저찌구. 그러니까 나한테는 행복한 거야 뭐. 그보다 어떻게 더 행복해. 그

리고 아들 오형제고 며느리 다섯이래두 엄마 말을 제일 아직까지 무섭게 알고, 그래도 아  
직은, 속으로는 욕을 하겠지. 저놈의 늙은이 언제나 죽나 그러구, 그래두 뭐 눈앞에 보는  
데서는 네네 하니까 누가 알아, 아들 다섯도 아직도 그렇고.

조사자 : 참 여기 태평동은 재개발한다던데 수진동은 재개발 안 하나요?

구술자 : 여기도 재개발이지. (그래요?) 그럼. (그러면 지금 사시고 있는 집도 재개발) 재개  
발한다고 해서 이거 두 채서 한 채를 팔았어. 한 채는 저 내 앞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는  
아들들이 아들 며느리가 좀 짬금 등한시하는 거 같어. 그래 한 채 팔아서 수원에다가 여기  
25평 팔아서 수원 27평짜리 4층 집을 사줬거든. 근데 원룸을 사줬어. 아들이 없으니까 그  
래도 집에서 세 나오는 거 늙어서 저희들이 노후대책은 제일 나야. 그래서 아들 없는 아들  
이 더 불쌍하잖아. 딸은 아무리 손녀딸이 잘한다고 해도 아들 없는 아들이 더 불쌍해. 그  
리구 저 마음에 걸리구. 그래서 너희들이 노후대책을 할려면 그래두 이런 거가 더 좋다,  
내가 경험을 헛 거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저 허재는대로 허더라구. 그래서 수원에다  
가 사서 원룸을 사줬더니 세가 그래도 한 300이 나와. 뭐 어찌구 어찌구 하다 보니까 뭐  
라구 뭐라구 하길래. 처음에는 나하구 큰아들하고 계약서에 처음부터 들어가더라구. 그전  
에는 안 그랬는데. 등기를 하는데 계약서가 들어가 가지고 등기가 나. 처음에는 저 아들하  
고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또 얼마를 살다가 죽을런지 몰라도 안 저기하면 다른데 있  
는 놈들은 그만큼 안해 주면 또 거기 넘볼 거 아니야. 안 되겠어. 그래서 며느리하고 아들  
하고 합의를 해서 해줬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  
고 나니까 저들이 어깨에다 힘주고 으쓱하더라구. 뭐라고 하니까, 집 관리하는 거는 업니  
가 와서 관리하래. 관리 안한다. 너희가 관리하고 나를 한 달에 50만 원씩만 딱딱 다토. 그  
랬더니 그런다구 그래. 지금꺼정 만3년이 되는데 50만 원씩 딱딱 부치는데 큰며느리 허  
는 소리는 어머니가 잘 되라고 기도만 해달래. 그러니까 다른 집은 세가 안 나가도 저희집  
은 세가 잘 나간단네. 하여튼 우리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깨끗해. 집이 깨끗하니까 세가 잘  
나가나봐. 그리고 집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차고가 다섯 여섯개 들어가게끔 차고가 있는  
걸 샀어. 여기 아주 차고 없는게 진저리가 나가지고, 그 쪽에도 차고가 없는 데는 이렇게  
집 많이 넣어야 두 대 세대 밖에 못대도 우리는 남보덤 배를 더 대는 걸 사줬더니 그런지,  
차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가 더 잘나가. 그래서 괜찮더라구. 하여튼 그런 거 해주는  
거 보면서 저들 해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운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 때 5억  
을 받았는데 똑같은 건데 지금 3억 오천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1억오천을 더 받은 거지.  
이제 두개를 갖고 있는데 땅은 내 앞으루다, 시에서 산거니까 시유지니까 내 앞으루 있는  
거 그냥 있고 건물만 막내 앞으로 해줬지. 재개발하면 막내아들한테로 넘어갈 테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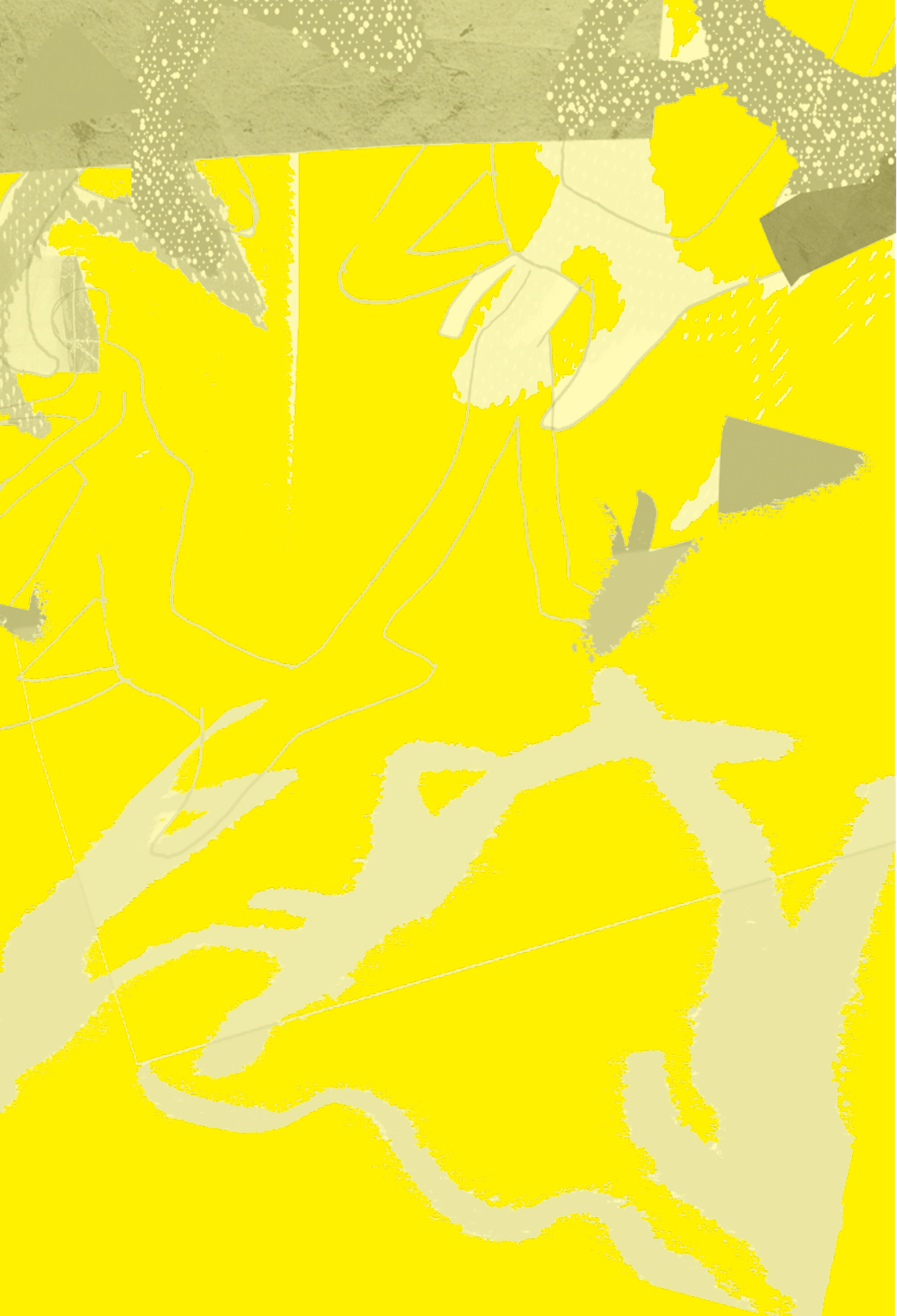
그 저거를 아들 앞으로 해주면 증여가 가잖아. 증여가 가니깐 그 땅이지 집값 있어? 땅값이지. 그 아무리 못 받아도 2억은 되는데 증여로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재개발되면 아파트가 되면 그냥 물려주구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어 지금. 재개발이 빨리 되면 되는데 나 죽기 전에 안될 거 같어. (그게 더딘가요?) 더더더여.

조사자 : 여기서 사는 것은 편하시죠 그래도. 오랫동안 사셔서

구술자 : 고향 같으지. 한 30년을 넘겨 살았으니까 고향 같고. 그 집에서만 지금 77년도에 이사 와서 그 터에서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오래 살았지. 32년을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어.

조사자 : 예 뭐 한 1시간 15분 정도 얘기하셨는데, 다 얘기 하셨죠!

구술자 : 뭐 귤은소리까지 꺼낼려면 한이 없지만 아직은 좋은 소리만 다 했으니까 (귤은소리 좀 해주...) 안 돼 안 돼.





## 구술 자료

●●● 수진동 이영권 녹취록

조사자 : 장노현

구술자 : 이영권

전사자 : 정혜영

조사자 : 2010년 7월 22일 수진동 이영권 구술자의 서사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듯이. 살아오신 과정들을 꼭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시죠.

구술자 : 거. 제가. 거기 성남 들어온 거는 한 칠십 한 오년 육년 고 고정도인데요. (성남 들어오신 거부터 시작하셨네요) 성남에 맨 처음 왔을 적에는 방이 5만 원, 5만 원에서 몇 천 원, 그 정도 사글세로다가 살면서는. 인제 얘기를 처음 놓고서 그때서부터 직장생활 그만 두고 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서 인제 선배들 도움으로 다 이제 방을 여기다 얻었어요. 서울에 있는 거는 그때 어머니하고 동생은 거기서 인제 살으라고 하고. (살으라고 하고) 예. 여기서 인제 미리 인제 선배들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방 얻는 값. 방 얻는 것을

조사자 : 어. 선배들은 어떤 학교 선배들이었나요? 고향 선배였나요?

구술자 : 아니요. 아니요. 고향 선배가 아니라 (직장 선배들?) 예. 직장 선배가. (아. 그 나전 칠기?) 예. 예. 그 인제 그런 선배들이 도와줘 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죠. 아무것도 없이. 저 아래 소방서 있는데. 거기가 옛날엔 소방서가 없었어요. 그때 들어올 당시에는 별판이었거든요. 별판이었었고. 운동장도 없었고. 거기다 인제 방 조그만한 거 하나 얻어 가지고 인제 공장을 방 한 칸에서 인제 하청을 맡아서 시작을 한 거죠.

조사자 : 예. 그때 얻었던 방은

구술자 : 방 하나하고. 또 하나 또 얻고. 두 개를 합해서 하나는 인제 나전칠기를 하니깐 하청을 맡아서 거기서 인제 시작을 했고.

조사자 : 가옥의 구조는 어떤 상태였나요?

구술자 : 가옥은 맨날 옛날 부엌이니깐 뭐 연탄불 떼고, 연탄불 떼고, (연탄불 부엌이고) 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그런 식이죠.

조사자 : 2층집이었나요? 아니면 단층이었나요?

구술자 : 그때는 2층 같은 게 없고, (없어요?) 예, 2층이 없고, 그냥 단층이었어요. (단층으로?) 예, 단층으로다 브로크 쌓아가지고, (브로크로?) 브로크로 쌓아서, 뭐 겨울에는 막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예, 그런 시절이었죠)

구술자 : 그거 얻어서 일은 인제 시작하고 집에서 애덜은 인제 그때 인제 뭐, 뭐, 좀 기술자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와서 좀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서는 와서 게네들은 우리집 일을 해주고 인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쵸) 예 어려워 가지고 우리 한 여서일곱 명 애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예, 예.예.예.

구술자 : 아 근데 밥을 해놓고 인제 불르러 와요, 밥을 퍼놓고, 그러면 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요?) 도둑이 들어와서 밥 훔쳐가요, (그 사이요?) 예, (하하하하, 그 작업장하고 집하고 사이도 멀지도 않을 거 아니예요?) 한 한 300메다 정도 이렇게, 동네니깐 (동네니깐) 동네서 방에서 하는 일이라, 바로 왔다간 사이에 밥도 없어지고, 허허 (그래요? 하하하 그런 일이) 아니 그때는 막 서로가 다 못 살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 밥도, 하여간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조사자 : 아, 그 황당한 일이 또, 다른 거 뭐가 있었어요? 밥 없어지는 거 말고.

구술자 : 밥도 없어지고, 또 그냥 뭐 그때 당시에 여기, 이, 고 저기 뭐야, 동네 이쪽으로 저녁에 못 다녔어요, (왜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요) 예, 애덜이 지나, 그때 나도 이제 젊었을 때니깐 그 젊었을, 한 20대인데 (20대 정도?) 예.. 20대 인제, (25살 났을 때) 스물 여섯, 다섯 그 정도 났으니깐, 이게 또 굉장히 좀 활발할 때 돌아 다녔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돈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막 뒤에 와가지고 막 때리고, 주머니 뒤지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성남 오면은 막 그냥 아주 서울 쪽에서는 못 사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조사자 : 그렇죠, 예, 그때 처음 개발할 때는.

구술자 : 예, 그때 그러고 방도 요쪽에 보면은, 20평씩 이렇게 20평이라고 그라는데, 전부 철거민들, 거 청계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창신동, 이쪽으로 전부 철거 온 철거해 온 사람들이예요, 그래, 그래서 방도 나눠주면서도 그때는 측량도 안하고 그냥 줄로다 자로 이렇게 재서 나눠준 거야, (그렇죠) 그래 지금 측량을 해보면 열일곱 평 열여덟 평, 전부 그

정도여. (아, 그 정도?) 예. (실제로 분양 받았던 게?) 예.

구술자 : 그 인제 그렇게. 그때 당시엔 뭐 그것도 없었으니깐은. 집도 없고. 우선 한번 돈 벌  
어 볼려고 인제 한 건데. 거기서 인제 그제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음, 조금씩 조  
금씩 늘려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미. 그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조금 벌  
어가지고 5만 원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벌면 10만 원짜리 만들고 그러면 또 이사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늘려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조사자 : 그래도 그때 개인 사업이 꾸준히 뭔가 되셨나 봐요?

구술자 : 예. 그때 당시에는 그때 77년도 78년도는 진짜 경기가 좋았어요. 완전 호경기라고  
막. 그런 호경기가 없었. 없었을 꺼예요. 앞으로도 그런 경기는. (이 성남 지역이 전체가  
다?)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아, 우리나라 전체가 다?) 예 전체가 아주 호경기였어요. 뭐  
우리가 물건도 만들어 놓기 전에 가게 와서 막 그냥 선금 막 줘요. 예,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좀 모았어요.

조사자 : 주로 그, 그것들은 어디로 팔려나가나요?

구술자 : 그제 이제 나전칠기니깐. 나전칠기니깐 좀 돈 있는 사람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인제 뭐. ((발음 부정확)) 저는 하청 맡아서 하면서

조사자 : 어디 가게가 주로?

구술자 : 뭐. 인사동 쪽에. (인사동 쪽에서?) 예.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나전칠기 이  
렇게 곱게. 있잖아요. 좀 비싸죠. 근데 그제 (안녕하세요. 인사) 그때 당시 그제 인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갔는데. (그쵸)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우리는 인제 작업  
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인제 그, 작업은 순수한 내 작업이 아니라 다른 데서 좀 해달라  
고 한 것도 해고. 내 것도 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인제 막 경기가 좋으니깐 우리  
가 막 그 칠이 여러 번 들어가고, 여러 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 번 하는데 허  
는 도중에 막 서랍 같은 걸 빼가요. 막. 자기네들이 그건 가서 할 테니깐 나머지만 해 가지  
고 오라 이거예요.

조사자 : 아, 하하하.

구술자 : 그렇게 그냥 막. 물건이 없어서 막 못 팔고 그랬었는데.

구술자 : 그때 인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인제 있는데 이제.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지만. 장인  
이 올라오셨어. 장인이 오셔 가지고.

조사자 : 어디 사셨는데요? 장인은?

구술자 : 김제에 살어. (전북?) 예. 김제에 사셨는데. 장인이 오셔가지고 집을 하나 사주겠  
다. 그래 가지고. (처가집이 잘 사셨나 봐요?) 예, 허허. 처가집이 잘 사셨어요. 지금 집을

하나 사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인제 (여기) 말고 (발음부정확) 저쪽 단대동 쪽에 그쪽에  
는 입식 부엌이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예. 예. 여기는 연탄불이었고, 그래 집  
사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막 집 보러 다녔지요. (어 단대동 쪽으로?)

구술자 : 예. 근데 집사람이 그쪽애가 입식이 굉장히 불편할 거 같다고, 그냥 여기다 사자 그  
러더라고. (여기다가? 아) 그래서 처가 집에서 그때 빌린 돈이, 여기서 집을 살 적에 120  
만 원인가 주고 집을 샀을 거예요. (아, 처가 집에서) 처가 집에서도 좀 주고, 몇 십만 원  
주고, 내가 인제 전세 있었고, 또 방세 3개 있으니까 또 전세 하나씩 놓고, (그렇죠) 예. 전  
세가 그때 2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2개의 전세를 노니까 40만 원 하고, 내꺼 있던 거 허  
고, (있던 거, 처가 집에서 받은 거) 그런 거, 그것까지. (그래 가지고)

구술자 : 그때는 번지수가 아니고 단지로 나갔어요. (몇 단지였어요) 예. 몇 단지. 26단지에  
다 집을 산 거지. (예. 한 단지에 몇 가구나?) 한 단지가 한 단지가. 지금 이렇게 바둑판  
마냥 쪽쪽 갈라져 있잖아요. (네, 네) 요게 한 단지예요. 요가. (한 블록?) 예. (한 블록이)  
예. 한 블록에 한 단지예요.

조사자 : 몇 집이나 짓게 되나요? 거기에는.

구술자 : 그게,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네. (20평 짜리가 이렇게) 예. 예. 예. 많죠. 꽤 되죠. 그  
게 그때 몇 집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 고거 이제.

조사자 : 처가 집에서 왜 갑자기 집을 사준다고 장인어른이.

구술자 : 이제 와서 세 살고 그러는 게 인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그렇지.

조사자 : 거기 또 그, 그, 논? 논도 좀 팔고 하셨나 봐요?

구술자 : 예. 허허, 밭떼기 하나 팔아가지고 허허허. (하하하하)

구술자 : 그래. 이제 그때 사주시고 그러고서 지하실이 있었어요. 지하가 이제 이렇게 있는  
데, 지하가 인제 뭐, 지금처럼 방이 아니라, 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인제, 그때서부  
터 인제 나전칠기가 또 인제 변화가 되 가지고, 인제 손 수작업으로 하던 게 인제 기계 기  
계화가 되는 거야.

조사자 : 그때라고 한다면 70년대 말인가요?

구술자 : 70년대 예 70년대 말쯤 될 거예요. (성남으로 바로 올 때까지는 아직 수작업이었는  
데) 예. 예. (조금 지나서) 조금 지나서 이제 뭐 기계가 나오고, 인제 또 이런 조각하는 것  
도 전부 기계가 다 허고, (전부 기계로?)

구술자 : 그래서 기계로 허는 거를 갖다가, 내 동생이 일본서 살거든요. 근데 일본서 살면서  
나, 일본 있는 동생 보구 치과에 보면은 스케일링 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걸 좀  
보내라,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보내왔어요, 그거를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루

다 조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손으로 하는 거 보다 무지하게 빨라요. (빨르죠) 응. 그  
니깐은 빨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른 데서 못하던 게 막 오는 거야. 와 가지고 그때 인제  
그거 막 수작업으로다 다른 거 공장 안하고 고것만 하는 거야. 인제. (그것만?) 예. 남의  
것 말아가지고. (깎는 것만?) 예. 깎는 것만. 혼자서. (혼자서?) 예.

조사자 : 나전 그 동안에 같이하던 그 사람들은 다.

구술자 : 아 이제. 다른 데 직장으로 다 가고. (다른 데로 다 옮겨가고?)

구술자 : 예. 그 이제 고거로다 해서 수작업을 했는데. 그때 인제 뭐. 꽤. 돈 하루에 그때 돈  
으루다가. 그래도 하루에 막 벌으면 한 5만 원도 벌고. 막 그렇게 벌었어요. 엄청 많이 벌  
은 거죠. 난 가지고 온 거 계속 해주니깐은.

구술자 : 그래서 그때 돈을 벌어서 인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처가 집을 샀어요. (아. 처가 집  
을) 가가지고 내가 인제 주신만큼. (그때 보태줬던 만큼?) 보태줬던 만큼 딱 갚고 와서. 제  
가 이자는 못 드리고 이것만 드릴게요. 원금을. (음. 허허허) 그러고서는 장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다른 거 하라고 안 받으실려고 그러더라구. 받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돈  
돌려드렸지요.

조사자 : 그게 얼마 만에 갚은 거예요?

구술자 : 고개. (한 일 년?) 아뇨 아뇨. 몇 년 됐죠. 한 삼사년. (한 삼사년?) 예.

조사자 : 어떻게 치과 스케일링 하는 걸로 그 깎을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 : 아우.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서울에서 한 사람이 한다 그러더라구요. (아.  
그걸 보셨구나?) 아니. 본 게 아니라 한다 그러는데, 얘기만 듣고. 얘기만 듣고 그거를 어  
떻게 해야 될건가 굉장히 인제 (연구를?) 예. 연구를 한 거예요. 그제. 언뜻 듣기에 뭐 치  
과 스케일링 기계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치과에 가서 인제 어떻게 하나 봤  
더니. 발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는 이렇게 모다로 해서 빨리 돌고 안돌고 이걸 하더라구  
요. 그래서 고걸 이제 치과기계가 왔길래. 인제 빠른 간격으로 해봤어요. 해보니깐 되더라  
구. 그래서 나. 어.

조사자 : 실패 거의 안하시고 바로.

구술자 : 예. 예. 지하로다가. 이제 지하에서 뭐. 저기 저 뭐야. 콤프레산가? 콤프레사 그거  
해 가지고 에어로 해서 그냥. 거. 기계에 끼워가지고 그거 이제. 바로 했죠. 바로 해 가지  
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벌었어요. (음)

구술자 : 그러고 나서 80년대 되니깐. (음) 80년대 쯤에 그때 이제 저. 광주사탕가? (예. 광  
주. 전라남도 광주) 예. 예. 광주. 뭐 전두환 씨. (예. 예. 그죠. 80년대죠) 네. 80년대죠.  
(예. 팔십년 봄) 예. 그거 딱 일어나고 박대통령 시해 되고. 그거 되고. 그러니깐 아주 경

기가 툇 떨어져 버려.

조사자 : 아. 그때 경제가 조금.

구술자 : 예. 그때서부터 인제 완전 바닥이여. 인제 뭐 칠기 같은 것도 워낙 고급이고 그러니깐 안 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생활품.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그냥 사치품이니깐. 그런다 보니깐 구지 안 사는 거야. 그리고 어영부영하다 보니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조사자 : 그 당시에 그 이쪽 그럼 선생님 나전칠기 하던 그 주변에는 비슷한 작업을 하시던 그. 사람들이나 업체들이 좀 있었나요?

구술자 : 많았어요. (어. 이쪽 수진동 쪽에서요?) 네. 네. 많았죠. (나전칠기 하시던 분들이?) 네. 많았어요. 근데. 그때 뭐 전부터 툇 뭐 안 되고 그래서 공장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칠까지 해봤는데. 손됐는데. 뭐 해 가지고 부도 맞고 어찌고 하니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러다가 집 팔아먹겠다. 이런 게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조사자 : 아. 하하

구술자 : 그래서 인제 우리집 세웠던 사람. 맨 처음에 집 사 가지고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중동엘 가 있었어요. (음. 중동에?) 예. (사우디?) 예. 사우디. (사우디 사우딘가요?) 사우디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인제 여길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그 연봉으로 현금이 급해서 아무래도 나도 좀 가야 될 거 같다고. (가야겠다) 그러니깐. 가. 가자. 그러더라구요. (음)

구술자 : 근데. 이제 뭐가 기술이 있어야지. (그치) 건축 기술이 있어야지. 그래서 며칠 따라다녔어요. 며칠 따라 다니면서 인제 뭘 일 하나면은 이 천장. 천장 일 하고 칸 막는 거. 그런 일하는데 며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인제 배운 거죠.

구술자 : 배웠는데. 인제 시험을 어디 금호건설인가? 어디 시험 있다고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인제 시험 보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보나마나 떨어지지. 허허. (하하하.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지) 거기서도 뭐.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헐 줄을 모르니깐은 떨어진 거야. 근데 인제 사람이요. 구하면 통한다고 그러더라구. (음. 그죠) 구하면 통하고. 또 이제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그렇다는데 거기서 시험 한번 떨어지면 한 가지 배우는 거야. (아. 한 가지를. 하하) 그리고 이제 두 번 떨어지고선 두 가지 배웠죠. 세 번째 가서 붙었어요.

구술자 : 세 번째 가 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제 가라더라고. 기능공이지. 이제 잡부가 아니고 기능공으로. 그래 시급으로다 얼마. 기능공하고 천차이 아니깐. (잡부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많았죠. (기. 기능공이 좀 돈이 많아서 기능공으로 가실려고 했구나?)

구술자 : 예. 예. 근데 이제 그거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능공으로 금호건설루다가 갔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우디 뭐 백배두 공산데. 저기 저 알바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바틴?) 거기 막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막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냥 앞도 안 보이고 막 그런 데. 하여튼 그런 데였어요. 거기 가서는 일 년 삼 개월 있었나? (일 년 삼 개월?) 예. 일 년 삼 개월 병원 공산데 인제 우리는 인제 저 내부잖아요. 천정하고 벽채는 내부니깐. (그렇죠) 그게 인제. 시키는 대로. 내부하가 없으면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여. 고생 엄청 했어요. 하여튼.

조사자 : 아.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구술자 : 그 제일 힘들은 게 가족들하고. 애덜. (떨어져 있는 거?) 예.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 빛을 좀 지고 갔거든. 빛을 좀 지고 가가지고 내가 진 빛이니깐 내가 갇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 재형저축이라든가 저축을 하고. 집에서는 그냥 그냥 먹고살 정도로만 그냥 보내주는 걸로.

구술자 :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이 사나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인제 집에서는 집사람이 또 직장 뭐 그때는 이제 퇴근하면 또 이제 요꼬들을 많이 했데요. 요꼬라고 막 이렇게 짜는 거 스웨타 짜는 거. (아 예. 요꼬) 예. 고게 집집마다 허다시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니면서 밤잠 안 자고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그러고서는 1년 3개월 만에 오니깐은 좀 그래도 좀 모아졌더라고요.

구술자 : 모아졌는데 또 거기서 있다가. 기서 있다가 국내 바로 오니깐 또 다른 거 혈 만한 게 없어요. (아. 그렇겠구나. 예) 예. 혈만한 게 없어요. 그때 이제 빛은 다 갇고 그랬는데. 뭐 혈만하게 있어야지. 그래서 또 인제. 또 이력서 또 쓰는 거야. 또 써 가지고서는 이제 한 번 갔다 왔으니깐은. 그. (이력이 있으니까) 예. 이력이 있었고. 그러구도 일을 할 줄 알으니깐. 혈 줄 아르니깐 신성건설이라고 뭐. 강남에 있는데. 거기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미아도르다 갔지요. 미아. 미아. 집에 와서 한 몇 달 안 놀았어요. 바로 갔어요.

구술자 : 바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2년. (2년) 한 2년. 딱 2년 있다가 왔죠. 오니깐은 여기 오턴 날이 그날 아시안게임인가? 86년도. (아. 86년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허는 날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다쳐 가지고. (다치셨어요?) 예. (어디를?) 허리요. (네) 거기 인제 거기 스포츠센터 하고 ((발음 부정확)) 인데.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 가지고 허리가 무지하게 아팠어요. 신성에서 하니깐 공상 처리 다행히 해줘 가지고. 백병원에 입원시켜. 거기서 그때 수술을 했어. 허리 수술을. 허리 수술을 하고. (20:01)

구술자 : 그리고서 인제 거진 나서 가지고서 왔는데 뭐 할게 있어요. 침에 와 가지고는. 그게

차나 하나 사자. 그래 인제 와서 운전면허는 땀이니깐. 차나 하자 사자고 그래 가지고 차를 하나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장사를 뭐를 한번 해 볼라고. (트럭을 사셨구나) 네.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사가지고, 이제 가락시장에 무조건 나갔어요. 가락시장에 나가서 도매인분들 있죠? 좀 도와주라. 나 아무것도 없는데 장사 할 줄도 모르고, 근데 한 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깐, 그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실어 줄 테니까 내가 팔으라는 데로 갔다 파시오. (어 허 허)

구술자 : 그때 인제 마늘이었었어요. 처음 시작은. (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예. 그니 그 사람한테 가서 딱 차 갖다 대고 그리고 인제 돈 얼마 이거 주고서 갖다가 한 단에 얼마 팔아라고. 근데 그 사람이 팔으라고 하는 가격으로 받고 가서 파으니깐 이게 막 완전히 날개 돌친 듯이. 사람들이 뭐 막 줄서 가지고서는 막 사가요. 그 인제 한 차 팔으면은 인제 얼마가 남는 거야. 하루에 막 두 차씩 세 차씩 팔았어요.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도와줘 가지고, 그렇게 팔고 마늘 인제 끝나고.

구술자 : 생물을 하는데 야채 같은 걸 하나씩 도저히 그건 안 맞아. 도저히 내가 이렇게 맞질 않아. 그건 앞으론 남고 뒤로 밀지는 거여. 생물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그거 치워 버리고 그 영업용 용달이나 하자 사자.

구술자 : 그래. 그래서 용달을 샀어요. 용달. 용달을 사가지고 이삿집 센타. 그거 가지고 이삿집 센타에서 이삿집도 나르고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도 얼마 없었으니깐. (80년대 이제 후반?) 예. 예. 그때는 차가 없어 가지고 막 그냥 이런 공장 같은 데는 많았잖아요. 성남에. (그렇죠) 공장 많으니깐. 같이 이걸 옮겨야 되니깐. 완제품도 옮겨야 되고. 그냥 뭐 부품도 (원자재) 예. 자재도 옮겨야 되고 그러니깐. 그때 이제 차가 이제. 한 탕 한 번 뛰는데 얼마였나면 삼천 원. (삼천 원) 예. (거리. 가까운 거리일 때) 예. 성남 시내만. (성남 시내에서) 예. 삼천 원 받고. 서울 올라가면 오천 원도 받고 만 원도 받고. 허허 (하하)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조사자 : 주로 뭘 날르셨어요?

구술자 : 그때 보면 뭐 나를 거 많죠. (그렇죠) 나를 거는 요쪽에 이제 세타공장들이 많았어요. 세타도 나르고. (세탁물?) 세타. 세타. (세타? 스웨타?) 세타. 짜는 거. (아. 짜는 거) 그리고 실 같은. (실 같은 거) 그리고 이삿집은 뭐. 이삿집은 한 번 실어나는데 오천 원인가? (이삿집도 날르시고?) 예. 이삿집도 나르고

조사자 : 또, 또 공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거?

구술자 : 공장에서 나오는 건 뭐 가구 같은 것들. (가구 같은 것들) 뭐. 가구도 있고. 뭐 가구 자재 만들려면 나무 같은 것도. (나무 같은 거) 그런 것도 싣고. 보르크 벽돌이나 뭐 그런

것도 싼고, 아무거나 좌우간 막 싼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예, 그러다 보니깐 단골도 생기고, 그러면 꼭 인제 단골 생기면은 꼭 나만 찾으니까 그거하고.

조사자 : 워낙 잘해 주시니까.

구술자 : 예, 허허 잘해 줘서 그러는지, 그게 용달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택시는 돌아다니면 막 이렇게 손님을 잡으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용달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인제 쪽 이렇게 어 사무실에 가가지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배차를 받아서 나가는데, 배차를 받아서 나가는데 그 고 기간 동안 가서 하다보면 오 늘은 몇 번 하고서도 놀 적어도 있고,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허는 게 용달이야. 내가.

조사자 : 그 사무실은?

구술자 : 공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사무실은 공동으로다가. (아, 저기 그러면요) 용달 있는 사람끼리 (모아서?) 모아서 전화번호를 인제, (하나 두고?) 해 가지고, 벽에다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인제, (그렇게 하셨구나) 예, 그 그렇게 하다가 인제 한참 하다 용달은 그렇더라구요.

조사자 : 몇 분이나 같이 작업을.

구술자 : 열 명이나, 열 명인가? 열 명도 있었고, 열두 명도 있었고, (대개 이쪽 다 사시는 분들?) 예, 다 성남 살았어요, 이렇게 있었고, 뭐, 용달은 인제 하다가 용달도 팔아버리고, 그때 용달이 살 적에 대개 비쌌어요, 용달이 처음 살 적에 칠백만 원, (새차?) 번호판만, (번호판만?) 번호판만 육백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칠백만 원인가 육백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랬다가 야중에 나도 인제 그 가격 받고 팔은 거지, (번호판만 샀다는 건, 차는 그럼?) 차까지, (차까지) 번호판 남바값이 그렇게 비싸, (남바 값, 차는 차 포함해서 번호판까지 받는데 육백 칠백?) 예, 그런데 뭐 차는 현차라도 남바만 있으면은 남바는 별도의 고 가격이에요, (그렇구나) 차야 뭐 가격이야 별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영업용 번호판을 받는다는 게 그거지요?) 예, 영업용 예, 예, 영업용 그제 인자 막, 나오질 않으니깐.

조사자 : 그렇구나

구술자 : 용달은 고리고 나서 그렇게 팔고, 한번 세일즈맨 한 번 해보자, (뭐요?) 세일즈맨, (아, 허허)

구술자 :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거기 가 가지고 이제 차 운전도 해주고, 가서 책도 팔고, 책 파는 거 배본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금성출판사가 여기 있어 가지고 이천, 여주, 뭐 광주, 뭐 여기까지 여기가 관할이더라구요.

조사자 : 금성출판사가 여기 어디에 있었어요?

구술자 : 금성출판사 어 판. 영업이. 영업이죠. 그러니깐.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가 저쪽 그 종합시장 있는데. (아. 종합시장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거

조사자 : 왜 갑자기 그걸 하시고 싶었어요? 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용달 팔고 나니깐) 팔고나니깐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다 보니깐 (예. 예) 그제 또 눈에 띄었구나.

구술자 : 그제 거기 가서 그거 하다가. 그것도 그렇게 그냥 뭐 큰 비전은 없더라고요.

구술자 : 그래서 있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그때가 인제 90년대쯤 됐을 켜야. (90년대 막 시작할 때) 예. 90년대쯤 됐는데. 그때 이제 서울 친구가 뭐라 부르냐든. 차를 하나 사라. 2.5톤을. (2.5톤을) 2.5톤을 사가지고. (용달할 때는 그제 몇 톤짜리였어요?) 용달 1톤짜리. (1톤짜리) 2.5톤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깐. 성남에 한 군데 티오가 있다 이거야. 성남에. 뭔데? 그러니깐. 폐기물이라. 폐기물 폐유. (폐유) 예.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유 있잖아. 그 티오가 성남에 차가 안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 사라 이거야. 그래서 그 친구말대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탱크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인제 시작을 했지.

구술자 :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폐유를 못 버려가지고. 어따 버릴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버릴 때가 없어가지고 회사 나는 회사에다 차를 지입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 운행중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차를 이제 하는데. 뭐 그냥 서로가 막 그냥 가지 가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돈은 뭐에 썼냐면은 그 오일 박스 안에 보면 티켓이 있었어요. 요 티켓을 열세 장을 받으면은 한 드럼을 치워주는 거예요. 열세 장 받고 한 드럼 치워주고.

구술자 : 그런데 인제 이 티켓이 없으면 돈으로 물어내야 되. (어. 그래요?) 예. 돈으로 인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줘야 되요. 근데 그. 그거를 이제 나는 관여를 안 했어. 티켓은 티켓이 있는 대로 받고. 그냥 기름은 기름 때 가지고 갖고 가는 거여. 그냥 그때 당시에 동성산업이었었는데. 저기 오산에 있었어요. 회사가. 오산에 있었는데 오산에 싣고 가면은 그것을 버릴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야. (폐유를?) 예. 드럼통으로다가 막 해서 막 산같이 쌓아놔요. 산같이 쌓아놓았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기다렸다가 이제 차 차 오면은 차에다 쓰고. 차에다 쓰고. 그러고서 또 와서 또 거둬 가지고 가고.

구술자 : 그래 딱지를 인제 고걸 모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산을 받는 거예요?) 예. 정산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울 쪽에 한 사람들은 서울 쪽에 현 사람들은 돈을 막 하루 나가서 딱지를 없으면 돈을 막 받은 거야. (아. 매일 매일 받았) 예. 가서 치다가 딱지 없으면은 뭐. 한 드럼을 치워야 되는데. 한 드럼을 칠천 원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게 칠천 원이니깐. 칠천 원을 받아야 되니깐. 칠천 원씩 받는 게 하루에 그 사람들은 하루에 받아오는 게. 한 삼사십만 원씩 막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더라

구요. (그래요?)

구술자 : 근데, 나는 그때 하여튼 여기 돈을 안 받고 그냥 치워줬어요. 성남시내 끼를, 서울로 나가라고 해서 서울로 회사에서 서울 가서, 어디 서초로 나가라고 그러고는 서울까지 갔다가 돌려가지고 성남으로 들어왔어요.

조사자 : 왜요? 허허

구술자 : 이게 이왕 쳐주는 거, 성남 치워주고 싶더라구요. 여기도 막 많으니깐, 못 버리는 사람들이, 그래 여기서 그냥 쳐가지고 딱지 있으면 딱지 있는 대로 해 가지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예, 돈도 안 받았어요. 나는 그때, (그니깐) 돈도 안 받고 그러고서는 한 거야, 그러니깐, 그냥 했어요. 그래도 뭐, 먹고 살기는 살게는 되더라구요.

구술자 : 인제, 해 가지고, 어, IMF, IMF 딱 나니깐 그때 막 기름 값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덕 봤어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돈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사자 : 어떻게 기름 값 올라가는 거랑 연결 되나요?

구술자 : 인제, 요 폐유가 재활용이 되니깐, (아, 재활용이) 재활용 기술을 개발시켜 가지고 막 산더미 같이 쌓아 뒀던 거 그거 전부 다 그냥 재활용하고, (재활용해서) 인제 기름이 막 인제 그때는 막 팔리는 거예요. 팔리니깐 딱지도 이거 없어져 버려, 부르면 부르는 데 몇 드림 갖고 와, 들어오면 그때 인제 단가는 뭐 칠천 원 허던 게 만 원, 만오천 원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구요.

조사자 : 아,

구술자 :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혼자 나가는 거 없죠, 혼자 해 가지고, 그러니깐 뭐 그 때서부터는 괜찮았어요. 저는 IMF 때 전부터 어려웠을 적에 (어, 오히려) 예, 나는 호경기였어요.

조사자 : 아, 그렇구나.

구술자 : 호경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5톤으로 큰 것으로 바꿨지, 5톤으로 큰 걸로 바꿔 가지고, 거시서 갖고 간 갖고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결재를 어떻게 해 줬냐면 한 달 하고 삼십일, 한 달 삼십일 지나야 결재가 되는 거여, 그 전 것만, 깔아놓는 게 한 달 삼십일 정도, 한달 보름 정도 깔아놓는 거야, 한 사십오일 정도, 깔아놓고 나머지만 주는 거야.

구술자 : 근데 그런데 업주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더라구. 동성산업이라는 데가 이게 그냥 순리적으로 잘 해 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도 돈을 벌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뭐를 조금 바꿔요. 뭐 뱅크를 하나 만든다?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야, 대출받으면 은행 대출을 받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더라구, 회사를, 그리

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소각장을 만들고, 넘기고 넘기구. 그러다 보니깐 은행 빚은 늘어나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부도로 처리가 되가지고 은행관리 들어가고. 그레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갔죠 인제. 다른 데로 가가지고.

구술자 : 시화. 다른 데로 가 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 천만 원 정도 못 받고 나왔을 거예요. 못 받고 인제. 시화를 와 가지고. 시화에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은 인제. 직원들 두고. 직원 두도 나는 관리만 하고.

구술자 : 허는데 우리 아들도 이걸 시켰어요. 아들도 시켰는데. 뭐를 시켰. 왜 시켰냐면은 애가 대학원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그. 석사 받고 그러고 교사자격증이 있는데. 임용고시를 몇 번 봤는데. 임용고시를 두 번 인가. 세 번 인가 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 가지고 인제. 저도 인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나이는 먹고. (그쵸) 인제. 강사를 하는데. 도저히 보니깐. 그게 아니야. (허허) 이 강사라는 것은. 애들 상대로 계속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와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더라구요. 하루 나가서는 오늘 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 와서는 또 밤새 공부를 해요. 내일 거를. (그렇쵸) 그러니 잠도 못자고. 그렇다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돈도 못 벌고. (허허허허) 너무 힘들어 하더라구. 내가 너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해. 그랬어요. 하겠다고 하더라구. 이게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너 이거 하지 말고 니가 허던 거 해라. 그러면. 안 현데요. (어허허허. 벌써 적응을 다 하셨구나) 이거 이거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허는 일을 떠어줘 가지고. 지가 하고 싶으면 뭐 그냥 일주일에 빨리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깐. 너무 좋쵸. (그렇쵸)

구술자 : 지금 그냥 편안하게 해요. 허허허허.

조사자 : 하하하하. 그럼 아드님 하고 같이 그걸 계속 하시는구나.

구술자 : 예. 예. 게하고 직원 하나 (직원 하나) 예. 셋이서. 셋이서 하면서. 나는 인제 한 사람. 한 개가 또 폐기물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해서 돈을 주고 시켰는데. 내가 만 날 앉아서 놀고 그러니깐.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냥 내가 하는 거여. 그거는 내가 낮에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만 일하면 되니깐.

조사자 : 그러면 아무튼 성남 이쪽에서 나오는 폐기 폐유 같은 것들을 모아다가

구술자 : 예. 예. 여기 90%는 내가 치운다고 봐야쵸. (아. 이쪽 성남 쪽에) 예. (폐유를?) 예. 폐유고.

조사자 :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폐유가요?

구술자 : 자동차요. (자동차?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서 모으는구나) 예. (그런 거구나) 예. 자동차 정비소에 보면은 폐유 모아봐요. (그렇쵸) 그거 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쵸) 모아 놓

으면은 다 차면은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그거 가져다가 처리업체로) 예. 예.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구술자 : 그게 좀 단가가 쪼들다 보니까, 인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은 내야 돼. 그래 세금을 한 달에 지금 부가세가 지금 요번에 오늘 오늘 연락 왔는데 부가세가 750만 원. (부가세가) 750만 원 내고.

조사자 : 얼마 만에 한 번씩 내는데요?

구술자 : 3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내죠. 삼개월에 한번 내. 3월은 예정신고고, 요번에는 본신고해 가지고 내는 거. 요번에 나온 게 한 750만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벌은 만큼 나오는데. 허허허

조사자 : 하하하하. 다른 사람들은 저기 저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던데.

구술자 : 그게 안 그래요. 그게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왜 좋으냐면 내가 사고 났을 적에 있잖아요. 나도 한번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음. 일을 못허잖아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낸 근거가 있잖아요. 그만큼 받아요 다. (아. 그래요) 예. 다 받아요. 세금 많이 내는 건.

조사자 : 교통사고는 어찌다가? 그 영업하시다가?

구술자 : 오다가 보면 고속도로에서 비오는 날 갈을 때. 이제 앞애가 인제 물건이 앞차가 물건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스니깐. 나도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오는데. 그냥 브레이크 밟으니깐 쪽쪽 미끄러져가지고 그 차 뒤에다가 받아버려. (받아버려. 허허) 옆으로다가 보니까, 옆에는 고속도로. (그렇죠. 더 위험하죠) 뻥으러 오니까, 뚫고 나가면 이차가 와서 받아 죽어요. (예. 예)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조사자 :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구술자 : 그때 뭐. 일하다가 보면 수시로 아팠을 적에는 드러눕고 밥도 먹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드러눕서 밥 먹고. 근데. 이상하게 운대가 맞아서 그러는지 집 사람 친구가 침 맞으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침 맞으러 갔는데. 침 한 방에 나았어. 그래서 일어났어.

조사자 : 아. 어디. 어디 가서 맞았는데요? 침을.

구술자 : 허리. (어디. 이쪽 근처에?) 아니. 아니요. 상도동. (상도동? 저기 서울?) 예. 상도동인데. 그 할아버지가 나 낚춰놓고 돌아가셨데. (하하하하. 아) 거.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집 애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없어요)

구술자 : 그렇게 살아요.

조사자 : 성당이야기를 좀. 성당은 언제 부터 다니셨어요?

구술자 : 저는 결혼식 성당에서 했어요. (아. 결혼식을 성당에서 했구나) 네.

조사자 : 그럼 그 이전부터 성당에 다니셨던 거예요?

구술자 : 아니요. 성당은 그 이전부터 다닌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부터 성당에 다녀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성당에 다녔고, 다 성당에 인제 다니셨구.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할 적에 정릉성당에서 집사람은 영세를 받았고 나는 영세를 못 받았으니깐 간밀 영세를 받았어요. 신부님 간밀 영세로 해서 인제 세례명을 세례를 안 주고도 인제 이렇게 혼배를 해줘요. 혼배를 해주는데, 그 혼배가 세 가지 약속을 해야 되요. 간멜혼배라는 ((관면혼배를 말한다))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갑일?) 갑멜. 그러니깐 영세를 안 받았어도 저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주는데, 그게 인제 뭐냐면은 내가 약중에 영세를 받았다는 약속. (어. 약속) 내가 공부를 해서 교리 공부를 해 가지고 영세를 받는다는 약속을 한 거. 첫째가 그거구요. 그 다음에 인제 내 자식들 내 자식들도 영세를 시키겠다는 약속. (어. 약속) 그리고 인제 봉사하겠다는 약속. 그거 세 가지. (어. 세 가지) 예. 충실하게 성당에다 충실하게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구술자 : 그거를 해. 그러 그래 가지고서 인제 거시서 저걸 하고, 여기 와 가지고 내가 외국에 가있고 그러니깐. 공부하다가 교리 공부하다가 그냥 사우디로 갔잖아요. (그쵸) 사우디를 가가지고 사우디를 갔다 와서 인제 영세를 받았어요. (여기서?) 예. 영세를 여기서 받고, 그리고 나서 인제 계속 다닌 거죠.

구술자 : 그때는 뭐. 다니면서 처음 영세 받고는 뭐. 처음 영세 받고는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한 거죠. 뭐. 왔다 갔다만 하고, 봉사라는 걸 잘 몰랐으니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인제. 누구하고 이야기 하다가. 봉사 한번 해라. 단체에 좀 들어가라. 단체에 좀 들어가게 되고.

조사자 : 어느 단체에 들어가셨는데요?

구술자 : 장년회도 있고, 네지오라는 단체도 있고. (네지오?)

구술자 : 네. 여기에 단체가 많아요.

조사자 : 거기에 속해서 봉사 활동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예. 이제 네지오. 네지오를 많이 했죠. 네지오를 하면서 네지오 단장도 하고, 꾸리아 단장도 하고 그.

조사자 : 그건. 어떤 봉사를 주로 많이 하는 단체예요? 네지오는?

구술자 : 네지오는 가서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또 인제 장례나 뭐 가서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뭐. 저런 인부, 저저. 어디야. 성남동 성당에 있는 그 노숙자들 밥해 주는 데 있어요. (네. 네) 거기 가 설거지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조사자 : 거기는 몇. 회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구술자 : 음. 지금 성당예요?

조사자 : 아니요. 그 네지오.

구술자 : 네지오가 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지오가 지금 우리 성당에만 몇 개 팀이 있냐면은 11개 팀인가 요렇게.

조사자 : 그럼 한 팀은 보통 몇 명으로.

구술자 : 한 팀은 보통 인제 뭐 일고여덟 명부터. 한 열 몇 명까지 (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네지오가 모여서 꾸리아가 있어요. 그 꾸리아는 전체의 단체의 대표가 되는 거죠.

조사자 : 아. 꾸리아? 그건 어느 나라 말인가요? 뭐. 천주교식?

구술자 : 예. 천주교. 천주교에 그게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맨 처음에 네지오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가지고 이게 인제. 번진 거죠. (더. 퍼져갔구나) 예. 예. 인제 네지오라는 그 단체는 우리나라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맨 하급 조직이 뿌리시즘 네지오예요. 네지오고. 네지오 위에 꾸리아가 있고. 꾸리아는 동 성당에 뭐 (하나씩?) 한 개가 있는 데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있고. 그러고 고 위애가 꼬미숨이란 게 있어요. (꼬미숨) 예. 꼬미숨은 이 꾸리아가 모여서 꼬미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위에 보면 또 네지아라는 게 있어요. 네지아라는 것은 꼬미숨이 모여서 네지아가 되고. 고 다음에 고 위에 인제 그 뭐야. 세노토슨가?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또 대표로. (아. 대표로) 또 고 윗 단계가 세계적으로. 모여서 하는 단계가 있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다 이게 연결이 되.

구술자 : 그거는 인제 이 네지오라는 단체는 성당에서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안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인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 뿌리라고 봐야지요.

조사자 : 그 활동하시면 기억나는 경험이나 생각나시는 게.

구술자 : 활동하면서는. 기억나는 거는. 어. 저기 뭐야.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구술자 : 그분이 집예를 이렇게 가 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간 거야. (다른 경우는 잘 안가는데?) 아니요. 다른 경우에도 가는데. (가는데) 그분이 많이 아픈데. 성당에 잘 안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양반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누워서. (누워서) 바로 막 혼수상태야.

구술자 : 그래 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죠.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옮겨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양반이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집에서 그냥 아무도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병원에 옮겨 가지고, (그렇죠) 성당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뭐, 치료비 이렇게 해서 주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구술자 : 참, 그 양반이 이제 막 그 장례식, 장례 할 적에나 이렇게 보면 아침에 나와서 일찍 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그 양반이, (그렇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구술자 : 그 인제 이 하면서는 봉사를 하면서는 찾아가 다녀 보면은요, 집에를 찾아가 보면은 아파서 누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람 찾아오는 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렇겠죠) 예, 가서, 가면은 그걸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고, 막 손잡고 막 더 있다 가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참 마음 아파요. 근데, 네지오라는 단체는 뭐 가서 뭐 돈 쓰고 그러는 단체가 아니고, 기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단체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조사자 : 이거 활동하시면서 이상호 선생님을 알게 됐나요? 이상호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구술자 : 예, 그게 신부님이 신부님이 인제 이 신부님은 한 삼년에서 오년,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속, 각 성당마다, 바뀌는데, 우리 신부님 오시고 나서 그, 문화 재단인가? 거기서 신부님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가 뵈고서는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신부님이 인제 저보고 한번 만나 보라고 그래 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서.

조사자 : 그래서 무슨 작업을 같이 하셨어요?

구술자 : 그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뭐야, 그 한진가? 한지공예도 있고, (한지공예)신문지 공예, (아, 신문지공예) 또, 밴드교실, 또 컴퓨터, 뭐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엔젤스 여기서, 여기서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요.

조사자 : 그 서울에 거주, 서울로 옮겨온 이후에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부인 만나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해보시죠, 서울로 옮겨온 그 시점부터.

구술자 : 아, 서울에 와가지고 집사람 만난 거?

조사자 : 예, 부인 만난 이야만 하시기 말고, 서울에서 사시던 거, 하시던 일, 그런 거 다해서, 쪽 한번, 성남으로 오신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앞의 이야기를 좀.

구술자 : 근데, 그 앞에는 제가 처음에 인제 서울 올라와 가지고는 그 때 당시에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때 서울에 올라올 당시에는 우리가 뭐, 보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한테 뭐 재산도 안 물려줬고, 물려준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뭐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인제 이쪽으론다 서울로다 돈 벌러 좀 오신 거예요. (아. 어머니께서 돈 벌러 혼자서?) 예. 그러다 보니 혼자서 하시는 일이 뭐야 그냥 가서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고 그런 거잖아.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깐,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올라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조사자 : 그러면 그 고향에 있을 때, 어머니 혼자서 올라오셔서 있었다구요?

구술자 : 예. 예. 그게 인제 아버지는 그 때 당시 인제 어려우니까 다 흠어져 있다시피 한 거요. 그리고 내 동생들은 전부다 인제 큰 집을 가 있는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죠.

조사자 :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구술자 :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라와 가지고 인제 뭐 고생 많이 했죠. 지금 뭐 고생 한 거 보면은 그때 처음에 와가지고, 그거 뭐야 유리 만드는 공장인가? (유리) 예, 병 만드는 거. (병, 유리병) 예, 유리병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서는, 조금 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 올라와 가지고

조사자 : 거긴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되서 들어간 데였어요?

구술자 : 거긴 인제, 우연찮게 누가 어, 누가 한번 뭐, 와서는 뭐, 형 그때 사촌형이 양복점에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서는 형님 찾아가 가지고 형님 소개 해준 게 우연찮게 그 거였어요.

조사자 : 그 유리공장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셨어요?

구술자 : 거기 가면은 그 유리 병 나르는 거, 금방 나오면 무자게 뜨거워요. 그거 인제, (그런 거 나르는 거?) 나르는 거, 그거 나르고, 그러 거기서 인제 하튼, 뭐, 발바닥에 유리도 박히고, 거기서 떨어지는, 하면은요 그때 뭐 신발도 변변치 않지만, 고무신 신고 하다 보면 유리 뽀족 뽀족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막 발에 박혀요. 실 유리 같은 거.

구술자 :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유리 빨간 유리 있잖아요. 그거를 막 유리 박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유리를 말아요, 완전히 녹은 거니까, 말아가지고 고 요기 박힌데, 거기다 탁 댔다가 떼어요. 그러면 썩 빠져요. (아. 같이 따라 팔려 나와) 예, 팔려 나와요. (아. 조그만 티가 이렇게 박히면 거기다가) 예, 예, (유리를 가지고) 유리로 탁 찍으니깐 그냥 썩 빠지더라고요. (신기하네, 허허) 하하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사자 : 허허.

구술자 :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는 있다가 나전칠기 한 거예요.

조사자 : 그건 어떻게 계기가 됐나요?

구술자 : 그건 거기서 인제 아는 사람을 있었는데, 한번 거기는 유리공장이었지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헤드렛일만 했던 거죠) 예, 헤드렛일,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나전칠기 인제 초보생으로 들어갔죠. 들어가 가지고 맨 처음 민예사라고 있었는데, 그게 돈암동 쪽인가 돈암동 쪽에 거기 인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인제, 있다 보니깐은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게 자본이 많이 안 들어요 나전칠기가. (나전칠기가?) 예, 자본이 많이 안 들으니깐은 나와 가지고 공장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보고 가자.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일하고 허허. (아,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깐.

구술자 : 거기서 인제 그렇게 하다가 음 정릉으로다가 왔는데, 정릉에서 왔는데, 정릉에서 오니깐 사람이 인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거야. 공부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딱 드는데, 그걸 진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그러면은요, 진짜 안 하면은 못 배겨요. (허허)

구술자 :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학원이 시도학원, 시도학원이 그때 미아리에 있었어요, 미아리에 있었는데 거기나 다니자. 그럼서 낮에 일하고 거기 나가고, 거기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깐 인제 우리 아버지가 인제 그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깐, 우리 아버지 인제 그 자리를 저 저 어디야 고창 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고창)

구술자 : 고창에 가서 완전히 인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조사자 : 자리를 잡았다는 건.

구술자 : 그니깐, 이제 (그 농지를 하시고) 농지도 하고, 인제 전부다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조사자 : 아버지는 그 그 사이에 뭐.

구술자 : 아버지도 인제, (다른 그 인제 아버지는) 아버진 어떻게 인제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지. 근데 거기다 농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깐, 내가 학원 다니고 뭐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깐, 아버지도 인제 굉장히 좋았죠. 기분이, 그니깐 그때 당시에 내가 스무살 조금 넘었으니깐은, 그니깐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는 인제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모양이야.

구술자 : 인제, 집에를 인제 갔죠. 고창 쪽으로. (아 고창) 그때 인제 내가 인제 이거 하면서 낚시를 무자게 좋아해요, 정말 조용하고 이렇게, 낚시를 인제 간 거예요, 낚시 갔더니 올라가면서 나 좀 잠깐만 보고 전주 좀 들렀다 가세요, 그래서 전주가 그때, 폭파되기 전이죠? 전주, 아니, 이리. (이리) 이리, 이리, 폭파되기, 이리 좀 들렀다 가세요, 인제 그러라 그러고 같이 낚시가방 메고 갔는데, 선본다고도 안 하고 집사람을 인제, (테리고 나와) 처가 집에 연락해 가지고 나와서 선보자 그래 가지고 그때 서로 본 거예요.

조사자 : 그래요. 아버님이 중매서 가지고?

구술자 : 예. 예. 중매 쫓는데. (아버님이 잘 아시던 집안이었나?) 같이 교우니까. 아버지가 인제 그쪽에 성당에 회장 하시면서 이쪽 회장님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그래 가지고 거기서 보고. 선보고. 그러고서 선보고서는 한 1년 있다가 약혼하고 한 23살 정도에 선을 봤는데 24살에 약혼을 하고 한 25인가 그때 결혼하고.

조사자 : 처음 봤을 때 부인의 첫인상 뭐 이런 거 어땠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구술자 : 아니. 마음에 드는 거보다도 그거는 인제 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부모님이 이렇게 맺어 주는 거니깐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 (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부모님들도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없는 데서. (그렇죠) 그러니깐은. 야중에라도 우리 부모님 잘 모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조사자 : 그 판단이 옳았던가요? 하하.

구술자 : 허허. 네. 옳았어요. 옳았어요. 지금 (하하하하)

구술자 : 허허허. 우리 어머니가 지금 팔십여섯이예요. 팔십여섯인데 지금 치매가 있어 가지고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셔요. 근데 그렇게 잘 하는 거 보면은 판단이 옳았던 같아요. 허허허허허 (아. 그렇게 해서) 결혼식 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아기 낳고서 성남으로 바로 왔죠. 성남으로 바로 오고.

조사자 : 성남으로 오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구술자 : 아니요. 성남으로 온 거는 특별한 이유보다 여기가 찼잖아요. (싸서) 예. 돈이 없으니깐.

(돈이 없어서) 예. (혼자 사업을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데) 예. 예. 없으니깐. (돈이 없으니깐 썬데 가서 시작하자. 뭐 이런 거였군요) 예. 자본은 인제 밀천은 뭐 선배들이 이렇게 인제 방 한 칸 얻어주고 그런 거 했으니깐은. 그 가서 일거리는 어디 가서 얻어오든지 얻어올 수가 있으니깐. (아. 그렇죠) 그 인제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해서

조사자 : 그때. 좀 돈이 있었으면 이쪽으로 안내려 왔겠네요? 그 근처 하던 데서 계속 있었겠네요? (돈이 있었으면 그런란가) 그렇죠 하하.

구술자 : 허허허 그.. 열로 온 것도 좌우간 모험은 모험이었어요. 모험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애덜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집 애덜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살았던 거랑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조사자 : 어떤 측면에서요?

구술자 : 어떤 측면이냐면. 내가 저 나이 때는 뭐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

하는 거나, 일하는 거 보면 어린애들 같애. (아. 어린애들, 아) 나이가 삼십이 넘고 뭐 인제, 그랬는데도, 어린애 같애요.

조사자 : 그렇죠. 그때 선생님은 척척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구술자 : 예. 예. 알아서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하하) 그제 인제 사회물 정을 모르는 게 뭐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깐은, 공부하고서, 대학원 수학과 넣고, 대학원은 또 길터라구요. (그렇죠, 길죠) 그것까지 하면 꽤 다녔어요. 학교만. (허허, 학교만)

조사자 : 그 주산면 증산리에서 태어나셨다 했는데, 그쪽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시겠어요? 동네는 어떤 동네였고.

구술자 : 거기는요, 완전 바닷가였어요. (아. 바닷가예요? 주산 증산리까?) 예. 바다였었는데. (문만 열면 바다가 보이나요?) 바로, 바로 앞, 바로 앞이 바다니깐요. 바다였으니깐, 거기에는 지금은 이 가보면은요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간사지 막아 가지고, 지금은 다 논밭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모래가 움푹 파였어요, 그러면은 고무신 가지고 물 퍼서 모래를 막 끼었거요, 그러면은 모래가 막 물에 씻겨 내려가, 그러면 막 팍팍, 그럼 주전자에 조개 잡아 왔어요.

조사자 : 바닷가니깐 그 먹을 것도, 먹을 건 부족하지 않았겠다. 그런 것들 잘 잡고 하면은.

구술자 :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어머니가 어 좀 바닷가 그런 데서 처녀 때 그런 데서 사셨더라면은 그걸로다가 생계유지를 다 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좀 이 좀 부유하게 사셨나 봐요. 외할 외가집이, 우리 외가집이,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신 거지, 그래서 인제 뭐 안하고 그러니깐 바다일 같은 걸 모르고, (몰라서, 예) 다른 사람들은 굴도 따다가 팔고, (그러니깐요) 그런 걸 다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일절 안해.

구술자 : 그제 그렇다고 해서 모시나 삼베, 그런 것들 그렇게 다 해서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잘 못하시고

조사자 : 아. 그때 동네, 그 동네에서 모시 삼베 이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구술자 : 예, 모시 적삼 같은 거, 모시 적삼, 그거 막 인제 여름에 시원한 거 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했고, 우리 큰 어머니랑 할머니들은 전부 다 그런 걸로.

조사자 :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 했죠)

구술자 : 지금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르냐면은, 이 고향이라는 데가 떠난 곳도 오래 됐지만 거기서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길 가운데로 났어, 동네를 양쪽으로 갈라놔어요.

조사자 : 갈라놔어요.

구술자 : 예, 갈라났고, 그,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 대 할아버지가 여기 남양준가 거기다 땅을 사놔는데, 그제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거기다 인제 도시를 하는 바람에 거

기에 돈이 나온 거야. 돈이 나왔는데. 시골로다 그 돈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억이 내려간 거예요. 고 조그만 동네에. 그러다보니깐 그 돈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내 안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안에 어르신) 우리 인제 몇 대 할아버지가 남양주에다 땅을 산 게 (땅을 산 게) 지금은 그게 인제 돈이 된 거예요.

조사자 : 돈이 돼서. 근데 그 마을이 전부 다 집안사람들이구나.

구술자 : 예. 전부다 인제 윤씨. (아. 집안사람들) 예. 집안사람들. 글루 간 거예요.

조사자 :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제 그 돈을. (그래서 뭐) 나눠서 갖는 거구나.

구술자 : 예. 종친에서 뭘 하라니. 뭐 그냥 서로 막 싸움하고. 돈 몇 푼 가지고 그런 거 싫어서 인제 난 가기 싫어.

조사자 : 그게 언제 적 일인데요?

구술자 : 얼마 안 됐어요. 한 이삼년. (이삼년) 예. 이삼년 됐어요.

조사자 : 그전에는 서로 만나면

구술자 : 전부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이니깐 굉장히 우애도 있고. 그런데 이 돈 벌고 나니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싫어. (허, 마을 인심이 변해 버렸구나) 예. 그래 요새는 종친회 한다 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가면은 가면은 뭘 해. 돈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조사자 : 그럼 그쪽 고향 같다는 생각을 인제 안 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 고향 같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향은. 고향인데 그리워요 고향은. (아. 고향은 그리운데) 예. 고향은 그리.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어릴 때 크던 텐데 그림 지 않은 사람이 어딴어요? (그렇죠) 다 그리운데. 그런 게 보기 싫어요. (동네 사람들의 변해가는 그) 변하고. 서로가 이렇게 그전같이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막 뺏어먹어서 한이니깐. 허허. 그런 걸 보기 싫어요.

조사자 : 어렸을 땐. 뭐하고 노셨어요?

구술자 : 어렸을 때요? (예) 어렸을 때. 바닷가니깐 바닷가. (바닷가에서요?) 응.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조개도 잡고 수영도 하고. 또. 어렸을 때 하는 그쪽에는 뭐. 그냥 별다른 지기 없었을 거 같아요. 그냥. 나무도 하러 다니고. 그때는 나무 사서 뺏았어요. (그죠) 사서 떼고 그니깐 나무도 산에 가서 나무 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조사자 : 그렇죠.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나 사건 뭐가 있습,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구술자 : 인상 깊었던 거. (네) 인상 깊은 건.

조사자 :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구술자 : 행복했. 애덜 클 적에. (애들 클 때) 예..예. 인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같아요. (애들 초등학교 정도 났을 때) 예. 예. 초등학교 되고. 애들 이제 요만해 가지고서는 다니고. 고때 당시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 고때가 지나고. 고때 당시에 한창 크고 할 적에 사우디를 가가지고 갔다 와 보니깐 애들 이 다 커버린 거야. (사우디 갔다 오시니깐) 네. (조금 서운했겠네요) 그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릴 때는 뭐 따라 다닐려고 어디 가더라도 계속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조금 더 크니깐은 이제 안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조사자 : 허허 어디를 데려다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세요?

구술자 : 뭐. 그때 당시에는 남촌풀장이라던가. 이런 데가.

조사자 : 남촌풀장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구술자 : 예. 예. 여기 광주에. (광주에) 예. (그런데) 거기 가쁜은 그리고 그 그때는 굉장히 지금 같지가 않고 이 동네가 아가자기해요.

조사자 : 그쪽 동네? (아니) 여기가?

구술자 : 여기. 여기가. 왜 그르냐면은 서로 지금같이 막 서로 앞집 뒷집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요즘 여기 그래요?) 예. 아파트랑 똑같아요. 그제 이제 앞뒤집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때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전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으니깐. 전부 대문 열어놓고. 애덜 학원을 그렇게 안 보냈어요. (예. 그렇지요) 골목길에 나오면 애덜끼리 서로 그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진짜 사는 맛났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 가 봐요. 애덜 하나 없고. 조용해요.

조사자 :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거 같아요?

구술자 : 그제 인제 변한 게. 집 새로 짓고 뭐 인제 여기 인제 학원 뭐. 그제 인제. 저거 같애. 애덜 뭐. 시험. 그런 거 같아요. 그 그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된다. 학원 보내야 한다. 그런 강박 관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너두 나두 인제 같이 맞벌이하고 그러다보니까 애덜은 학원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아파트나 그런 데 같이.

조사자 : 아. 여기가 그 수진동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일층으로 된 ब्ल록 벽돌집이 주로 있었는데 그게 모습이 좀 바뀐 게 언제쯤이라고 기억되세요?

구술자 : 그때. 한창 바뀌기 시작한 게 내 사우디 갔다 와 가지고 그때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내가 저 위에 저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사실 집을?) 예. 근데 인제 단층이 있었는데. 벽돌집이었었는데. ब्ल록집. 그거를 인제 헐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3층으로 지었는데. 지하 지하실하고 2층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세내주고 3층에 살았는데. 막 비가 세더라구요. 집 새집이. (왜 왜 왜. 잘못. 잘못지어) 예. 잘못 지어 가지고.

조사자 : 부실공사를. 업자한테 맡겨서 지은 거죠?

구술자 : 예. 예. 업자한테 맡겨서 지었는데. 집이 막 세 가지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인제 위에다 막 방수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싸게라도 팔자. 그래 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거 팔고 지금. 이 밑에루다가 이사를 왔죠. 그게 인제 요 뒤에 보면 성경교회라고 있는데. 성경교회 목사 집이었어요 그게. 교회 집이었었죠. 그거를 산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또 헐어버리고. 거기다 또 집을 지었죠. 그래 집을 지어서 지금은 아직도 거기 살아. (거기 사셨구나) 거기 인제. 맨 밑에 층은 세내주고. 그 다음 2층 어머니 살고. 3층은 내가 살고. 옥탑에는 인제 우리 아들 살고. 그렇게 살아요.

구술자 : 그리고 인제 가끔 일본 간 동생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일본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70년대 그때는요. 일본 갈라그라든 3급 공무원 보증이 있어야 되요. 3급 공무원 보증이 있어야 일본 비자가 나왔어요. 그때 인제 왜 내 동생이 일본으로 갔느냐면은. 정릉서 살 적에 내 동생이 인제 그 때 양장점엘 다녔었거든. 근데 딱 다니는데. 내 동생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야. 있어 가지고 맨날 따라 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성을 물어보니깐 인제 윤가라고 그러니깐 따라다니는 사람도 윤가야. (아. 하하)

구술자 :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이 내가 못 갔으니깐 좋은 데로 시집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중매를 서 준 거야. 그래서 일본 재일교포하고. 재일교포의 그 사둔 저 사둔이 좋으니깐. 아버지지는 일대. 그 양반이 인제 머느리는 꼭 한국사람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서는 인제

조사자 : 시집을 간 거예요? 일본으로?

구술자 : 예. 예. 일본으로 시집을 간 거. 그때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 났는데. 이걸 뭐 거기서 초청장은 와 가지고 수속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죠. 공무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집사람 처 처당숙이지. 처당숙이 청와대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 그 양반이 보증을 서준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됐어. 허허허

조사자 : 그렇구나. 하하하.

구술자 : 그때 뭐 조총련이 있고 막 그래 가지구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거기서나 어릴 때 고생 많이 하고 커 가지고. 내 동생도. 지금 거기서 뭐 집 2개. 집 장만 하기가 힘들다는 데. 집 2개 장만하고 뭐 그냥 해 가지고. 잘 살아요.

구술자 : 이. 어머니가 치매가 들린 치매 걸린 것두요. 내 동생이 죽고 나니깐.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미국서 죽었어요. 미국에 가 가지고. 계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인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넘어져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카들이 이제. 가서. 장사지내고.

조사자 : 뭐하셨는데요?

구술자 : 계두 양장 했죠. (양장) 양장했었는데. 미국에서 가서 인제 양장을 했는데. 넘어져  
가지고서는 죽었다 말이에요. (그럼. 사고나 비슷한 거네요) 사고가 아니라 지가 넘어져.  
넘어진 거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당에서 다 이렇게 장례 치르고. 그쪽 성당  
에서. 그리고 여기서 인제 조카가 가 (가서) 예.

조사자 : 그리고 어머니가 뭐. 치매. 충격 때문에?

구술자 : 예. 충격 먹어서. 그 충격 때문에. 그 인제 지금은 아들. 적은 아들 사진을 꼭 걸어  
앞에다 인제 문갑 위에다 올려놔요. 그래 이제 내가 보기 싫다고 빨리 치우라고. 지금은  
농 속에다 진열을 해놨어.

조사자 : 그게 언제 적에 돌아가셨는데요?

구술자 : 그게. 죽은 제가 80 한. 아니 아니 2006년도 한 2006년도. (아. 사오년. 사오년 됐  
네요) 2006년도가 2005년 그때 죽어.

조사자 : 그 그 가끔씩 어머니가 찾으시겠네요. 사진 보면.

구술자 : 음 사진 보면 찾는 게 아니라. 밥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인제 손주를 찾는다는 게.  
손주 어디 갔냐 물어본다는 게. 주원이는 주원이는 어디 갔냐? 물어봐요. 가끔. 주원이가  
어딴데요? 아 참 철이. 그래요. 허허. 입에서 인제 아직도.

조사자 : 워낙 그것만 생각하시나 보다. 머리 속에서

구술자 : 그러나 봐요. 인제 지금 낮에는 인제 인부의 집에서 수녀님들이 모셔다 돌봐 주시  
고. 낮에는 인제 아무도 없으니깐. 집에.

조사자 : 그렇죠. 그럼 부인도 바깥일을 하세요?

구술자 : 직장. (직장) 예. 그 그 저기 어디야. ((여보세요. 외부 전화 통화)) 뭘 이야기 했었나.

조사자 : 직장. 부인. 부인께서 직장.

구술자 : 직장 다니는 게. 저기 저기 어디야. 계원예술고등학교가? (예. 계원예고) 예. 계원  
예고에 거기 식당에. (아. 의왕시에 있는 거죠?) 아니요. 분당예요. (분당에도 있어요?) 케  
이티 옆에. (아. 거기도 있구나. 아 고등.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계원예대가 아니고?)  
예. 거 거기에 집에서 맨날 놀기도 지루하고. (그렇죠) 거기를 인제 다녔는데. 옛날에는 거  
기가 뭐 하청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밥을 해 줬었는데. 하청업체가 없어지고 직영이 되다  
보니깐 직원이 되 버린 거야. 그냥. (아. 잘됐네요) 예. 예. 허허. 방학 때 놀고. 토요일 일  
요일 날 쉬고. 뭐. 일찍 갔다가 늦게 올 때도 있고. 일찍 올 때도 있고. 그래 갖고. 그리고  
또 집에서 노는 거 보단 낫더라구요. (그렇죠) 허허허.

조사자 : 요즘 사시는 건 뭐. 큰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구술자 : 예. 걱정은 없어요. 걱정은 없어. 돈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돈 가지고

걱정은 안하고. 그래요. 그냥 뭐. 그냥.

조사자 : 계획 같은 건?

구술자 : 앞으로 계획. 계획 같은 것은 지금 하는 일 그냥. 그냥 그냥 하고. 이제 애덜한테 물려줘야죠. (물려 줘) 인제 저도 인제 이제 욕심이니깐.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인제 손 놀 때가 된 거 같아요. (하하) 허허. 힘도 들고. 사실 일허다 보니깐. 너무 힘들어요. 땀을 흘려서

조사자 : 그 좀 인제 더 나이 드시면 어디로도 좀 옮겨가서 사실 생각 있어요?

구술자 : 광주에 집 하나 샀어요.

조사자 : 아. 그쪽으로 옮겨 가실려구요?

구술자 :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여기를 팔은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좁고. 또 아들도 장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가 보내면은 뭐. 여기서 살. 여기는 재개발은 한다 그러니깐 그냥 놔두고. 광주 가서. 재개발하면 이쪽으로 와야죠.

조사자 : 재개발하고 난 다음에?

구술자 : 예. 허허.

조사자 : 왜 자꾸. 이쪽. 이쪽이 좋으신가 보다.

구술자 : 그래두. 고향인데

조사자 : 오랫동안 사셨던 데라.

구술자 : 예.

조사자 : 그래두 여 여기 싫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구술자 : 근데. 떠나고 싶진 않더라구요.

조사자 : 아. 그렇구나. 예. 뭐 거의 이야기 많이 하셨죠?

구술자 : 예. 허허.

조사자 : 하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구술자 : 예. 감사합니다.

조사자 : 감사합니다.

수진동 구술대상자 조사 카드

1. 구술대상자

이름		남 , 여
출생연도		
현거주지		
학력		
직업		
가족관계		
수진동 거주기간	년 부터	년 까지 (    년간 )
약력		

2. 조사관련

사전접촉	조사자		
	일시		
	장소		
1차 인터뷰	조사자		
	일시		
	장소		
2차 인터뷰	조사자		
	일시		
	장소		

## 구술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구술정보 제공자	이름						
	주소						
구술 일자		2010년	월	일	2010년	월	일
구술 장소							
구술 내용		구술자의 개인생애					

1.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이야기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구술정보 조사 작업은 장노현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2. 여기서 구술정보라 함은 상기 구술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사인터뷰의 녹음자료 및 전사자료, 이를 재구성한 재구성자료, 그리고 구술 상황을 기록한 화상자료 등을 의미한다.
3. 본 구술정보는 본 사업을 위해 재구성 작업을 거쳐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필요시 음성파일 및 자료집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구술정보 제공자는 본 구술정보에 대한 복제, 공표, 전송, 방송, 전시 등의 권리를 상기의 조사 책임자에게 부여하며, 그 기간은 저작권 보호 기간의 만료 시까지로 한다.
5. 구술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할 경우 익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6. 구술정보 제공자가 원할 경우, 조사자는 출판된 책이나 기타 자료집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술정보 제공자의 요청사항)

본인은 구술정보 제공자로서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구술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1년    월    일

구술정보 제공자

(인)

장노현(張魯鉉) \_ jnohyun@hanmail.net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소설과 디지털서사를 전공했고, 이후 문화콘텐츠와 인문정보학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한국문화 대표사이트인 ‘디지털한국학’ 사이트를 기획·개발하였고, 2000년대 들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초기 기획 및 개발을 이끌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디지털서사 연구와 구비문학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획과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하이퍼텍스트 서사》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 《기충리더십과 시민공동체》(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다매체 환경에서 문학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모색〉, 〈디지털 서사의 서사구성 원리〉, 〈인문학적 문화콘텐츠와 창의성〉, 〈구술 생애사 스토리텔링의 분절과 결합 구조〉 등 다수가 있다.

##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cf.or.kr](http://www.sncf.or.kr) /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은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2005년 10월에 있는 성남 아트센터 개관 준비에 집중되었으며, 개관과 함께 문화도시 정책부서인 문화연구부가 2020년까지의 3단계 15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재단 정책사업을 펼치게 된다.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포함한 4대사업을 통해 ‘시민이 도시를 창조하는 주체다’라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한 세밀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된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은 책으로 발간되어 40여권에 이른다.(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야기북’ 시리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장노현 박사와는 2007년에 ‘사랑방문화클럽’의 클럽 대표들에 대한 ‘서사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2008년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와 2009년도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작업했으며, 2010년도에는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와 ‘섬말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작업해 오고 있다. 향후 성남문화재단의 ‘이야기북’은 스토리텔링 클럽이나 집필 커뮤니티(writing communitie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창작자가 되는 것이다. 동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네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성남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살아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이야기이다.



그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골목 너머 저 바깥세상이 너무 화려해져 버렸다고 하는 게 맞겠다.

하나는 살림방으로 쓰고, 좀 떨어진 곳의 다른 방에는

나전칠기 하청 공장을 만들었다

보통 그런 곳은 **명절** 때가 되면 직원들 이동이 많았는데

버스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이리저리

어머니에게는 외국으로 보낸 자식이 하나 더 있었다.

일본으로 **신집**을 간 딸이었다

조개껍질을 얇게 잘라낸 조각을 자개라고  
하는데,

섬세한 문양으로 오려낸 자개를  
그는 처음에는 기술자들을 여럿 데리고  
공장을 했다

아들까지 내주면서 마음을 써준 시숙을 봐서라도 참아야 했다.

혹시 **성남에**

새로 마련한 불하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성남에 가서 자신의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말했다.

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고, 밀천 한 톨 없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성남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어미라,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수전동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수전동 이야기북 4

2010 '수전동 사람들 이야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9 788994 964003  
ISBN 978-89-94964-00-3